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23일)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뭣이 단청이고 단풍일까? 가을이 깊어간다. 단청은 불전을 장엄하고, 단풍은 사바를 장엄한다. 어느 것이 단청이고 어느 것이 단풍인가? 깊어가는 가을 속에 단청과 단풍이 마주하고 있다. 사진은 10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 산령각 단청과 마주한 가을 단풍 모습. **양평 용문사=박재완 기자**

여말선초 구결담긴 15세기 '법화경' 공개

법응 스님, 22일 기자회견… 진품명품 방영도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 구결과 한글 손 글씨가 담긴 〈법화경〉이 공개됐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와 조선시대 구결과 15세기 한글 손 글씨가 다량으로 담긴 〈법화경〉을 공개했다. 앞서 10월 21일에는 KBS 1TV 'TV쇼 진품명품'에 공개하기도 했다.

구결은 한문에 토(吐)를 넣어 읽는 한국적 한문독법으로, 이는 우리말 변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법응 스님 소장 〈법화경〉을 연구하고 있는 장경준 고려대 국문과 교수는 방송에 출연해 "출품된 〈법화경〉은 우리말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장경준 교수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구결은 방법이 다르다. 해당 〈법화경〉은 이런 고려와 조선시대 구결이 모두 같이 들어있다"면서 "다른 사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결이 많다. 연구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서지학적으로 분석했던 다른 감정위원은 "출품된 〈법화경〉은 15세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낙장과 훼손이 있지만, 구결과 한글 손 글씨는 매우 중요한 자료여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화경〉을 살펴봤던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도 그 가치를 인정했다. 이도흠 교수는 "최소한 3차례에 걸쳐 구결과 국문이 쓰여졌다. 세 시기의 언어가 담긴 것"이라며 "중세 국어에서 사라진 단어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언어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어 국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 공개한 〈법화경〉의 첫 부분.

고려 · 조선기 걸쳐 작성
당시 구결 모두 기록돼
"국어 변천 확인할 자료"

소장자인 법응 스님은 해당 〈법화경〉 영인본을 대학 전문 연구기관과 학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응 스님은 "공개된 〈법화경〉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이 같이 구결과 초기 한글이 담긴 경전들이 발굴돼 한글 창제와 발전에 불교가 기여한 바가 증명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만공 뺀 만해 선양, 선학원 정체성 저해"

김광식 교수, 現선학원 지나친 만해 선양 비판

'선학원 미래를 열다' 주제로 선학원미래포럼 2018 워크숍

金 "선학원 창건주역은 만공"
한용운은 선학원 주석하면서
계몽 · 불교대중화 등에 힘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법인관리법 제정으로 촉발된 조계종단과 선학원의 대립이 수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선학원이 창건 주역인 만공 스님을 배제한 채 만해 스님 선양사업에 치중하며 선학원 정체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간월암 · 정혜사 소유권을 두고 선학원과 수덕사가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선학원이 의도적으로 수덕사를 중창한 만공 스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10월 25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서 선학원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2018 워크숍에서 '선학원 정체성의 재인식-만공과 한용운, 계승의 문제'를 주제로 이 같이 발제했다.

만해가 선학원 설립 조사?

김 교수는 이날 최근 완공된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의 상량문을 중심으로 선학원 정체성과 관련된 3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선학원 설립조사에 만해 한용운을 포함한 점 △만공을 설립조사 후반부에 배열한 점 △선학원이 조계종을 1962년에 탄생시켰다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선학원은 1921년 8월 10일 공사를 시작해 그해 11월 30일 준공됐다. 하지만 한용운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럼에도 한용운을 선학원 설립조사로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역사적 오류"라며 "상량문에 설립조사를 만해 · 용성 · 남전 · 도봉 · 석두 · 만공 · 성월 순으로 배열했다. 하지만 1986년 선학원 이사장이던 범행이 만든 〈선학원 약사〉의 인사말에 (공로자를) 백용성, 송만공, 김남전, 강도봉, 김석두, 오성월, 한용운, 김적음 순으로 설명한 것이 정직한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조계종단이 1962년 창종된 것은 아니기에 선학원이 조계종을 탄생시켰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자 몰역사성이다. 조계종은 선학원 창건 당시, 또 그 이전 불교종단들을 계승했다"면서 "선학원이 현재 조계종과 대립하는 현실이라고 해도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만공 스님이 선학원 창건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에 따르면 만공 스님은 1921년 5월 선학원 건립비용을 모금하기 위해 석왕사포교당에서 열린 보살계 계단에서 사찰령 체제와 무관하게 승려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선방을 만들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1935년 3월 7일 열린 수좌대회 보고에서도 "송만공, 백용성, 오성월, 강도봉의 발기로 선학원을 창립하다"라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만공 스님은 선학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모임 성격의 선우공제회 출범 직후 수도부 이사를 담당하면서 토지를 기부하고, 현재 선학원 3층 법당 불상을 직접 흙으로 빚는 등 선학원 창건 주역이라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역사적 균형 갖춰야"

그렇다면 만해 한용운은 어떨까. 김 교수는 "한용운이 1922년 초 유점사 포교당에서 선학원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선학원 사업에 동참했다. 주체는 아니었고 합류하는 성격이었다"며 "선학원을 주된 거처로 활용하면서 불교 · 계몽 · 문학활동 등을 펼쳐 선학원의 한용운이 홍보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용운이 선학원에 머물며 일제강점기 식민지 불교정책을 부정하고, 불교청년운동과 불교대중화에 헌신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용운의 독립운동, 민족운동, 대중활동이 선학원 역사에 일부 편입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한용운 역사 전체를 선학원에 유입시킬 수 없음은 상식적 이해다. 상식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흐름이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며 현재 선학원의 만해 선양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 입구에 세워진 한용운 동상은 위치를 이동하든가, 만공 동상을 만들어 균형을 이루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선학원의 역사 및 이념 정비에서 만공을 적절하게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학원의 선양사업은 의도적 · 편의적으로 몰역사의식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한 선학원 답변을 듣고자 연락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설악산인' 무산 스님 은관문화훈장 수훈

문체부, 24일 시상식… 시조문학 발전 공로



지난 5월 26일 원적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스님〈사진〉이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8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 수훈자 19명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수상자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자 8명 등 32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무산 스님은 시조 시인으로서의 업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무산 스님은 1968년 '시조문학'에 등단한 이후 시집 〈아득한 성자〉 〈비슬산 가는 길〉 〈적멸을 위하여〉 〈마음 하나〉 등을 출간했다.

또한, 무산 스님은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만들어 〈유심〉지를 복간하는 등 한국문학 중흥의 장을 열었으며, 만해 사상을 계승해 국내외 문화 교류에도 적극 기여했다.

한편, 무산 스님과 문화예술공로자를 위한 시상식은 10월 2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열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BLOOD MATE® (비누)가 세포속으로 들어가 피를 맑게하고 뇌파를 안정시키며
대장균·포도상구균을 99.9% 항균한다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적혈구 — 연전현상 /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 사용전 / 사용후
뇌파 측정 — 세타파 16.7 / 알파파 66.7 / 베타파 16.7 → 세타파 0.0 / 알파파 82.5 / 베타파 17.5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 사용전 / 사용후
대장균 — 사용전 / 사용후 99.9%
포도상구균 — 사용전 / 사용후 99.9%

BLOOD MATE®
항균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 ☎ 02)353-9692 / 010-2791-3696

달라이 라마 방한, 다시 불붙을까

방한추진회, 일본법회 앞두고 국내 초청 '시동'

조계종 총무원과 현황 공유
단시일 내 가능성은 낮지만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기대↑

달라이 라마 "언제든 OK"
연말까지 방한 추진 실시
독자적 초청 운동 계획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최근 개선된 남북관계를 비롯해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티베트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국내 초청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단기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조계종 총무원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2014년부터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해온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상임대표 금강)는 10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데 이어 23일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과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달라이 라마 초청에 군불을 때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방한추진회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 초청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달라이 라마 방한을)적극 찬성하고, 오시는 것을 대환영한다. 사회부와 상의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추진하시면 도와드릴 것은 열심히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달라이 라마의 방한으로 한국불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이 다시 눈길을 끈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성과에 따른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이 손꼽힌다.

방한추진회 상임대표 금강 스님은 "보수정권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중국 반응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교황의 방북까지 논의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야말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달라이 라마께서 우리나라에 올 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방한추진회는 조계종 총무원 협조를 구하기 위해 5년간 펼쳐온 활동내역을 국제팀에 공유했다. 이는 앞서 총무원과 방한추진회의 교감이 거의 전무했던 것을 비교할 때 현재 달라이 라마 초청에 눈길이 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달라이 라마 초청이 단순히 불교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어서 총무원도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국제팀 관계자는 "달라이 라마 방한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함께해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단순히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사회적 공의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순서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앞으로도 방한추진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한추진회는 11월 13일 예정된 달라이 라마 일본법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차원의 초청장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연말까지 정부와 총무원 차원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현재까지 받아둔 16만여 명의 서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초청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방한추진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달라이 라마 존자는 정치적인 분이 아니고, 대외직함도 없는 종교인일 뿐이다. 존자께서도 우리나라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오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며 "순수한 목적의 초청인 만큼 불교시민단체와 언론 등과 함께 활동에 나설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송하 스님 임명

조계종 산하기관 인사… 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조계종이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송하 스님을 임명하는 등 산하기관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0월 25일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송하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에 원철 스님, 불교신문사장에 진우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에 일감 스님·사무국장 원묵 스님을 임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원묵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송하 스님은 능엄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했다. 마곡사 태화선원, 망월사 천중선원, 덕숭총림선원, 고불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현재 보리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법전스님을 은사로 1987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해인사 월간해인 편집장,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및 총무원장 권한대행, 총무부장, 기획실장, 사서실장, 호법부장을 역임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불교사회연구소장,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도법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포교원 포교국장 및 포교원구실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광주 선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단일계단 성립 의의 살피다

율장연구회, 10월 22일 제5회 계율토론회

조계종 단일계단 성립과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율장연구회(회장 무관)은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단일계단 설립'을 주제로 제5회 계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계단위원 무관 스님의 기조 발제를 비롯해 단일계단 설립과 운영,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논문 발표들이 이뤄졌다.

무관 스님은 기조 발제를 통해 "계율은 수행의 기초"라면서 "승가는 스스로가 행위의 주체로서 평등, 자유의 실천자다. 이런 면에서 계율 행지(行持)는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율은 오직 승가의 유지 존속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이 세간에 지속적으로 유전해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가자 자신의 청정성 확보는 포살과 자자를 통해 얻게 돼 참회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율감 정본 스님이 '단일계단 설립 의의'를, 송광사 율감 승덕 스님이 '단일계단 제도와 운영'을, 통도사 대전포교원의 설문 스님이 '단일계단의 발전 방향'을, 운문사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이 '조계종 이부승수계제도의 정착과 의의'를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가을에 만나는 상불경보살

가을입니다. 잘 익어 고개숙인 벼와 농익은 과일, 하루가 다르게 물들고 떨어지는 낙엽은 겸손과 하심을 상징하는 '가을의 향기'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낮추면서 남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겸손함이 없이 잘난체 하며 건방지고 버릇없음이 불교에서 비롯된 말 교만(驕慢)입니다. 남을 깔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 우쭐거리는 마음입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은 바로 교만에서 나옵니다. 하심은 겸손과 같은 뜻입니다. 선가의 마음내려놓기 방하착(放下著)에서 온 선어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나는 겸손한가 교만한가, 나는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자성반조(自性返照)해 봅시다.

'철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가을처럼 겸손하고 가을햇살처럼 착하고 가을하늘처럼 청명합시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은 겸손과 하심의 본보기 인물입니다. 상불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인행(忍行)을 닦을 때의 이름으로 '늘 공경하고 무시하거나 천시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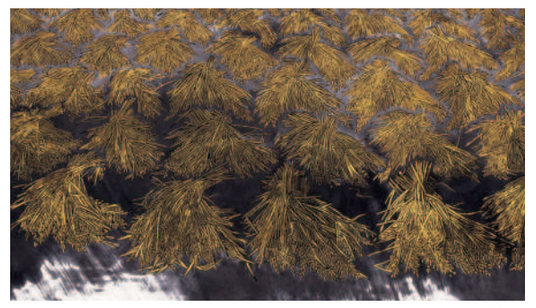
아주 먼 옛날, 위음왕(威音王) 부처님이 멸한 후 깨달음을 얻은체하는 증상만(增上慢) 비구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때 상불경 보살 비구는 증상만 대중이 멀리서 지나가면 쫓아가서 예배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며, 결코 경멸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들은 다 보살도를 행해서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이들은 "이 어리석은 비구야, 네가 어찌 우리에게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까지 주느냐"며 꾸짖고 몽둥이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보살은 피해 달아나면서 더 큰 소리로 "나는 그대들을 가벼히 여기지 않는다. 모두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는 욕설에도 상불경보


가을처럼 겸손하고 가을햇살처럼 착하고 그림 · 조향숙

가을은 겸손 상징의 계절
상불경, 늘 이웃 공경 '겸손'
교만 버리는 無我 · 廣利行

살이 성내지 아니한 이것이 진무아(眞無我)입니다. 스스로 겸손을 보여 교만이라는 번뇌를 치료하기 위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보살 비구가 임종할 때에 허공에서 법화경 이십천만억 게송이 들려와 다 듣고 육근 청정을 얻었으며 수명이 늘어나 이백만억 나유타의 세월동안 널리 대중을 교화했습니다.

보살을 업신여긴 증상만 사부대중은 일천겁 동안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죄보가 끝난 후 상불경의 자비 교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을 철저히 버린 보살의 광리(廣利)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만을 죽여야 겸손해집니다. 안이비설신의를 다스려 '나'에 집착하지 않고 말과 행동과 마음이 청정하면 탐진치가 소멸됩니다. 겸손은 수행입니다. 상불경보살이 모든 이웃의 불성에 합장하듯 겸손은 귀의입니다. 그리고 무아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먼지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 상불경 보살이 됩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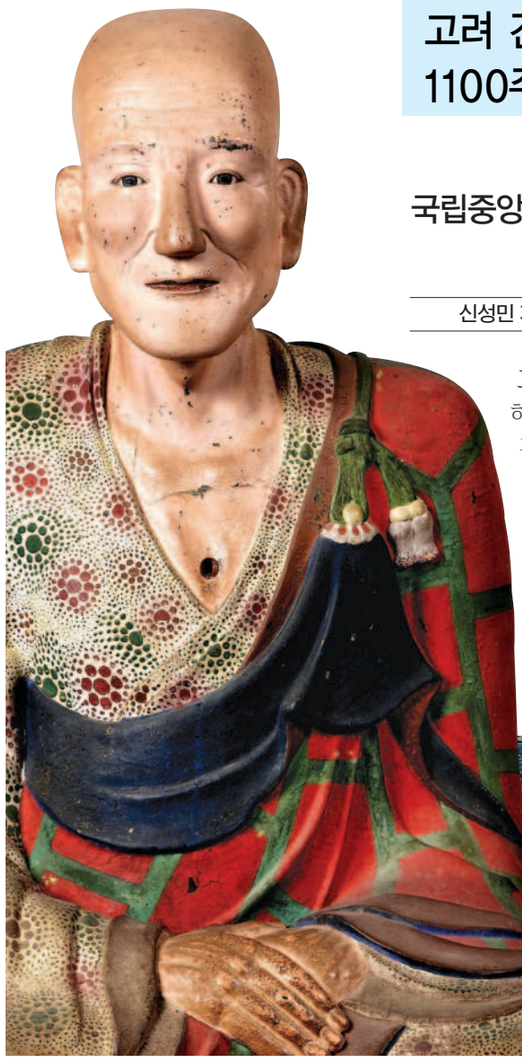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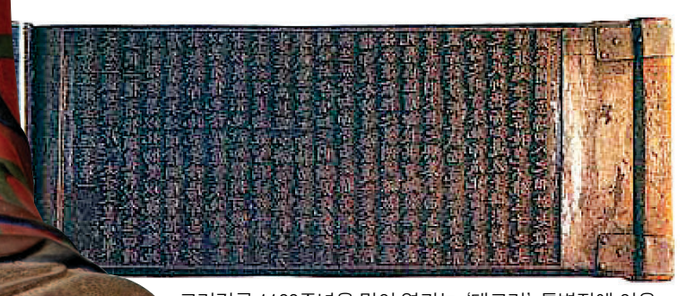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고려 건국 1100주년

해인사 대장경·희랑대사상 서울 '나들이'

국립중앙박물관 11월 9~10일 이운행사





고려건국 1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대고려' 특별전에 이운·전시되는 건칠희랑대사좌상과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과 건칠희랑대사상이 서울로 이운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합천 해인사, 연천 숭의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국보 제32호)과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이운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12월 4일부터 개최하는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전시되는 해인사 고려대장경 경판과 건칠희랑대사좌상 이운을 위해 진행된다.

11월 9일 오전 10시 해인사에서 봉행되는 고불식은 대고려전에 전시되는 성보문화재들의 이운을 알리는 행사이다. 고불의식은 법보전 앞에서 열리며, 고불문 낭독에 이어 주지 향적 스님이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경판 전달을 한다.

'대고려' 특별전 사전행사 일환
대장경 경판 4점 국박 첫 전시
왕건·스승 희랑대사 만남 '눈길'
"고려, 한국인 DNA임을 알기를"

이날 전달되는 경판은 특별전에 전시되는 4점으로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하기 전 중국과 한국의 왕들의 연표를 정리했던 '역대왕조연표'와 현존 최고(最古) 목판인 '수창판', '화엄경판', '예수시왕생심경판'이다.

또한 함께 이운되는 건칠희랑대사좌상도 주목할 만하다. 희랑대사는 태조 왕건의 스승으로 화엄학의 대가였다. 희랑대사좌상은 930년에 입적한 스님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일종의 초상 곧 진영(眞影)으로, 한국에 전해오는 유일한 목조 진영이자 가장 이른 시기의 목조 불교 조각이기도 하다.

해인사의 대장경 경판과 희랑대사좌상이 사찰을 떠나 서울로 이운돼 전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히 경판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11월 10일 오전 10시에는 고려 태조와 왕들의 제사를 지낸 사당인 연천 숭의전에서 문화행사가 열린다. 해인사에서 이운된 희랑대사좌상과 태조 왕건의 진영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행사는 전통의장대와 고려공신 16명이 희랑대사를 호위해 숭의전에 도착하는 이운행렬과 스승 희랑대사와 제자 태조 왕건의 1천년 만의 만남을 축하하는 고려가무악과 서예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진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1월 10일 오후 4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대장경 문화행사'이다. 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는 대장경과 희랑대사의 이운행렬을 비롯해 신달자 시인의 민족 화합 헌시 낭독, 영접 축하공연, 탑돌이, 길놀이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박물관 거울못과 주변에서는 소원지 쓰기와 가족 소원 등 띄우기 행사들도 함께 진행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고려 건국 1000주년은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이었기 때문에 이번 1100주년 행사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대고려전'은 올해 열렸던 고려 건국 관련 전시, 문화행사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고, 불교를 통해 많은 국난을 극복했다. 고려가 한국인의 정신적 DNA의 뿌리임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려 한다"면서 "또한 한반도 중심에 첫 수도를 내렸던 고려의 기상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며, 특별전이 이런 교류의 모멘텀이 됐으면 한다. 이 같은 염원으로 이운행사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0년 이내에 이 같은 전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려 불교 문화에 대한 전시도 이뤄지는 만큼 조계종 문화부에 협조를 구해 많은 사찰 신도들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화합 이끈 복지 '20년'

개관 20주년 맞은 옥수종합·강북장애인 복지관





10월 25일 열린 '옥수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모습(왼쪽)과 강북장애인복지관 시니어리더대학서 윷놀이하는 활동사진(오른쪽).

불교계 사회복지 영역이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불교계 복지관 두 곳이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한 초창기 복지관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두 복지관은 앞으로 '지역지향성'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을공동체로 계층 화합 추구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현)은 재단이 1997년 위탁, 이듬해 성동구 옥수동에 개관했다. 복지관은 운영지원 사찰인 미타사 정수암(주지 상덕)과 함께 옥수 일대 지역민과 20년간 함께 걸어왔다.

개관 당시 달동네였던 옥수동은 이후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중산층 거주지역이 대거 유입됐다. 이에 따라 복지사업의 방향은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와 모든 계층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전개됐다.

복지관은 경제소득과 복지욕구가 상이한 지역민들 사이서 가교 역할을 하며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피는 마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해마다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복지관은 10월 25일 옥수역 광장 및 미타사 앞마당서 개관20주년 기념식을 열고, 26일까지 양일간 '옥수바자회'를 진행해 다시 한 번 계층화합의 장을 열었다.

옥수복지관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우수한 양적 성과를 이뤄냈다. 향후 복지관은 20주년을 기점으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시기로 보고 있다.

권기현 관장은 "원주민은 이주민을 잘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새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환경마련 주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재단이 1998년 위탁 운영한 불교계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으로, 현재 화계사(주지 수암)를 지원사찰로 두고 있다. 강북복지관은 20년 동안 강북구 어린이청소년 및 성인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의료재활·사회참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복지관이 위치한 번2, 3동 일대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서울시 내 장애인 및 고령 복지대상자 밀집도가 최고 수준인 지역이다. 복지관은 이용자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계를 선도해왔다.

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중이다. 그 중심에는 '시니어리더대학'이 있다. 주 이용자인 장애어르신 회원들은 회장 및 운영진을 선출해 이용자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복지관은 성인장애인의 주도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 아파트지만 서로 교류하지 않은 장애·비장애 주민들의 모인인 '스몰스파크' 등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10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서 전국 장애인복지 종사자 200명과 개관20주년 세미나를 열고, 사례를 공유하며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조석영 관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제반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한반도평화 위해 정교분리 각별 주의"

조계종 종평위, 10월 19일 특별미사 생중계 관련 입장문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바티칸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사안이 일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가운데, 조계종 종평위는 공적 영역서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는 10월 19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특별 미사가 몇몇의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전한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당혹감 또한 존재한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한반도 평화와 종교 간 평화를 위해 "공적영역에서 종교로 인한 갈등, 편향, 차별이라는 갈등의 씨앗이 잉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지율 스님 단식 '6조원 손해' 보도 허위"

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대법원 승소판결

'천성산 도롱뇽 단식'을 전개한 지율 스님으로 인해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는 허위였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9일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율 스님이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불교환경연대는 판결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마음공부 하는 청년들이 펼쳐가는 세상”

한마음선원 10월 21일 제15회 전국연합청년법회 봉행

안양본원에 1000여 청년대중 운집
대행 스님 영상법문 · 즉문즉답 경청
전국지원 청년 열정 한자리서 선뵈

노덕현 · 김지원 기자





이날 전국연합법회에는 1000여 대중이 모여 마음공부를 논했다. 오른쪽 사진은 2부 담선토크 모습이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0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서 ‘제15회 전국연합청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안양본원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진주, 제주 등 전국 15개 지원서 청년회 법사 스님과 1000여 청년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의식곡 △청법삼배, 청법가, 입정 △대행 스님 영상 법문 △스승님께 올리는 글 낭독 △대구 · 울산지원 청년연합 합창단의 ‘한 그릇의 물맛’ ‘자기의 길을 닦으려면’ 선법가 음성공양 △불사금 전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서는 특히 대행 스님이 과거 청년불자들에게 하신 법문과 청년들과 대행 스님이 함께 나눈 질의응답이 영상으로 전해졌다.

1995년 11월 5일 제5회 전국연합청년법회서 대행 스님은 “굳세고 금 같은 마음 하나가 우주 천하를 덮고도 남는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대로가 답이다”며 “소소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매달리지 마라. 안 되고 되는 것은 모두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남을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는 속담처럼 자기의 근본 마음을 굳게 믿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공부에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에 참석한 광주지원 강하림(22) 씨는 ‘대행 큰스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선원서 배운 대로 관하려고 노력했고, 할 수 있다고 마음에 입력한 결과 이루고자 한 입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힘든 일을 겪으며 마음공부와 법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며 “대학 동기 3명이 나를 견제하려고 던진 말에 자기의심을 반복하며 괴로웠다. 큰스님 비디오 법문과 법우들의 생활 속 마음공부 이야기를 들으며 주인공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 타인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관심과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전국 지원 청년 법우분들이 이렇게 도량 가득 메워주어 매우 든든하다. 큰스님께서 법문에서 여러분이 우주 천지를 이끌 수 있는 기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하시면서 스님의 에너지도 가득 전달해 주셨을 것”이라며 “이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이 천년에 한 번 만날까 싶을 정도로 귀한 인연이라고 큰스님께서 말씀하셨듯 여러분도 한마음을 내어 더욱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훈 안양본원 청년회장(33)은 “전국 청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들은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근본을 믿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또 내 마음과 같이 생각하라는 큰스님 가르침을 따르며 정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의 은혜에 보답하고 전체에 이익되는 청년회가 되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진주지원에서 참가한 윤지연(22) 씨는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부터 두 여동생들과 함께 선원을 다녔다”며 “평상시 각자 바쁘게 지내다보니 셋이 다같이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법회를 같이 나오니 좋다. 다른 청년들과 법문을 들으면서 더욱 마음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 현안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불교발전聯 심포지엄

한국불교 현안에 대한 분석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혜총)은 11월 5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현안과 진로 모색’을 주제로 개원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혜총 스님(조계종 前 포교원장)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불교의 역할’ 기조강연으로 시작을 알리며, 주제 발표에서는 대사회 · 포교 · 재가운동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진다.

주요 발표로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현실과 사회적 신뢰 구축’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포교현실과 전법교화 전략’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종단 현실 속에서 재가운동의 현황과 전망’ △이덕진 前창원문성대 교수의 ‘사부대중 어떻게 소통하고 화합할 것인가’가 발표된다.

종합토론자로는 조계종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조계종 前 총무부장 원학 스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종교구, 대만 생활불교 체험

10월 15~19일 불광산사, 중태선사 등 참배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혜자)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군승 해외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군종교구 성지순례단은 수석부교구장 남전 스님과 차석부교구장 지선 스님, 육군 52사단 지효법사 그리고 공군 15전투비행단 지안법사 등 위관 군승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순례는 4박 5일 일정으로 자항사, 중태선사,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대만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다.〈사진〉

순례 첫날은 인간불교를 표방한 자항스님의 육신보살 등신불이 모셔져 있는 자항사를 참배했으며 2일차는 세계 3대 종교사원으로 칭해지는 중태선사를 방문하고 불광산사를 참배했다.

3일차에는 불광산사 불타기념관을 방문했다. 주신 신보 스님은 “불광산사를 개산하신 성운대사께서는 사람중심,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 실천함을 주창하셨다. 수석부교구장 남전 스님 및 법사님들은 중생들의 의지처인 보살행의 모습이요 마음의 선생님이기에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바란다”라고 환영의 인사말을 했다.

수석부교구장 남전 스님은 “한국의 대표종단 군종교구에서 군포교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군승 10명을 대표하여 성운 대사님의 원력과 수행, 전법을 크게 찬탄하며, 불광산사에서의 귀중한 것을 배운다. 참다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제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원력을 세운다”고 답사했다.

이어 4일차에는 화련지역으로 이동하여 세계최대의 불교자선사업재단, 세계복지사업의 중심인 자제공덕회 정사당 참배 및 모태인 자제정사를 방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VMS도입, 전문봉사단 출범

〈봉사인증시스템〉

10월 18일 자원봉사단 ‘가피’ 발대식 열어

조계사는 10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함께하는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10월 18일 전통공연장에서 대중들은 한마음으로 발심하며 불교발전을 서원했다.

가피 자원봉사단 200여명은 집수리, 반찬 나눔 등 지역 취약 계층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 의료봉사, 한부모 · 다문화 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새터민과 탈북 대학생 지원, 자연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가피 자원봉사단은 사회복지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에 가입,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실적 인증 확인서 발급과 조회를 가능케 하고 우수봉사단과 봉사자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 봉사활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계사는 올해 5월, 가피 자원봉사단 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자원봉사단을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인등록을 했다. 2회에 걸쳐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사찰순회 교육을 완료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단 지회등록도 마쳤다.

주지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고민과 신심으로 오늘 자원봉사단이 발대하게 되었다”라며 “가피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봉사하고, 하나하나 쌓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조계사는 10월 2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0회 조계사&종로구 일자리나눔 채용박람회 1 · 9DAY’를 개최해 중장년층 취업상담과 현장 채용 등을 진행했다. 이날 주지 지현 스님과 김강윤 종로구 부구청장이 직접 취업상담사로 나서 구직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도 했다.

이날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직 컨설팅(구직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기술 안내 등), 현장채용을 위한 면접, 취업교육 · 직업훈련 안내, 중 · 장년 및 노인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10월 20일 조계사에서 국제포교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포교사는 1995년에 1기가 배출 되었으며, 1998년 국제포교사회가 창립됐다. 국제포교사는 1기 12명으로 시작하여 2018년 현재 23기로 품수를 받은 12명을 포함해 총 60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대신해 포교국장 보연 스님이 참석해 국제포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홍우 회장은 기념사에서 “출가하시는 스님들의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국제포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국제포교사회는 20년간의 국제포교사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18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청소년부, 연등부, 다문화부 및 교육부 활동내용도 소개됐다. 특히 청소년부는 올해 해군 본부인 통해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어린이 법회활동을 소개했다.

노덕현 기자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휴대전화 011-870-0021



금산사 개산 1419년을 맞아 열린 모악산 문화제에서 내빈들이 기념테이프를 자르며 금산사 개산을 축하하는 모습.



지구촌공생회 15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에서 이사장 월주 스님 등 내빈이 라운딩을 하고 있다.



모악산 문화제에서 군산 상주사 난타팀이 대중을 위해 신명나는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금산사 경내에 걸린 연등이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금산사는 개산을 기념해 만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구세원력으로 꽃피운 미륵성지”

익산 금산사, 개산 1419주년 모악산 문화제

보살계 수계법회 비롯해
모악산 숲속 음악회 등
지역민 어울림마당 마련

지구촌공생회 창립 15년
기념 사진전시회도 열려

금산사=조동제 전북지사장

백제 법왕원년(599년) 백제왕실의 자복 사찰로 창건된 미륵신앙 성지 모악산 금산사가 개산 1419돌을 맞았다.

익산 금산사(주지 성우)는 10월 20일 개산 1419주년을 맞아 창건 이래 역대 조사스님들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진력한 위법망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를 계승하는 모악산 문화제를 개최했다.

개산 1419주년 기념법회 후에는 모악산 숲속 음악회와 보살계 수계법회, 창립 15주년을 맞은 NGO 지구촌공생회의 활동 모습을 소개하는 사진전도 열렸다.

이날 개산대재는 조사전과 부도전 역대 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다례재에 이어 예참, 육법공양, 기념법회, 모악산 숲속음악회, 지구촌공생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보살계 수계법회, 만등점등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월주 스님 “중생제도 힘쓰자”

먼저 대적광전에서는 교구말사와 포교사단 등 지역 신행단체들로 구성된 육법공양단이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는 육법공양 의식이 봉행됐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불자들은 부처님전에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현행원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처영기념관 앞마당에서 열린 개산 기념법회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을 비롯해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동영 · 김광수 · 김종회 국회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등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원효 스님의 마음의 근원을 깨닫고 일체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 보살도와 보현행원을 실천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며 “역대 금산사에 주석하신 고승대덕스님들의 혜명과 구세원력을 받들어 사회를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힘쓰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했다.

월주 스님은 또한 지구촌공생회 창립 15주년과 관련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 나눔의집 등 많은 NGO 활동을 해왔다”며 “무엇보다 캄보디아, 미얀마, 케냐 등 제3세계의 빈민구조활동과 재난구호활동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들의 공덕을 회향하는 의미에서 지구촌공생회의 활동사항을 사진으로 전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제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역대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지성불교, 대중불교, 대승보살불교운동을 실천하고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실천해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에서 “금산사는 승병활동의 요람이자 구국활동의 중심사찰이었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중생을 치유하고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용기를 주는 미륵도량을 발전하기 바란다”고 개산 1419주년을 축하했다.

주지 성우 스님은 “지구촌공생회의 활동모습을 비롯해 그동안 금산사의 활동모습도 모두 담아내려 노력했다”며 “오늘 모악산 문화제가 성황리에 잘 회향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성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념법회 후에는 모악산 숲속음악회가 열렸다. 군산 상주사 난타팀이 농악과 퓨전 타악기가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연주했고, 오페라 가수 나유진의 축하공연에 이어 가수 최유나, 조항조가 등장해 신바람 나는 축제 한마당을 연출했다.

개도국 도운 지구촌공생회

이어 처영기념관에서 창립 15주년을 맞은 지구촌공생회 활동사진 전시회가 개막됐다.

월주 스님은 15년 전 제3세계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했다. 이후 지구 15바퀴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며 네팔,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에 우물 총 2,488기를 설치하는 식수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식수를 공급을 지원해왔다. 이외에도 공생 유치원, 태공초등학교 등 72개 교육시설을 설립하거나 교사를 새로 지어주었고, 아프리카 케냐 등 5개국에서 농업기술 전수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자립갱생을 돕기도 했다.

서산대사, 사명대사, 처영대사의 구국 3화상 진영이 봉안된 처영기념관에서는 전계아사리 월주 스님과 갈마아사리 도영 스님, 교수아사리 도법 스님을 삼사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전계아사리로 등단한 월주 스님은 48보살계를 설하며 성실하고 보현행을 실천하는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둠이 내린 금산사 도량에는 만등불사를 회향하는 만등 점등식이 열려 중생구제를 실천하는 금산사를 지혜의 등불로 장식했다.

만등불사에 동참한 주순천 씨(군산 소룡동)는 “모악산 문화제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금산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전날인 19일에는 금산사 1400주년 기념관에서 ‘금산사 보살계사상의 전승과 실천’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겸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금산사를 빛낸 증흥조 고승들의 업적과 시대별 특징’, 박광연 동국대 교수가 ‘고려전기 불교 교단에서 금산사의 위상’, 이수미 동국대 교수가 ‘방등계단과 진표율사:점찰선악법보경을 중심으로’, 윤범모 동국대 석좌교수 ‘금산사 미륵전 불상과 김복진’, 이병욱 고려대 강사의 ‘보살사상의 사회참여적 측면과 월주 스님의 사회참여활동’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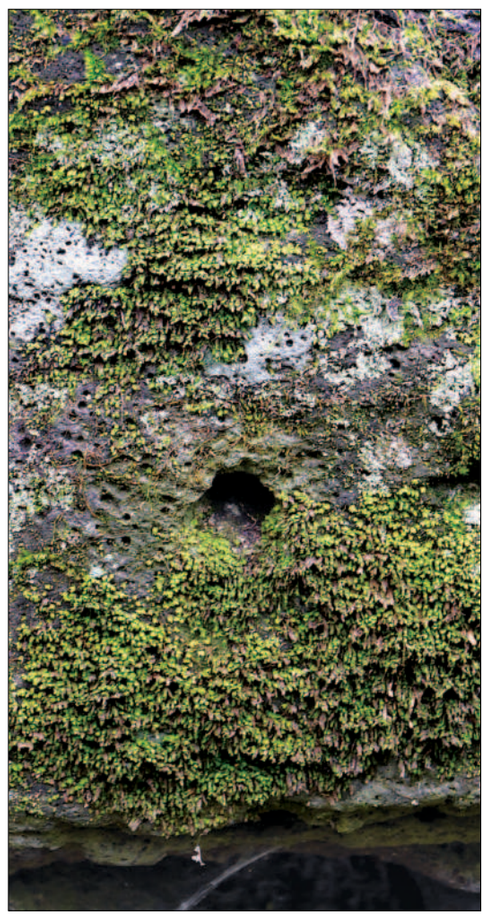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10〉 아라동 관음사

토벌대·무장대 격전지… 모든 전각 전소



제주 관음사에 남아 있는 방어진지 유적. 제주 4.3사건 당시 관음사는 무장대와 토벌대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격전지였다.



방어진지에 4.3당시의 총탄 구멍이 선명하다.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한라산 650m 기슭에 자리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제주불교의 중심이다.

구전에 따르면 고려 문종 때 창건됐다는 설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존재한 사찰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다 조선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제주지역 사찰 전부가 훼철되면서 관음사도 사라지게 된다.

200여 년의 명맥불교를 유지하다 지난 1908년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중창됐다. 스님은 해월굴서 3년 동안 관음기도를 드리며 법당과 요사를 완공하기에 이른다. 뒤이어 통영 용화사 등에서 불상과 탱화 등을 모셔와 여법한 사찰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사찰의 외형을 갖추는 불사가 일단락되자 제주 중심지인 중앙로에 시내 포교당인 대각사를 세워 제주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나선다. 오랜 시간 맥이 끊긴 제주 불교가 관음사를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관음사에도 4.3광풍이 불어 닥친다. 당시 관음사의 위치가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토벌대와 입산 무장대가 관음사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 간 첨예하게 대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음사는 모든 전각이 전소된다. 이 같은 참혹한 기억이 아직도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스님이 있다. 바로 4.3당시 13살 나이에 관음사에 기거한 광순 스님(현 명법사 주지)이다.

"제가 구좌읍 김녕리 출신이에요. 저는 독자였는데 1945년 해방되면서 마을에 콜레라가 돌면서 이를 피해 아버지를 따라 관음사로 올라갔던 겁니다. 당시 오이화 스님이 관음사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종선 스님의 할머니인 대지월 보살님, 김석윤 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성수 스님이 총무였고, 그 밑에 동생이었던 덕수 스님도 저랑 같이 교육도 받았어요."

그러나 4.3이 발발하면서 경찰과 군인들 20여 명이 올라와 관음사를 불 지른다. 양력으로 2월 경인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천둥치고 벼락이 쳤다고 기억했다. 스님은 아버지와 함께 중앙로의 관음사 포교당으로 내려오게 된다. 하지만 그 당시 기억은 생생했다.

"이세진 스님은 무장대의 간부였어요. 권총을 무장했을 정도니까요. 무장대 간부급도 관음사에 거주했는데 군복을 입은 군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덕구의 얼굴도 직접 봤는데 얼굴엔 곰보자국이 있었죠. 무장대 10여명이 관음사에서 밥도 해먹었지만 우리에게는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당시 학승으로 널리 알려진 이세진 스님에 대한 기억은 더욱 또렷했다. 당시 토벌대가 항복을 권유하는 삐라(전단,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이쪽지)를 비행기에서 뿌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세진 스님이 귀순한 거라 기억했다. 스님은 하산한 후 토벌대에 포로로 잡혀 주정공장의 수용소에 감금됐다.

"포교당에 있으면서 주정공장에 이세진 스님이 잡혀 있다기에 관음사 신도들과 함께 스님을 면회하러 갔었어요. 취조하는 소리, 비명 지르는 소리 등 지옥 같았어요. 가마니로 둘둘 말아 시체가 내쳐지는 모습도 봤어요. 여름이었는데 시체 썩는 냄새까지 그런 지옥이 없었지요."

스님은 주정공장에서 고문을 받다가 풀려난다. 당시는 양민증이 있어야 타 지방으로 갈 수 있었지만 스님은 제주시 외도 수정사지에 기거하다가 1949년 7월 9일 사복경찰에 잡혀나가 수장됐다.

관음사가 전소되자 군인들은 병력과 민간인들을 동원해 폐허가 된 관음사 경내에 주둔지를 구축했다. 숙영지와 초소 등 27곳의 방어유적과 돌담으로 제1, 2 방어선을 겹겹이 구축했다. 1955년까지도 관음사 터는 경찰유격대의 전초선 신선대 사령부로 사용됐다고 한다.

관음사 주석 이세진 스님 무장대 간부 활동
하산 후 수감됐다가 사복경찰에 의해 수장돼
폐허된 사찰에 군인 주둔… 총탄 흔적 '곳곳'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관음사

일대 사찰·마을 모두 불에 타
주지 스님 고문 후유증으로 입적

관음사는 제주시 아라 1동에 위치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사찰이다.

제주4.3시기 관음사는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관음사 전투 격전지였다. 당시 관음사는 대웅전, 선방, 향적실, 해월각, 노전, 종각, 일주문 등을 구비한 사찰이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으로 이 모든 건물이 토벌대에 의해 소각됐고 주지 오이화 스님은 토벌대의 고문 후유증으로 입적에 이르기도 했다.

관음사는 무장대 도당 사령부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덕구의 무장대 도당 사령부는 삼의양악 인근에 위치해 활동했다. 바로 관음사 초입이며 소림사가 있던 일대이다. 관음사의 이세진 스님이 무장대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하는 등의 인연으로 관음사는 무장대의 주둔지가 되기도 했다. 이세진 스님은 제주 사회의 격변기, 제주인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한 행동으로 제주4.3사건에 무장대로 적극 참여했다. 권총을 차고 다니던 무장대 간부급이기도 했다.

1949년 1월 4일 토벌대는 한라산 공습을 실시했고 이때부터 관음사 일대는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격전지가 된다. 일명 '관음사 전투'로 명명된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전투가 관음사 일대에서 일어났다. 미군이 비행기로 집중 포격을 가하는 등 총공격이 있었다. 무장대는 관음사 전투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고 급격히 세력이 약화됐다.

관음사 전투 중 관음사를 접수한 토벌대는 1949년 2월 12일 관음사 전각에 불을 질렀다. 대웅전을 비롯한 7채의 모든 전각에 불을 질러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증언에 의하면 목불상에 불을 놓자 맑은 대낮에 갑자기 천둥 벼락과 비바람이 쳐 일대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토벌대 제2연대 제2대대가 관음사에 주둔하기도 했고 관음사 뒷산 아미봉을 평화고지로 명명하기도 했다. 관음사는 더 이상 사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고 관음사의 소속 사찰인 소림사도 일대 마을과 함께 불 질러져 한라산 내에서의 불교활동이 모두 중단된 지경이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해제되고 나서도 관음사는 경찰유격대의 전초선 신선대 사령부로 사용되며 경찰의 소총 사격경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관음사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중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관음사 아미봉 곳곳에 초소를 비롯한 주둔지의 흔적이 숲속에 남아 있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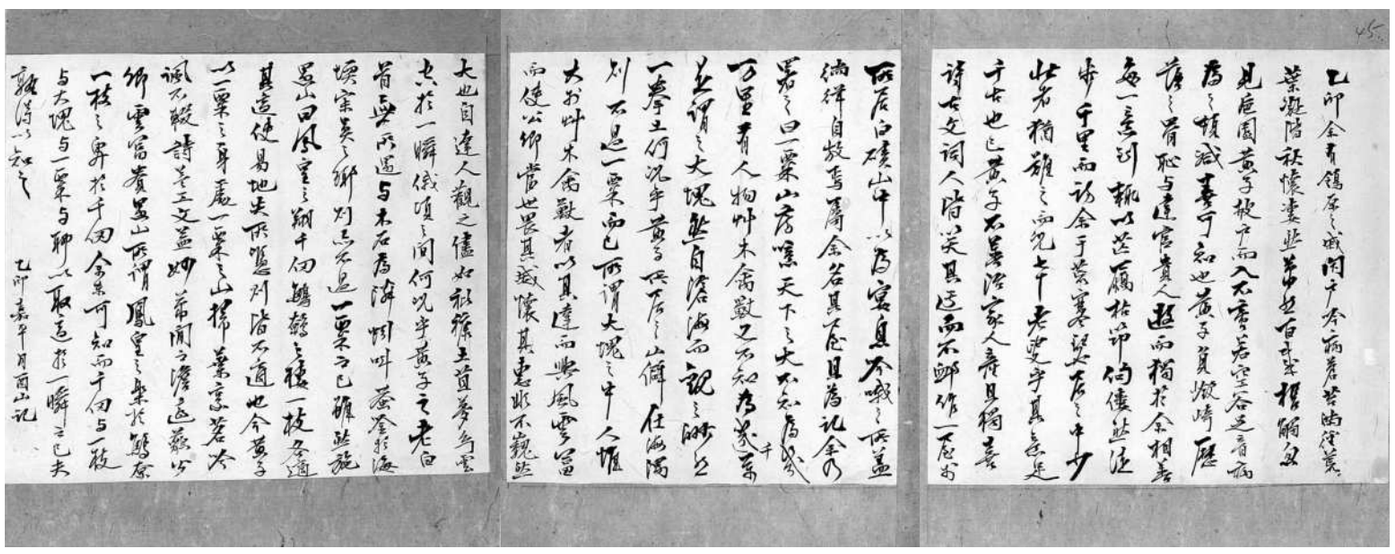


다산 시학 계승… 초야 산방서 도인의 삶



박동춘의
초의 스님 前 上書

⑳ 유산 정학연의 '일속산방기'



유산 정학연이 다산 시학을 계승한 황상의 오두막 '일속산방'을 그리며 쓴 '일속산방기'. 황상의 유유자적한 삶이 담겨 있다.

치원 황상(巵園 黃裳, 1788~1863)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이 강진 유배 시절 기른 첫 제자로, 시에 능했다. 학계에서는 그를 다산의 시학을 이은 인물이라 규정하였으니 이는 척박한 시대 환경을 학문으로 극복한 것이라 하겠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아전의 자제로 궁벽한 강진에서 태어나 조선 후기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오직 공부로 향상일로(向上一路)를 꿈꿨으니 실질적인 그의 버팀목은 다산이라는 시대의 거목이었다. 자질이나 공부에 대한 열의로는 충분히 동량(棟梁)이 될 조건을 갖췄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세상을 이롭게 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 중인이라는 그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자질과 지혜를 갖췄다하더라도 사회 제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날로 향상된 안목과 지혜를 키웠던 그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이룬 요순(堯舜)시대의 백성이 분명했다. 한평생 스승에 대한 충심(衷心)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의 행실은 신의를 실천했던 증표였던 셈이다.

그와 스승 다산, 그리고 다산가와 맺은 아름다운 교유의 정은 다산이 해배될 무렵 제자들과 맺은 〈다신계〉나 다산이 황상에게 써준 증언첩(贈言帖), 그리고 유산 정학연(丁學淵, 1783~1859)의 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아울러 1845년에서 맺은 정황계(丁黃契)는 두 집안이 대대로 신의를 지키고자 했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스승을 향한 그의 신망이 어떠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다산이 다산초당에서 강학과 집필에 매진하던 시기, 황상은 가족을 데리고 강진 소재 백적산 아래에 살면서 세상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직 겨울과 밤, 비가 내리는 날, 한가한 여가를 틈타 종신토록 글을 읽고 시를 지으며 소일했다. 그가 머문 오두막이 바로 '일속산방(一粟山房)'이다.

일속산방은 그가 살던 집의 당호(堂號)로, 정학연이 지어 준 것이다. 무엇보다 황상의 굳은 의지나 열망, 이상이 고스란히 담긴 글은 〈치원유고(巵園遺稿)〉에 가득하다. 특히 그는 초의와도 깊은 정을 나눴는데 이때가 1809년 다산초당에서다.

이후 이들의 교유는 무슨 연유에선지 이어지지 못하다가 40년이 지난 1849년에야 재개된다. 바로 황상이 마현의 다산의 생가를 방문한 후, 강진으로 돌아와 초의를 찾아간 것. 〈치원유고(巵園遺稿)〉 속에 수록된 '초의행(草衣行)'과 '걸명시(乞茗詩)'가 바로 이 무렵에 지은 작품들이다. 초의 또한 이 시에 화운(和韻)한 '일속암가(一粟菴歌)'를 남겼고 '차운기답일속암주인(次韻寄畣一粟菴主人)'이라는 시를 지어 서로의 우정을 이어갔다.

다산 유배 시절 첫 제자 '황상'
중인 신분이었지만 학문 매진
다산 자제 · 초의와도 꾸준한 교류

강진에 '일속산방' 오두막 짓고
부귀 멀리하며 유유자적 살아가
이 모습을 정학연이 글로 담아

이번에 소개할 '일속산방기(一粟山房記)'는 황상의 집 당호(堂號)를 일속산방이라 짓게 된 연유를 상세히 기록한 유산 정학연의 글이다. 물론 유산의 '일속산방기(一粟山房記)'는 대흥사 승려들이나 다산의 제자들 사이에서 언급된 글이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초의가 소장했던 '일속산방기(一粟山房記)'는 분명 누군가가 필사한 자료이다. 그런데 그 글씨체가 추사체를 닮았다. 물론 황상과 추사는 서로 알고지낸 사이로, 일찍이 추사는 황상의 시집에 '치원시고후서(巵園詩藁後序)'를 쓰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추사의 글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추후 서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듯하다.

아무튼 유산의 '일속산방기(一粟山房記)'는 당시 대흥사나 다산의 제자들, 그리고 초의와 교유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필사해 두고 읽었던 글 중에 하나라 여겨진다. '일속산방기(一粟山房記)'의 크기는 23.9×25.8cm로, 다른 자료와 합첩(合帖)한 서첩(書帖) 속에 들어 있던 자료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묘년(1856)에 나의 형제 중에 상을 당한 슬픔이 있어서 문을 닫고 아파했습니다. 작은 길에는 푸른 이끼가 가득하고 이리저리 떨어진 낙엽이 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마음이 처연하고 숙연하여 모든 감정이 다 일어납니다. 홀연히 치원 황상이 문을 열고 들어오니, 마치 빈 골짜기에 들을만한 소리가 있는 듯할 뿐 아니라 아픔도 갑자기 줄어들어 기쁨을 느낄 만합니다. 황상은 우뚝하게 뇌락한 모습을 저버리고, 출세한 벼슬아치와 귀인들과 노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다만 나만을 서로 좋아합니다. 매번 한번 생각이 미치면 문득 까끄라기가 핀 짚신과 해진 축(筑:악기 이름)을 구부정히 지고서 천리를 걸어서 나의 한가하고 거칠고 엄숙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도 오히려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칠십이 된 노인이랴. 그 뜻이 족히 오랜 옛날에나 있을 뿐입니다.

황상은 집안 살림살이를 능숙하게 다스리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다만 홀로 시를 짓는 것을 좋아하여 세상에서 글 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활(迂濶)하다고 비웃고 아끼지 않았다. 거처를 백적산 중에 집을 짓고 즐기고 휴식하며, 시를 쓰는 장소로 삼아 대개 노닐며 소요한다. 나에게 그 집의 이름을 부탁하고 기(記)를 써달라고 하였다. 나는 곧 그곳을 일속산방(一粟山房)이라 하였다. 아! 세상이 커서 몇 만 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물과 초목과 금수가 살며, 또 몇 천만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것을 대괴(大塊)라 한다.

그러나 창해(滄海)로부터 보면 작은 한 줌의 흙이니 하물며 다른 것이랴. 황상이 사는 산은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으니 낱알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큰 땅(大塊)에는 사람이 초목, 짐승보다 커서 그 통달하여 풍운과 더불어 넉넉하니 공경으로 하여금 당세에 그 위엄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우뚝이 크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달인으로부터 본다면 모두, 마치 일 순간의 틈에 있는 죽정이 겨, 흙에 떨어진 삼 씨, 몽환, 허공의 구름 같은 것이니 더 말해 무엇 하랴.

늙은 황상은 나무와 돌과 더불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강가의 적막한 땅에서 귀뚜라미와 지렁이의 울음소리를 이웃으로 삼았으니 또한 낱알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비록 그러나 우산(遇山)에게 말하길 '천 길을 높이 나는 봉황, 나뭇가지에 뱁새가 깃들어 각자 그 알맞은 곳에 나가서 하여금 사는 곳을 바꾸어 그 의지할 곳을 잃었다'고 하였으니 즉 맞지 않는다.

지금 황상은 낱알처럼 작은 몸으로 낱알 같은 작은 산에 살며, 앞을 쓸고 차를 다리고 시를 짓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시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글 또한 더욱 더 묘해져서 조용하고 여유로우며 담담하게 맑다. 지금 세상을 멀리하고 작게 여기며 부귀를 뜬구름처럼 여긴다. 우산(遇山)이 말한 봉황이 뱁새보다 즐겁고 한 가지가 천 길보다 낮게 여긴다. 나는 천 길과 한 가지와 대괴와 낱알 하나를 알지 못한다. 애오라지 일순간에 알맞은 것을 취할 뿐이다. 대저 누가 알 수 있을까. 1856년 12월 유산이 쓰다.

乙卯余有鴒原之戚 閉戶吟病 蒼苔滿徑 荒葉凝階 秋懷凄然 蕭然百感振觸 忽見巵園 黃子披戶而入 不啻若空谷足音 病爲之頓減 喜可知也 黃子負嶔崎歷落之骨 恥與達官貴人遊 而獨於余相善 每一意到 輒以芒屨枯笻侚僂然徒步千里 而訪余于荒寒瑟居之中 少壯者 猶難之 而況七十老叟乎 其意足千古也已 黃子不善治家人產 且獨喜詩者 文詞人皆笑其迂 而不郵 作一屋於所居白磧山中 以爲宴息吟哦之所 蓋徜徉自放焉 屬余名其屋 且爲記 余乃署之曰 一粟山房 噫 天下之大 不知爲幾萬里 有人物草木禽獸 又不知爲幾千萬 是謂之大塊 然自滄海而觀之 渺然一拳土 何況乎 黃子所居之山 僻在海隅 則不過一粟而已 所謂大塊之中 人惟大於草木禽獸者 以其達而與風雲富 而使公卿當世畏其威懷其惠 非不巍然大也 自達人觀之 儘如秕糠土苴夢幻雲空 於一瞬俄頃之間 何況乎 黃子之老 白首無所遇 與木石爲隣 蚓叫蚌唫於海堧寂莫之鄕 則亦不過一粟而已 雖然 施愚山曰 鳳凰之翔千仞 鷦鷯之棲一枝 各適其適 使易地失所憑則皆不適也 今黃子以一粟之身 處一粟之山 掃葉烹茗 吟諷不輟 詩益工 文益妙 蕭閑而澹 遠藐今鄕雲富貴 愚山所謂鳳凰之樂於鷦鷯 一枝之卑於千仞 余未可知 而千仞與 一枝與 大塊與 一粟與 聊以取適於一瞬而已 夫孰得以知之 乙卯 嘉平月 酉山 記

유산이 "을묘년(1856)에 나의 형제 중에 상을 당한 슬픔"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1856년 세상을 떠난 정학유(1786~1855)을 두고 말한 것이다. 더구나 유산과 아우 정학유는 형제의 정이 깊었던 사이였으니 그 슬픔이 오죽했으랴. 이처럼 가슴이 아려오는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황상이었던 셈이다. 더구나 황상은 일민(逸民)이 분명했다. 그러기에 "출세한 벼슬아치와 귀인들과 노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다만 나만을 서로 좋아했"다.

다만 "홀로 시를 짓는 것을 좋아하여 세상에서 글 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활(迂濶)하다고 비웃고 아끼지 않았다. 거처를 백적산 중에 집을 짓고 즐기고 휴식하며, 시를 쓰는 장소로 삼아 대개 노닐며 소요했던" 것이다.

그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유산이기에 자신의 집 당호를 부탁한 것은 당연하다. 결국 일속산방이란 바로 황상의 인품과 소요의 미덕을 실현했던 은신처였다. 그렇다면 일속산방이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유산은 일속산방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바로 황상은 "바다와 강가의 적막한 땅에서 귀뚜라미와 지렁이의 울음소리를 이웃으로 삼았으니 또한 낱알 하나에 불과할 뿐이"며, 황상은 "낱알처럼 작은 몸으로 낱알 같은 작은 산에 살며, 앞을 쓸고 차를 다리고 시를 짓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시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글 또한 더욱 더 묘해져서 조용하고 여유로우며 담담하게 맑다. 지금 세상을 멀리하고 작게 여기며 부귀를 뜬구름처럼 여기는" 일상을 살았기에 일속산방이라 명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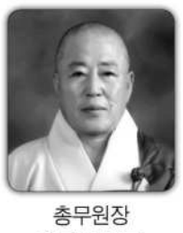
시를 지으며 한가한 삶을 지향했던 황상의 시는 여유롭고 담담했으며 맑았다. 그의 삶과 시처럼 담박했으리라. 그러므로 추사는 '치원시고후서(巵園詩藁後序)'에서 "지금 세상에는 이런 작품이 없다(余曰今世無此作矣)"고 극찬했다. 당시 황상의 시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두보(杜甫)와도 같고 한유(韓愈)와도 같으며 소식(蘇軾) · 육유(陸游)와도 같다는 것을 장황히 늘어놓아 찬양하였으니 황상의 시에는 더욱 더할 수 없이 했다. 나는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금 상하를 통했던 황상의 시품(詩品)은 분명 다산의 영향과 황상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창 종 공 고

사단법인 대한불교대경조계종

(문화관광부허가 제2017-10호 법인등록171321-0004642)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사)대한불교대경조계종은 불조인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의지하고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자타 각행원만한 교리를 봉체하고 대승불교 사상과 중고관을 용으로 진언밀교 종풍을 선양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과 호국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로 광도중생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제방의 큰 스님들과 법사님 및 포교사를 모십니다.

승정원장	일월	법계고시원장	정란
감찰원장	혜성	교육원장	해룡
호법원장	성담	연수원장	도국
포교원장	정허	비구니원장	용정

▪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장례문화 및 납골당 사업·승려 등 수행자 복지사업·교정사업·다문화 전통문화사업

《 입종안내 》

▪ 입종 구비서류
승려 및 법사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안팎 사진 1매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1부.

▸ 입종 종도는 승려증(법사증),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 한해서 위촉장 및 추대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총본사 / 총무원 : 천룡사 - 경상북도 안동시 향교1길 27-15호 (송천동) / ▪ 총무원 전화 054)823-6777 직통 010-4053-2722

본 종단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종무행정을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1994년 도난된 운남사의 불화들. 사진 왼쪽부터 운남사 아미타불회도(연대 미상), 운남사 지장시왕도(1741년 제작), 운남사 신중도(1823년 제작)

비단 위에 그려진 아름다운 불화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⑳ 의성 운남사의 도난 성보

경상북도 의성은 충청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는 조령과 축령의 이남 지방에 위치한다. 북쪽은 안동과 접하며 남쪽은 군위, 대구로 이어진다. 동서로도 청송, 예천, 문경, 상주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로, 인근 지역의 사찰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통일신라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불교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는 고운사(孤雲寺), 대곡사(大谷寺), 수정사(水淨寺), 운남사(雲嵐寺), 정수사(淨水寺), 지장사(地藏寺)가 있다.

이 가운데 운남사는 의성군 안평면 천등산(天燈山)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말사이다. 사찰의 명칭은 구름 운(雲)과 바람 람(嵐)을 사용하여 구름과 바람이 만든 절이란 의미를 갖고, 산신 기도처로 유명한 편이다. 운남사는 신라 의상대상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자세한 사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사찰 내에 있는 삼층석탑은 원래 보광전 뒤편 서남쪽 산기슭에 있던 것을 현 위치로 이운한 것으로, 최소한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에는 이 지역에 사찰이 운영되었음을 알려준다.

현재 운남사는 작은 규모의 사찰이고 사적기 정도만 남아있어 구체적인 연혁을 밝힐 수 없지만, 현존하는 유물을 통하여 대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사찰 내에는 1741년에 조성된 지장보살도(도난), 1774년에 주성된 금고(일명 반자), 1827년에 그려진 산신도 등이 남아있어 조선 후기에도 지속적으로 법등이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전각은 근래에 건립된 보광전(1999년 건립), 삼성각, 산왕각, 요사 등이 있고, 보광전 내에 고려 말에 조성되어 1602년과 1704년에 중수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 유물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428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20세기 전반에 운남사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재산대장과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귀중품 목록을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다.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재산목록(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의하면 운남사에 봉안된 성보문화재가 20건 46점이고, 이 중에 불상 3점, 불화 4점이 있었다. 또한 1932년 12월 23일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관보 1789호에도 동일하게 불상 3점, 불화 4점이 봉안되어 있었다.

따라서 운남사에는 20세기 전반에 소조관음삼존불,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신장도, 산신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전각만이 운영되던 작은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천등산 운암사(雲岩寺)에서 고려후기의 불상과 조선후기에 제작된 석조보살상을 이운해 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운남사에서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으로 도난 신고를 한 불화는 1994년 3월 27일에 잃어버린 연대미상의 아미타불회도와 지장보살도(1741년 작), 그리고 1823년도에 그려진 신중도이다(〈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2016)). 현재 사찰에 남아있는 불화는 1827년에 금어(金魚) 법준(法峻)이 그린 산신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관음보살삼존상, 관음도, 신장도가 유출되거나 전쟁 중에 망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유물과 망실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이들 성보물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7년으로, 대구대학교 박물관에서 간행한 〈의성군 문화유산 지표조사 보고〉에 의하면 당시 불화는 후불도, 지장시왕도(乾隆七年辛酉七月日畵成, 1741년, 174㎝×167㎝), 신중도(道光七年丁亥三月日, 1823년, 133㎝×119㎝)에 관한 간략한 내용과 사진(지장시왕도)이 게재되어 있다.

운남사 아미타불회도는 비단 바탕 위에 채색되었다. 조성연대는 정확하지 않고 조선후기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미타불회도 화면의 크기는 세로 167㎝, 가로 261㎝이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을 크게 그려넣은 뒤 사천왕과 여러 권속들을 화면 가득 배치하였다. 중앙의 아미타불은 원형의 광배를 두르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정면을 향하고 있다. 삼존의 두광은 녹색으로 채색했으며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의 신광은 백색으로 아미타불의 신광은 여러 색을 사용하여 위신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신라 의상대사 창건한 운남사
1994년 아미타회불도 등 도난
도난불화 3점 신고 규격 차이
신고 유물 정보 체계적 정비 필요

적색과 녹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하면서 중간색인 주황색과 백색을 부분 사용하고 있다. 아미타불회도 화면 곳곳에 보이는 금니가 화려함을 가중시키고 있어 극락에 왕생하기를 염원하는 불제자들의 한량없는 불심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미타불회도 화면은 여백 없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아미타삼존과 권속 간의 크기 차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 경상도 불화의 특징이 엿보인다.

아미타불이 입고 있는 가사의 끝자락에 그려넣은 동전문양이 운남사 지장시왕도에서 지장보살의 가사에서 보이는 문양과도 유사하다. 이는 양식적 요소로서의 모티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18세기 경상도 지역 불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운남사 지장시왕도는 1741년(乾隆7)에 조성되었는데 화면 크기는 세로 120㎝, 가로 120㎝로 비단바탕 위에 그려졌다. 중앙에 위치한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시왕과 권속들이 원을 그리듯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는 구도이다. 비구형의 머리를 하고 있는 지장보살은 녹색의 원형두광과 신광을 두르고 있는데, 서기를 나타내듯 광배 주위로 채운이 가득 표현되었다.

통견의 붉은색 가사를 두르고 반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지장보살의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려 있으며, 왼손에는 투명구슬을 쥐고 있는 형상이다. 붉은색 가사바탕에는 녹색으로 격자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가사 끝자락에는 동전 문양이 채색되어 있다. 지장보살의 상징 지물인 육환장을 대좌 바로 옆에서 시립하고 있는 협시 도명존자가 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화면의 하단부분에는 박락이 있으나 윗부분과 좌우로 주황색과 녹색 등의 구름으로 화면을 채우고 있다. 전체적으로 짙고 어두운 색감을 보여준 반면 지장보살의 가슴에 표현된 화려한 영락에서 18세기 불화의 특징인 장식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1987년 간행된 〈의성군 문화유산 지표조사 보고〉와 2016년 발간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서 운남사 지장시왕도 화면의 크기가 다른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조선총독부 관보본에서 조사된 크기를 고려한다면 〈의성군 문화유산 지표조사 보고〉에 게재된 지장보살도 크기에 무게가 실린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을 그린 신중도는 불교의 수용과 함께 전래된 신중신앙의 성행으로 꾸준히 조성되어 왔다. 운남사 신중도는 세로 132㎝, 가로 120㎝의 크기로 1823년에 조성되었다. 조성 당시 가람의 규모와 법당의 크기를 고려하여 제작되었을 운남사 신중도는 제석천과 위태천을 화면 좌우로 크게 배치하고 일천자(日天子)와 월천자(月天子), 그리고 무장신을 사이사이에 그려넣은 단순한 구도를 보여준다. 모든 신중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석천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가슴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석천은 전신이 보이고 두광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위태천은 상반신만 보이고 있다. 위태천은 새의 깃털로 장식된 투구를 쓰고 있으나 그림 표면의 오염과 변색으로 인해 용모의 분간이 어렵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보이는 하늘을 청색으로 채색하고 부분적으로 금니를 사용했다.

천부(天部)의 여러 선신(善神)과 주악천인을 함께 그려넣은 것이 일반적인 신중도라고 할 수 있으나 무장신 표현과 선신의 묘사에서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 것처럼 배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얼굴 표정이나 자세, 지물, 의습의 윤곽 등의 표현에서는 활달한 필치가 살짝 보인다. 운남사 신중도는 도상과 화풍에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보고자 했던 19세기 경상도 지역의 요소가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운남사의 불화들 각각의 조성 시기는 다르지만 고급재료에 속하는 비단재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아름다운 불화를 얻고자 하는 발원자들의 정성과 불심을 엿볼 수 있다.

1994년 3월에 도난당한 의성 운남사의 불화 3점은 기존 문화재청과 종단에 신고가 된 규격이 일제강점기 귀중품 대장이나 1987년에 대학박물관에서 간행한 조사보고서의 규격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학박물관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도난 신고된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정보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본사, 수행 · 포교 종가 역할 필요

〈宗家〉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⑳ 교구본사의 포교시스템



사진은 예비포교사 집체교육. 본사가 포교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교구 포교인력 활용이 필수다.

한국불교에는 종단별로 본사(本寺)들이 있다. 본사는 포교와 행정의 편리를 위하여 획정한 구역인 교구(敎區)를 관할하기 때문에 종단에 따라서는 교구청이라고도 부른다. 그만큼 말사(末寺)라 불리는 본사 산하의 사찰보다는 규모가 크다. 본사는 절 집안에서 종종 큰절로 불린다. 절의 규모가 커서 그렇게도 부르지만 세속에서 맏형 또는 그 자손의 집을 큰집으로 이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그 큰집 중에서도 보다 큰집이 종갓집이다. 엄밀히 보면, 절 집안에서 본사는 큰집이기 전에 종가다.

종가(宗家)는 한 문중에서 맏이가 이어가는 큰집으로 집안의 중심이 되어 가풍을 계승하고 대소사를 주관한다. 조계종의 교구에 있어서는 큰절로 불리는 본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조계종의 지방조직은 1개의 본사와 이에 소속된 수십에서 수백 개의 말사로 구성된 24개의 지역교구로 획정되어 있다. 이에 각 본사는 말사들의 중심이 되는 종가 사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구를 아우르는 중추 사찰인 종가보다는 개별 대찰(大刹)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한 것 같다. 본사가 교구의 사찰들을 아우르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크기에 바쁜 것처럼 보인다. 본래 본사는 말사들의 수행과 전법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본사가 교구의 종가가 된다는 것은 종무행정뿐만 아니라 수행과 전법을 위한 교구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본사는 말사주지에 대한 품신, 말사로부터의 분담금 징수, 본말사주지회의 운영, 말사에 대한 감사 등 총무원과 말사 사이에서 행정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교구 종가의 본분인 수행과 전법은 차치하고 방편인 종무행정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조직은 수행과 포교가 최상의 목표다. 수행은 깨달음을 향하는 승가공동체의 종교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포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아 중생고(衆生苦)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사는 말사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추여야 한다.

우선, 본사가 교구의 수행 중심지가 되는 것부터 고민해보자. 본사가 교구에서 수행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총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조계종의 종헌과 종법에 따르면, 총림(叢林)은 선(禪) · 교(敎) · 율(律)을 겸비한 방장의 지도하에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종합수행도량으로 선원, 강원(승가대학), 율원 그리고 염불원을 갖추어야 한다. 조계종은 영축총림(통도사), 해인총림(해인사), 조계총림(송광사), 덕숭총림(수덕사), 고불총림(백양사), 팔공총림(동화사), 금정총림(범어사), 쌍계총림(쌍계사) 등 8곳의 총림을 지정하고 있으며, 총림의 운영 주체는 교구 내 사찰의 연합체가 아닌 단위사찰로서 본사이다. 이는 본사가 총림 진흥의 주체임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본사가 교구의 수행 중심지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사는 교구의 불교진흥을 책임지기에 말사들의 행정센터에서 나아가 승가의 수행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사의 총림들이 종합수행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는 총림의 지정과 운영이 다분히 형식적 · 정치적인데서 야기된다. 조계종의 〈총림법〉은 총림을 구성하는 선원, 강원, 율원 그리고 염불원 중 2개 이상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총무원장이 총림지정 해제를 중앙종회에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총림 중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을 전부 갖추지 못한 본사도 여러 곳이다. 이와 같이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본사가 총림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은 총림의 지정과 운영이 형식적 ·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총림의 지정과 운영의 부실을 막는 데는 종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강화 방안'과 종법을 현실에 맞추어 수정하는 '완화 방안'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강화 방안은 '본사 내'에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등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림 지정을 종헌 · 종법대로 해제하는 방안이다. 반면 완화 방안은 총림의 지역을 '본사 내'가 아닌 '교구 내'로 확대하여 교구에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을 분산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완화 방안의 경우에는 총림의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에 대한 개별 지정기준은 현행보다 엄격히 하고, 본사가 교구에 분산된 각 수행처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총괄하여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총림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교구의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행의 주체가 되는 수좌에 대한 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간화선은 조계종의 근본 수행법이지만 제방에서 정진하는 상당수의 수좌는 노후는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건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물론 혹자는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수좌가 세속적 근심을 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좌들 역시 인간적 삶 속에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에 수좌의 열악한 생활여건은 그들을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종단중앙이나 말사가 단독으로 수좌의 생활과 복지를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종단중앙은 예산의 절대액을 각 교구에서 갹출(醵出)하는 분담금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개별 말사의 대부분은 수좌의 복지까지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사가 교구 단위에서 수좌의 생활과 복지에 대한 책임 주체가 되고, 종단중앙과 말사는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불교조직은 수행 · 포교가 목표
교구본사는 총림역할 수행 필요
말사 개별 포교 한계 보완해야

지금부터는 본사가 교구의 포교 구심점이 되는 방안을 이야기하도록 하자. 조계종의 포교는 종단이나 교구가 아닌 주로 말사를 단위로 이루어진다. 조직체계상으로는, 조계종단의 포교조직은 최상위에 별원인 포교원을 정점으로, 중간에 광역조직인 교구본사의 포교국, 그리고 하부에 단위사찰인 말사들이 수직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상으로는, 포교의 일선에 존재하는 말사가 두 개의 상위 포교기관과의 공유나 연계 없이 독자적, 개별적으로 포교를 한다. 이는 포교에 대한 종단적, 교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포교 네트워크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포교원은 종단포교의 정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성이 부족한 관계로 포교의 구심점이 되기는 힘들며, 일선 말사들의 중심지인 교구본사가 그 구심점으로 더욱 적합하다. 그런데 본사가 교구포교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체제의 정비'와 '인력의 활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체제의 정비'는 본사를 연결고리로 중앙과 말사가 연계되는 구조를 지칭한다. 하지만 그 구조는 본사가 중앙의 포교종책과 포교행정을 말사에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구 차원의 자체 포교사업을 기획하여 중앙과 말사를 연결하고 시행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본사와 말사 간 연계 포교사업이 신도등록업무 정도인 현재 상황에서 본사가 교구의 통괄자로서 지역포교의 의제와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포교를 위한 본사 주관의 교구협의체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 본사가 주축이 되어 교구지역의 포교현안들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결정한 의제와 방안을 본사와 말사가 연계하여 실행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의 형성에 있어서는 직할사찰과 사설사암에 대한 종단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총무원의 직접 관할에 속하는 직할사찰은 본사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직할사찰을 지정하는 것은 종단 차원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창건한 사설사암은 본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종헌 · 종법의 제 ·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의 활용'은 본사 7직인 포교국장의 권한 강화와 유휴 포교사의 교구단위 활용을 의미한다. 포교국장은 출가승려 포교인력에 해당하고, 유휴 포교사는 재가신도 포교인력에 해당한다. 교구포교를 책임지는 출가승려의 핵심인력은 본사의 포교국장이다. 승가는 총무, 재무, 교무를 전통적으로 3직이라고 칭하며 존중해왔는데, 이는 종교적 직능보다는 행정적 직능에 보다 초점을 둔 분류로 볼 수 있다.

포교는 종교조직의 존속과 성장에 근간이 된다. 이에 조계종은 1977년 총무원의 부서(部署)급으로 개원된 포교원을 1994년 개혁불사 시에 별원으로 독립시켜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3원체제를 수립하였다. 조계종 중앙종직이 행정적 직능에서 종교적 직능으로 개편된 것이다. 이에 교구본사도 총무, 교무, 포교의 직능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포교국장을 3직으로 대우하는 것이 조직적 계통상, 그리고 종교적 직능상 합당할 수 있다. 더하여 현재는 본사 포교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정형화 · 공동화되어 있지 않아서 각 교구본사의 실정에 따라 포교국의 업무가 사회국 · 교무국과 중첩되거나 관할이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본사 포교국의 업무 관할권이 종단적 기준에 의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다.

포교사 자격고시를 통과한 (재가)포교사는 포교현장의 주요 동력이다. 포교현장의 승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포교사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지만 대부분의 포교사들은 개별사찰이나 특정불교대학에 소속되어 해당 단위의 지엽적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본사가 교구의 포교 중심지로서 해당 구역의 포교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본사가 교구의 포교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교구 포교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포교사들의 신행활동은 기존과 같이 자신의 재적(在籍)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되, 그들의 포교활동은 본사를 중심으로 교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활동하지 않는 유휴 포교사들이 많은 바, 수말사들이 유급 포교사를 채용하고 본사가 그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방안도 교구 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사가 포교사를 교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사찰별 포교 활동의 편차에 따른 포교의 교구 공동화현상(空洞化現象)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백세시대** 박 공희 올림



어리석음 녹여 홀로 빛나는 '一心'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㊳ 〈원각경(圓覺經)〉 1

가을이다. 나는 지난여름 엄청난 폭염에 시달린 탓인지 가을이 와도 심드렁하여 아름다운 산과 고요한 바다도 그립지 않았다. 그러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에 강의를 위해 머물고 있는 계룡산 계곡과 문필봉에 푸른 잎이 사라지고 우아한 노란 빛으로 기가 막히게 물들어 가는 것이 보였다. 아, 산도 정진하는구나 생각하니 난생처음 산이 멋져 보였다.

저 산이 날마다 자라고 물들어 가는 일에 일념을 다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더위나 추위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말과 뜻과 같이 정진하면 수행의 힘이 그를 얼마나 격조 있는 인물로 만들어 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월이 바람처럼 흘러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얼른 공부 길을 일러달라던 보살님처럼 금생에 인간의 몸 받아 깊은 인연으로 부처님을 만나 그 분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고결하다. 그 고결한 생각하는 이들에게 나는 〈원각경〉을 드리고 싶다.

〈원각경〉의 본래 이름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으로 한글대장경 163책 〈십지경〉 p.562에 수록돼있다.

제목의 의미는 '크고 방정하고 광대한 내용을 가진 원각을 설명함이 모든 수다라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된다' 다. 원각(圓覺)은 바로 깨달음의 완성이다.

힘들게 살아가는 중생을 행복한 세계로 초대하려는 우리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다. 부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바로 이 경이다.

고려 때 지눌 선사가 이 경에 반하여 〈요의경(了義經)〉이란 명칭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으며,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이 탄생한 후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으로 발간되었다. 당시 위대한 선승이었던 함허 득통선사께서는 〈원각경〉을 〈화엄경〉의 축소판이니 공부인은 누구나 읽고 수행하라고 불교전문강원 교재로 채택하게 되어 지금도 승가대학의 3학년 교재로 초심수행자들에게 탁월한 깨침의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모여 수행의 모든 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논의한 내용이다. 누구나 깨달음에 관한 수행계획서를 세울 수 있는 안목을 지닐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놓은 책이다. 〈원각경(圓覺經)〉은 〈유마경(維摩經)〉, 〈능엄경(楞嚴經)〉과 더불어 선(禪)수행의 3대 경전으로 한국불교의 선가(禪家)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경전을 읽고 배우는 데 길을 확실하게 열어 준 중국의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과 조선의 함허 득통(涵虛得通, 1376-1433)은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그들이 바라본 부처님의 세계는 위대하고 찬란했고 그 길을 찾아가려는 이들에게 알려줄 깨침의 세계에 관한 방법도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았다. 규봉과 종밀은 〈원각경〉을 통해서 당시 민중들이 당면한 '앎에 대한 인지작용(因地法行)' 에 관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문제들과 부딪치며 그 해답을 찾아 소와 초를 저술했다. 재가자인 배휴(裵休, 791-864)는 종밀의 〈대방광원각경소〉의 서문을 썼는데 경을 읽기 전에 보면 정진하고 싶은 힘이 마구 솟아나는 웅변 같은 명문장이다.

"대저 혈기 있는 이들은 반드시 알려고 하는 인지작용(知)이 있다. 무릇 인지작용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바탕이 있으니 참되고 깨끗하고 신령하며 묘하고, 텅 비었으면서도 신령하고, 우뚝하여 홀로 존재한다. 이것은 중생의 본래 근원이므로 '마음의 땅(心地)' 이라고 하고, 이것은 여러 부처님께서 깨달아 얻은 바이므로 '보리(菩提)' 라고 하며, 서로 용납하면서도 한데 어우러져 있으므로 '법계(法界)' 라고도 하고, 적정상락이라 '열반' 이라 부른다. 더럽지도 않으니 '청정' 하다고 하고, 허망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니 '진여' 라고도 하며, 허물과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불성' 이라고도 하고 선을 하도록 부추겨주고 악을 막기 때문에 '총지(總持)' 라고도 하고, 가려서 덮어주고 품고 있어서 '여래장' 이라고도 하고, 만덕을 하나로 하여 완전히 갖추고 모든 어리석음을 녹여 없애 홀로 비추므로 원각이라 말하지만 실은 그 모두가 '일심(一心)' 이다. 일심을 등지면 범부요. 일심을 따르면 성인이다. (중략) 온종일 원각을 구하건만 원각을 전혀 모르는 자는 범부요, 원각을 깨치려 하나 원각을 완전하게는 깨치지 못한 자는 보살이며. 원각을 온전하게 갖추어 원각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가 여래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꿈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㊲ 심외무법의 경지

과연 꿈이란 무엇인가요?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등은 현재의식이 만들어낸 세계라 한다면, 꿈은 현재의식이 만든 분별심이 사라지고 잠재의식이 만든 세계라 하겠습니다.

심외무법(心外無法)의 말씀처럼 현재의식이 만든 현실세계는 모두 자신의 마음이 만든 세계요, 따라서 이 전개된 삼라만상이란 모두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며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모든 현상은 모두 자신의 잠재의식의 표현이며 자신의 분신인 것입니다. 꿈속에서 개를 보았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의 진심(嗔心)을 본 것이요, 꿈속에서 돼지를 보았다면 자신의 탐심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꿈이 길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돼지꿈을 꾸고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돼지를 꿈에 본 것은 자신의 탐심을 발견하고 해탈한 것으로, 그 결과 거액의 복권을 타서 횡재한다는 길몽이 되는 것입니다.

꿈속은 현재의식이 쉬는 상태입니다. 현재의식이 일으키는 각종 분별심이 사라지고 잠재의식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속마음을 본다는 뜻입니다. 겉마음을 보는 지혜가 얄팍한 지혜라면, 속마음까지 보는 지혜는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속마음(제 7식)을 볼 수 있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의식의 뿌리인 전생을 보는 것입니다. 꿈에 분별심이 쉬면서 전생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생의 모습을 보는 지혜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지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금강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분별심을 부처님께 바쳐 소멸하게 되므로, 꿈을 통하지 않고도 자신의 속마음을 보며, 경우에 따라 속마음의 뿌리, 즉 전생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고 미래의 운명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영웅 넬슨 제독보다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훨씬 더 존경했다는 일본의 도고헤이하지로 제독은 일본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러일전쟁(1903~1905)때 러시아 발틱함대를 완전히 전멸시킨 일본의 10대 명장 중 하나입니다.

일본 해군은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격파하게 하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해군 제독이었던 도고 장군이 점심을 먹고 잠깐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항로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대한해협 쪽으로 지나가는 게 보여서 '아, 조금 있으면 러시아 배가 이 해협 쪽으로 오겠구나. 이곳은 물살이 센데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급습하면 러시아 함대를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도고 제독은 꿈에서 얻은 힌트대로 물살이 센 곳에 군사를 매복하였다가 잘못 진입한 러시아 함대를 전멸시키며 드디어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생은 도고 제독이 비몽사몽 조는 순간, 분별심이 사라진 그 순간에 얻어진 지혜로 승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러시아와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라는 부정적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분별심이 사라지며 나타난 지혜광명이 승전보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모르겠다."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친 결과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보리자성(菩提自性) '이 뭣고'

시공(時空)을 벗어난 시심마(是甚麽) 시(是) 자리는 면남간북두(面南看北斗)라, 동서남북이 탁 트인 십방(十方)이 공(空)인 시무애(時无涯)자리이며, 개화천지미분전(開花天地未分前) 화중생연(火中生蓮)이라, 우주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 처무애(處无涯)인 원각(圓覺)의 자리이다.

보리자성(菩提自性)인 시는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고 참 생명이며, 항상 지혜광명(智慧光明)이 밝게 비추고 있으며, 자타의 간격이 없는 시공(時空)을 초월한 무처무시(無處無時)한 절대(絶對)의 자리이다. 깨달으면 본래부터 갖춰진 그 자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범우불료자성(凡愚不了自性) 불식신중정토(不植身中淨土) 원동원서(願東願西) 오인재처일반(悟人在處一般) 소이불언(所以佛言) 수소주처(隨所住處) 항안락(恒安樂)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범부는 무식해서 자기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몸속에 있는 정토를 모르고 동서로 해매고 다니며 찾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으나 그곳이 정토(淨土)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머무는 곳을 따라 항상 안락하다"라는 말이다. 또한 생처방교숙(生處放敎熟) 숙처방교생(熟處放敎生)이라고 했다.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라는 의미이다. 세세생생 익혀서 숙달된 습관(탐진치)은 설게 하고, 반야지혜를 생활 속에서 살려 쓰는 '이 뭣고?' 수행을 익게 하라는 말이다.

중생들은 마음의 때를 씻어 자성청정한 본래자리를 밝혀 쓰려 하지 않고 겉 때를 벗기는데 하루하루를 헛되게 낭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분노 화 의심 신경질 후회 등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 집착해 따라가지 말고 즉각 이 화(禍)가 과연 어디서 왔는고? 하며 알아차리고 '이 뭣고' 를 관하면 그 즉시 '이 뭣고' 가 자기 용광로 속에 넣고 바로 녹여 주게 되어 있다. 다생겁래로 아뢰야식(장식)에 저장해 놓은 업식(業識)을 그대로 다시 재생해 표출되는 감정을 억제시키며 한 박자 쉬게 되어 점차적으로 위기의 상황서 벗어나게 되며 쫓기지 않고 자동적으로 인욕바라밀(忍辱波羅密)이 되어 평온을 유지 하게 된다. '이(是)' 는 언전대기(言前大機)인 반야지혜로써 일체만법을 들이고 내는 당처이며, 일체 제불(諸佛)의 불모(佛母)로서, '이 뭣고' 는 반야지혜를 살려 쓰는 대활구(大活口)인 것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뭣고' 하면 캄캄한 어둠을 뚫고 내면의 대광명(大光明)인 반야지혜에 바로 연결 시켜주는 긍정(肯定)과 확신(確信)의 코드(cord)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뭣고' 코드만 꽂으면 여의보주(如意寶珠)를 굴려 쓰게 되는 것이다. 지혜를 굴려야 반야이고 공덕이 따라야 바라밀이며, 절대궁극의 그 자리는 오직 모르고 또 모를 뿐이다. 그래서 '이 뭣고' 인 것이며, 생활 속에서 '이 뭣고' 를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누구나 굴려 써야 생사고해를 벗어날 수 있는 성불(成佛)을 이룰 수 있다. '이 뭣고' 가 익숙해지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면서 본래의 고요한 성품인 자신의 본바탕(本地)에서 온갖 지혜의 작용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다.

무진성해가 한 맛이니 완전히 통해버린 무애법계이지만, 그 한 맛이라는 화엄(華嚴), 법화(法華), 일승(一乘)에서도 벗어나야 중도(中道)인 선(禪)이며, '이뭣고' 인 것이며, 폭포수서 떨어지는 물길을 따라 생사고해의 바다로 떠내려가면서 하는 기도(祈禱)는 삼아승지겁을 지나 깨달을 수 있는 생사법(生死法)이지만, 간화선 '이 뭣고' 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근원을 향해 역류하여 정점(頂点)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사 없는 원각(圓覺)인 내 고향에 도달해 성불을 이루게 하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부처님의 위신력인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소리의 메아리에 집착하고, 평생을 흙덩이를 진주(珍珠)로 착각(錯覺)하고 살기 때문에, 속된 인연서 벗어나기 위해 '이 뭣고?' 로 회광반조 하라는 것이며, 온갖 망상을 쫓아 경계에 집착 말고, 생각의 뿌리인 마음을 '이 뭣고' 로 관(觀)하라는 말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 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금곡 스님, 10.27법난위 위원장 선출

10월 22일, "피해자 명예회복 최선"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사진〉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27법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0.27법난위원회는 10월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공석인 위원장에 금곡 스님을 선출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금곡 스님은 "10.27법난은 국가권력 남용으로 불교의 자존과 수행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 가슴 아픈 역사"라면서 "위원장으로서 명예회복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물론, 한국 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적인 미래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취임 의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세계유산 봉정사 가을음악회

안동 봉정사(주지 도륜)는 안동시 · 경북미래문화재단과 함께 10월 20일 봉정사 영산암 특설무대에서 '천등우화(天燈雨花) 봉정예가(鳳停藝歌)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은 "봉정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안동은 하회마을과 더불어 2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불교와 유교문화가 안동에서 꽃피고, 안동이 세계적인 문화의 고장임을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수행의 공간 봉정사가 문화콘텐츠 생산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주민과 함께하는 귀촌 한마당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마이산 탑사 탑밴드는 10월 19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마을에서 귀농귀촌 · 원주민간의 화합과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 및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문리 마을은 아름다운 소나무 숲의 능선이 있고, 아름다운 연꽃저수지가 있다. 귀촌귀농인들이 강줄기가 흐르는 이문마을에 정착한 것을 축하한다"며 "이곳에 살면서 이문리가 부자 마을로 거듭나길 바란다. 어르신들 잘 모시고 아름다운 이문리에서 잘 살라"고 덕담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하나 된 부산 태고종 포교와 문화 전할 터"

Interview

자관 스님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0년 이어진 분열 아픔 딛고
새로운 통합 종무원장 역할
대중 위한 新종무원사 시급

"앞으로 부산 태고종 종도가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원(願)이자 확신입니다. 연등행렬에서 붉은 전통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며 부처님오신날을 장엄하고 환희의 불심도시를 보여줄 것입니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으로 선출된 자관 스님의 밑그림이다. 스님은 10년 동안 분열돼 있던 부산교구를 뚝심으로 밀어붙여 하나로 통합하고, 지난 10월 15일 국제신문 소강당에서 열린 선거를 통해 신임 종무원장으로 당선됐다. 그동안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이하 태고종부산교구)은 부산교구종무원과 서부교구종무원으로 나눠져 운영됐다. 자관 스님이 무엇보다 '화합'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줘 의미가 깊습니다. 부산 태고종 종도 90% 이상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2개로 나눠 운영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 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며 종도들의 뜻을 모두 수렴하기 위해 종무원장 후보로 함께 나온 마나 스님을 행정 부원장으로, 지광 스님을 재정 부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그러면서 "화합은 태고종의 원동력이 되고 불도 부산의 또 다른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종무원장 자관 스님은 풀어나갈 선결과제로 종무원사 건립을 꼽았다. 지금 현재 인원을 수용하기도 벅찬 30평대 종무원사 공간이 부산 남산동에 위치한다.

"종무원사 건립은 무엇보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구심점이 될 뿐 아니라 종도 교육을 위해서 현재 100평 이상의 공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수행 그리고 포교방향을 함께 의논하는 중요 거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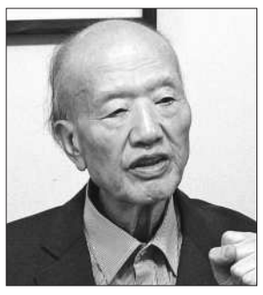
자관 스님은 이외의 실천과제로 △종도복지제도 확립 △수행풍토 조성 △자비실천 △불교중흥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스님은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종무원 혁신위를 구성하고 부산종무원 신도회를 창립해 재가자와 함께 성장 운영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아울러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역할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비구니회 창립을 도와 더 많은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관 스님은 마산 월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현재 동래경찰서 경승, 동래구불교연합회장, 화엄승가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상과 조계종포교원장상을 수상해 포교 활동을 인정받았으며, 지역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장상을 3회 수상한 바 있다.

"자주 역사 관점서 불교 조명"

〈고주몽성제에서…〉 펴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불교 전래는 1세기 가야 초전
멕시코 시원, 고주몽 父가 이뤄
"자주사학 알리는 데 노력할 것"

"이제는 마지막 연구서라고 생각하고 집필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주 역사와 바른 불교사를 세우기 위해 책을 만들었죠."

최근 〈고주몽성제에서 광개토대제까지-대제국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 왜 5국 역사기행〉을 펴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사진〉는 책을 집필한 계기를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고준환 교수의 〈고주몽성제에서…〉는 기존 삼국이 아닌 5국(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 왜)을 한국 고대사 범주로 놓고 그에 대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준환 교수는 우리 민족의 국제적 요소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김수로왕과 허황옥을 비롯해 인도 촐라왕국 석탈해왕과 남해왕 아효공주, 진 혜제와 백제 원희 등 5건의 국제결혼이 이뤄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민족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고주몽의 부친 고모수왕(북부여왕 또는 구려국왕)이 멕시코(맥이고)를 건국한 것을 처음 밝혔습니다. 고주몽의 서방진출도 조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민족이 고대부터 세계사회를 향한 국제적 요소와 기마민족 경향을 내포하고 있는 방증입니다."

한반도 불교 전래에 대해서도 기존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이 아닌 더 이른 시기 해상을 통해 전해졌다고 봤다.

"불교가 실제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1세기 가야초전으로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옥 왕후와 그 오빠 장유화상(허보옥 선사)이 가져온 파사석탑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국의 불교 전래도 6세기 중반 백제 노리사치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김수로왕의 딸 묘견공주와 7왕자가 도왜하면서 전해진 것입니다."

고준환 교수는 앞으로도 자주 사학을 통해 우리 민족 역사와 불교사를 바로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부터 여러 연구 저서를 통해 한국사를 바로 알리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대식민사관 등으로 한국 고대사는 바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인 고대사 가운데 고대 5국 역사를 자주적으로 밝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10.27법난, 공정한 평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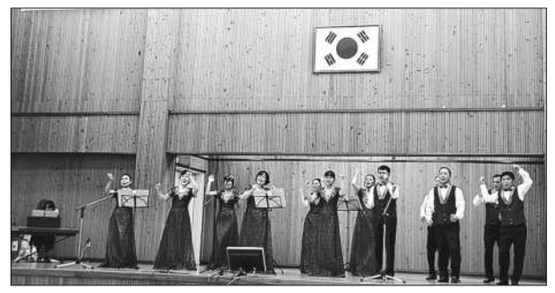
10.27법난 제38주년 기념법회 열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10.27법난 제3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결정을 내렸고, 5.18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10.27법난의 진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공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청소년가장에 희망 전해요"

원효종, 행복나눔 아름다운 동행 개최



원효종 울산 덕성사(주지 운오)는 10월 21일 '행복나눔 아름다운 동행' 12번째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 찻집을 시내 농소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 원효종 부산교구 종무원장 석불 스님, 진주 보현사사 보현 스님, 울산불교연합회, 덕성사 신도회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륜사 등 '모범 녹색사찰' 수상

불교환경연대, 10월 24일 협력사찰 시상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0월 24일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서 '1회용품 안 쓰는 녹색사찰 시상식'을 열고, 협약사찰들의 친환경 활동을 치하했다. 이날 고양 금륜사와 울산 백련사는 각각 문수상과 보현상을, 서울 열린선원과 봉은사는 감사장을 받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에 불참한 서울 조계사에도 감사장이 전해질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한국 불교학의 고전『아함의 중도체계』,
27년 만에『붓다의 철학』으로 새롭게 개정증보 발간!

서양철학 그 이상의 붓다 철학을 논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학자 이중표 교수의 역작!

"혹자는 불교가 어떻게 철학의
제(諸)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의문을 해소할 것이다."
_저자의 말

한국 불교학의 고전
『아함의 중도체계』
개정증보판



붓다의 철학
중도, 그 핵심과 사상체계

이중표 지음 | 464쪽 | 27,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원장의
영문판 출간에 이어 한국어 개정판 출간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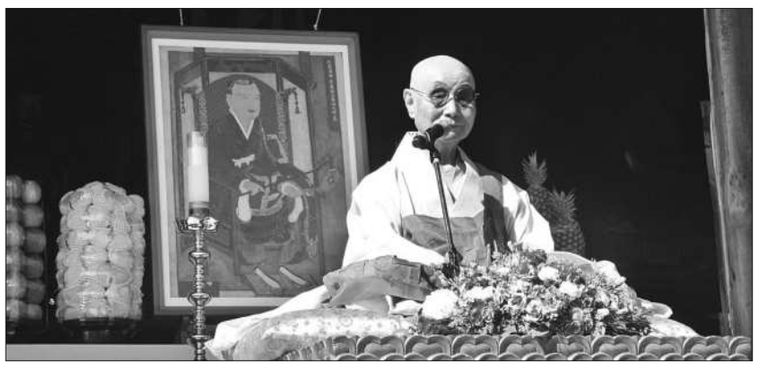
우 레와따, 크리스토퍼 거머 추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전한다."
_우 레와따 스님(세계적인 명상의 스승)

"붓다의 본래 가르침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바탕으로 수행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불교 경전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_크리스토퍼 거머(마음챙김 심리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전현수 지음 | 우 레와따 감수 | 320쪽 | 17,000원



범어사 개산 1340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에서 방장 지유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

범어사 개산대재 "금어, 화엄을 열다"

경전 독송 비롯해 괘불이운 · 대동한마당도

금정총림 범어사가 '금어, 화엄을 열다'를 주제로 개산조 의상대사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범어사(주지 경선)는 개산 1340주년을 맞아 개산대재 법요식 및 화합한마당을 10월 20일 경내 일대에서 봉행했다. 범어사는 법요식에 앞서 괘불이운을 거행했으며, 법요식은 △법어 △봉축사 △범어사 연혁 및 의상대사 행장소개 △봉행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방장 지유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주지 경선 스님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요식 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천수경 및 금강경 독송이 이어져 장관을 연출했으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 포교활동 지원금과 군포교를 위한 초코파이를 전달해 포교를 독려했다. 아울러 신행단체가 참여하는 대동한마당이 진행돼 즐거움을 더했다. 시민들을 위한 불화그리기, 전통놀이 체험, 단주 만들기 체험, 탁본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나눔도 진행했다.

방장 지유 스님은 "금정이 무엇이고 금어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물질의 금(金)이 아니며 불생불멸의 자리가 금정이며,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금어에 비유한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번뇌 망상 탁 털어버리면 맑은 마음의 빛으로 볼 것이다. 그것이 금정이고 금어"라고 법문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의 역사는 창건 1340주년이라는 의미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속의 찰나"라며 "사부대중은 화엄의 바다를 유영하는 금어의 꼬리 짓이 멈추지 않도록 정진과 수행으로 호법과 도량수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다하자"고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혜철국사 유지 받드는 도량으로"

영천 은해사, 창건 1209주년 개산대재 봉행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0월 20일 경내 템플스테이관 육화원 앞에서 창건 1209주년 개산대재와 도 · 시민이 함께하는 프라이드 경북음악회를 개최했다

개산대재는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 조사 스님의 육법공양 다례재에 이어 명종 5타와 삼귀의례로 시작됐다. 개산대재에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대구가톨릭대 정호규 교수(신부), 이연화 은해사 신도회장, 경상북도 · 영천시 단체장 등 3000여 명의 대중이 함께했다.〈사진〉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은 법문에서 "개산조 혜철국사께서 참다운 삶을 깨우쳐주기 위해 미타도량 은해사를 개산하셨다"며 "지역 모든 이들의 안심입명과 귀의처로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진력하고 있으니, 수행자들은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이 평화로워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돈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부처님의 뜻을 알리는 불법홍포가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며 "경전 이해와 올바른 신행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산대재는 도 · 시민과 함께하는 프라이드 경북음악회와 체험마당, 만등 점등식 등이 마련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창원 구룡사, 인재불사 요람 '우뚝'

10월 20일, 창건 91주년 기념법회 및 구룡축제

창원=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구룡사는 큰 화재로 전소된 바 있고, 고속도로 공사로 사찰 위치를 옮겨야 하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사람'에게 집중해 경남 일대 사찰 가운데 교육중심도량으로 우뚝 섰다. 교육도량 구룡사가 창건을 기념하는 법석을 열고, 구룡사 불자들이 주인이 되는 '구룡축제'를 개최했다.

창원 구룡사(주지 무언)는 '2018년 구룡사 창건 91주년 기념법회'를 10월 20일 법당에서 봉행했다. 기념법회에서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의 법문과 구룡사 주지 무언 스님의 인사말로 창건 의미를 되새겼으며, 박완수 국회의원, 백태현 시의원, 이미숙 창원시장 부인 등 내빈 및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영배 스님은 중국 송나라 오조법연 선사의 법연사계(法演四戒)를 법문으로 설했다. 법연사계는 오조법연 스님이 태평사 주지를 맡게 된 제자 원오극근 스님에게 설한 내용이다. 법연사계는 "세력을 다 쓰지 말고 복을 다 받지 말라. 규범이 있어도 다 적용치 말고 비록 좋은 말일지라도 다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영배 스님은 "좋은 말을 모두 다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쉽게 여기며, 규율과 제도를 다 시행하면 사람들이 번거롭게 여긴다. 복을 다 누리면 외로워지고 권세를 다 부리면 재앙이 닥친다"며 "주지 소임뿐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마음에 새겨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재로 전소된 아픔 이겨내고
교육 · 나눔활동 펼치며 성장해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활성화 등
"배움과 실천의 자세로 나아가"

이어진 구룡축제에서는 각 신행단체가 직접 참여해 장학기금바자회, 단주만들기, 버스킹노래자랑, 머그컵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민을 반겼다.

구룡사는 창건 기념법회에서 매년 장학금을 조성, 지역 모범 청소년을 선정해 전달하며 교육 도량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기념법회에서는 김진영(경상고2) 외 5명에게 장학금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2007년 개원한 불교대학은 튼튼한 교육 기반이 되어 13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신도회 및 유마거사림회, 우담바라 합창단, 바라밀선다회, 바라밀 꽃꽂이회 등 각 신행단체의 동력이 됐다. 올해 5월 취임한 주지 무언 스님은 새롭게 '이지(easy) 참선반'을 운영해 교학뿐 아니라 선정의 세계로 대중을 쉽게 안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포교성과다. 어린이불교학교와 반야청소년법회를 통해 올해 수계를 받은 수가 역대 최다인 60여 명에 달했다. 구룡사는 8년 동안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열고 있으며 현재 80여 명의 학생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창원 구룡사가 '2018년 구룡사 창건 91주년 기념법회'를 10월 20일 법당에서 봉행했다. 구룡사는 화재전소 등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중심도량으로 우뚝 섰다.

주지 무언 스님은 "구룡사 도량은 불교대학을 비롯해 어린이 및 청소년 법회로 새로운 세대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향해 배움과 실천의 자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창원 포교당 구룡사는 1927년 구하 스님이 도심포교 전법도량이자 항일구국운동 거점지로 영남지역 포교당 14곳 가운데 하나로 창건했다. 구룡사는 이후 도심포교를 위한 교육활동 및 꾸준한 나눔활동을 펼쳐 지역 내 모범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익산 삼불암 수행환경 파괴 우려

인근에 농약공장 입주 예정
소음과 괴소문에 피해 가중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전수교육도량인 익산 삼불암 인근에 대규모 농약새산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행환경 침해가 예상된다.

익산시와 농협케미컬은 삼불암 바로 옆 110,270㎡(약 33,000평) 부지에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화학농약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3년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심각한 공해와 소음 등이 삼불암에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삼불암은 인근에 가동 중인 한약재 공장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더욱이 지역 언론들이 삼불암 측에서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삼불암과 신도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등이 정헌율 익산시장 등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

이에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를 비롯한 스님과 불자들은 10월 24일 삼불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성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불암 가람수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익산 제3산업단지 내에 자리 잡은 삼불암은 10년 전 공단조성당시 6,700만원 상당의 토지보상을 제안 받았다. 하지만 삼불암 인근에는 소음과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전자부품회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삼불암의 수행환경을 보장한다는 익산시의 설명을 듣고 현재의 도량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가 당초 약속을 뒤집은 채 농약공장 유치하고 입주를 확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삼불암 측 설명이다.

삼불암 주지 심월 스님은 "익산시는 삼불암 주변에 환경적 피해가 없는 업체의 입주를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바로 옆 공장의 소음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도 참고 견뎌왔으나 농약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익산시청을 찾아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삼불암의 입장을 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성 스님은 "삼불암은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영산작법보존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찰"이라며 "대책위는 현재 삼불암이 처해있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익산시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니 삼불암 도량이 규모가 있는 사찰이고 도량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익산시, 농협케미컬, 삼불암이 서로 대화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해도 자기가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알라 바로 그 해야 할 일에 전념해야 하리.

〈법구경〉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최상기도법)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손도사**(6신통大도사)

책이름검색,1권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신을 움직이게 한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기도스님

필요한 절
연락 바랍니다.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010-5252-8008

스님 모십니다

1. 기도 예불스님 모심
2. 처사님 봉고 운전면허 소지자
3. 절에서 공부할 행자 심부름

010-3840-4355

불화

- 작품성이 좋은 찻잔 든 나반존자 (나한?) 불화 필요하신 분. (조건부)
- 고려말 조선초 추정
- 크기: 24×45cm

010-5021-2391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4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전생에 관한 일들을 말하지 말라 그러한 말들은 이치에 도움도 되지 않고 법에 보탬도 되지 않으며,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바른 깨달음도 아니어서 아무런 이익도 없느니라.

〈잡아함경〉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인천 ◎ 위치 : 경북
◎ 대지 : 750평 ◎ 대지 : 101평 ◎ 총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약 34평 ◎ 법당 : 2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4평 ◎ 요사 : 20평
◎ 양도액 : 20억 ◎ 양도액 : 12억 ◎ 가액 : 2억 8천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절대 비밀보장...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 구서동(지하철 3분)
- 새로 개금불사 및 법당 모두 수리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100평(산신각 포함)
- 시설비, 권리금 한푼도 없음
- 전세, 월세 조건 맞추어 드림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254평, 하천부지330평 총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북구. 신협, 농협 중간. 아파트 밀집
- 상가건물(168㎡) 2층 단독건물(옥상포함)
- 법당: 삼존불, 지장, 신중, 소불200불
- 친견실, 편백황토방, 명상수련
- 현)법회중 • {도량내}주차시설(영업)
- 보증금 2천, 시설비 4천8백(조정가능)

※ 집세는{無} 포교원 함께 운영하실 스님 연락바랍니다!

스님(직)010-4535-2568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창원시 마산 근교
- 대지 1,000평 / 임야 4,000평 총 5,000평, 법당 37평, 요사 65평
- 천혜의 명당이며 지하암반 석수있고 수목장하기 좋은 위치임
- 마산근교 10분 거리 단독도로와 경관이 좋습니다
- 가액 : 11억원.대출 : 2억 5천만원

010-4547-4990

포교원 안내

-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대지 : 53평(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 연건평 : 123.38평
- 지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1층 : 30.8평(근린생활시설)
- 2층 : 30.8평(요사채)
- 3층 : 30.8평(밥당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여수 시내에 위치하여 포교원 운영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 양도가:4억 • 공시지가:3억 8천

010-3841-1748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전농성동 5거리) 경열로 45번길 10
- 2층 건물(1~2층) 전체 약 30평
- 법당, 방5개, 화장실 1,2층 각각 창고
- 가액: 보증금 5백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급한인연으로 몸만오시면 됨

010-3102-5102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동작구 사당 4동 4층 건물 중 2층. 27평
- 법당1, 방1, 실내 화장실1, 주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없음(호불탱화1, 신중탱화1, 산신탱화1)
- 가스보일러 설치
-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 5분 거리

010-9728-0788

토 굴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 대지 660평. 남향
- 요사체 포함 11동. 무건물
-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1000평.약수물.각종 유실수 다량
- 4륜구동 차량 진입가능. 주차장
- 가액 3억 5천

010-9203-116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 화장실2, 법당, 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서울, 수도권 사찰

- 대지: 123평, 대웅전 목조단청
- 요사채: 80평부지 건물등재
- 종무소, 3층석탑, 향나무등
- 아름다운 전통사찰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2억3천만원

문의처 010-2607-711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인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4억 5천

010-3124-3952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원시장 부근 2층
- 지하철2호선 신림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0만원(부가세 포함), 시설비1300만원
- 약 25평

02-856-1558

사 찰 안 내

- 위치: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 대지200평,군임대부지 약300평, 법당 10평,산신각 2평,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황토방 5평,창고 약5평
- 외불미륵불, 지장보살
- 가액 : 2억. 절충가능
- 레미콘 차량 진입 가능한 포장도로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85-17 중심지
- 대지:100평,건평 70평,1층 전체
- 건물: 대웅전, 삼존불, 법당 외 방3, 화장실3, 도시가스
- 보증금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1,200만원(상담조절가능)
- 대구 최고 중심지. 단독 1층 전체

010-6674-1356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전망좋은 사찰 • 대지: 350평
- 대웅전,삼성각,요사채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13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750고지
- 빈집 방3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보증금 100만, 월세 30만(공과금 포함)

011-759-0183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 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부산진구
- 면적: 부지 약 600㎡, 건물 약 80㎡
- 법당, 삼성각, 방2, 부엌
-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주차가능
- 기도하기 좋은 곳
- 가액: 1억 8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7(연산동, 호성빌딩)

010-5346-4138
051-861-2233

토굴하실 분

- 위치 : 경북 청도 금천면
- 대지 : 110평
- 건평 : 20평(거실, 방 2) 창고, 기름보일러 설치
- 판넬구조, 공기좋음, 토굴로 사용하실 스님수행공간 최적임
- 주변유실수 많음(살구,감)
- 가액 : 8천만원

010-8517-4130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터미널 10분거리. 버스, 빌라, 주택많음. 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456m². 138평. 목조 5칸. 법당3칸. 방2개. 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매일 새벽 4시 도량석,종성 문제없음
- 30년 이상된 고찰. 생활불편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5천

010-3565-00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찰안내(전세)

- 위치 : 부산시 시청부근 자동차로 10분 거리
- 대지 : 200평, 100년 사찰, 주차시설완비
- 법당 : 목조 20평, 요사채 : 20평
- 전세 : 2억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 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시 사하구 다대동로 3층 건물 중 2층 25평
- 삼존불, 주방, 화장실, 상담실, 작은방 1개, 도시가스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700만원
- 교통편리, 지하철역 3분, 버스정류장 바로 앞.
- 방편하시는 분 최고 위치, 어시장 3분, 항구 1분

010-3389-8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정류장앞,옥상 사용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효정길 52 대덕사
- 대지 248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20평, 산신각 10평, 창고 30평
- 가액 : 3억

011-571-4002

사찰안내(월세)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2동 472번지 금명사
- 법당.산신각.방2개 욕실 주방
- 월세: 1년에 200만원 (가격조절가능)

010-9370-7513
010-7626-7912

이박사 공인사무실 이전

(www.이박사.com)

- 그동안 서울 사무실 방문 스님 감사드립니다.
- 사찰전문 이박사 원주시로 이전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 비밀 보장.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48.성일아파트상가108호(대표:이규철)

010-7347-1010 (직통:이박사손전화)

암 자 안 내

- 위치:경북 영주시 이산면 영봉로 1031번길
- 토지 120평. 건평 약20평 (등기되어있음)
- 지상권만 양도(정남향.지하수)
- 토지 1년 도지세 쌀 한가마
- 삼존불 봉안 양도 금액 2400만원

010-6783-25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사찰안내(암자)

- 위치: 충남 청양군 칠갑산 인근 (공주시와 가깝고 IC 5분거리)
- 대지: 약200평(문중토지)
- 법당: 컨테이너 하우스(삼존불 봉안)
- 요사: 약20평, 방사2, 현대식 주방, 해우소, 법당 집기 및 주방 용품 일체구비
- 가액: 전세, 월세, 양도 등 모두 답사 후 절충가능

010-3977-2123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300년 만에 돌아온 세계유산 대법당

日 코후쿠지 중금당 재건… 일반공개 실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현에 소재한 고찰 코후쿠지(興福寺)의 중금당 재건이 완료, 일반 공개가 시작됐다. 지난 10월 20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코후쿠지 중금당의 일반 공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코후쿠지는 669년 창건된 법상종의 대본산으로, 1998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중금당은 코후쿠지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법당이지만 소실과 재건을 7번 반복한 끝에 1717년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되지 못했다. 코후쿠지는 화재 속에서 모셔진 불상들만을 구출, 원래의 중금당터에 임시금당을 세우고 재건을 발원했다.

그러나 임시금당도 노후화로 누수와 붕괴위험이 일자 마침내 재건불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약 30여 년 전부터 기금 마련과 연구조사 등이 시작돼 마침내 2010년 임시금당의 철거와 발굴조사 후 2011년 중금당 재건불사가 착공했다.

재건은 발굴조사에 근간해 중금당이 최초로 세워졌던 나라시대의 초석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또 금당 전체에 붉은 칠이 되어있었다는 기록에 따라 모든 기둥에 붉은 옻이 칠해졌다. 지붕의 치미는 특별히 금을 입혀 장엄했다. 좌우 37m, 높이 21m의 거대한 법당을 짓기 위한 재목을 일본에서 구할 수 없어 아프리카에서 수입하는 등의 고충이 많았다.


야간 라이트업을 한 코후쿠지 중금당.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소실과 재건 반복만 8번
좌우 37m, 높이 21m 등
법당 짓기 위해 목재 수입
11월 11일까지 야간참배도

지난 5월 말 비공개로 점안법회가 봉행된 후 모든 공정은 10월 초 완료, 지난 10월 7일부터 5일간 일본 주요종단의 스님들을 초청해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낙성과 함께 그동안 강당에 봉안했던 불보살상들을 모두 원래의 자리로 이운했고, 본존불인 석가여래상은 새롭게 개금불사가 완료됐다.


코후쿠지의 본존불(석가여래좌상).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의 아악(雅樂)과 궁중무용 등을 공연하며 전통방식을 따라 봉행된 낙성법회는, 특별히 마련된 법좌에서 법상종의 교의에 대해 토론하는 수의(竪義)의식까지 진행됐다.

낙성법회에서 부처님전에 고불문을 봉독한 코후쿠지의 관수(貫首) 타가와 ˇvv에이 스님은 "충실하게 복원됐음을 온 몸으로 느껴주시길 바란다"며 재건의 감동을 전했다. 법회에 참가한 참석자들도 "300년 만에 재건된 금당과 낙성법회 모두 여법해 환희가 넘친다"고 감상을 전했다.

20일 오전 9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개의 첫날부터 재건된 중금당을 보기 위한 참배객들로 경내는 장사진을 이뤘다. 1시간 넘게 기다려 가장 먼저 중금당에 들어선 카지타니 케이지 씨는 "높은 천장과 넓은 법당 전체에 화려한 붉은 칠이 되어 있어 너무나 아름답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참배를 위해 도쿄 근처에서 일부러 왔다는 신도는 "이날만을 계속 기다려 왔다. 재건된 법당에서 부처님과 눈을 맞추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재건의 기쁨을 표현했다.

코후쿠지 측은 재건기념에 맞춰 11월 11일까지 야간 참배와 라이트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 평소에 공개되지 않았던 호쿠엔도(北円堂)와 비공개였던 국보급 불상들도 공개한다.

천년고찰에 불교만화 '한가득'

日 미에현 사찰서 불교만화 도서관 개관

만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은 불교나 종교를 소재로 한 만화도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만화와 종교소재 만화를 한데 모은 도서관이 개설돼 화제다.

지난 10월 16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불교만화 도서관을 연 미에현의 사찰인 콘고자지(金剛座寺)를 소개했다.

법당 한 편에 마련된 서가에 빼곡히 꽂힌 만화책들. 약 350종 700권에 달하는 장서는 모두 불교나 종교와 관련된 만화책이다. 주지인 소메카와 유지(52) 스님은 "어릴 때부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 30년 전부터는 직접 불교만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며 "만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싶다"고 도서관을 연 계기를 설명했다.

일본사찰에서 불교만화 도서관을 개설한 것은 도쿄 소재의 사찰 다몬인(多門院)을 이어 두 번째. 그러나 장서 수는 콘고자지가 더 많다고 한다. 유명만화가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 오기노 마코토의 〈공작왕〉 등은 물론 가톨릭의 성녀 마더 테레사의 전기 만화까지 폭 넓은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현재 장서의 대여는 불가하지만 관람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지 스님은 "도서관을 열게 된 것은 절을 부흥하기 위해 시도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콘고자지는 7세기경에 세워진 고찰로 2차 대전 전에는 7개의 말사를 거느리던 지역신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사세가 기울어 약 30년 전 주지스님이 입적한 후 무인사찰로 황폐해졌다.


장서를 살펴보고 있는 주지 소메카와 유지 스님.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유지 스님은 원래 콘고자지의 신도였다. 도쿄에서 일하던 스님은 천년고찰이 이대로 스러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선친의 유지를 이어 받아 콘고자지의 주지로 오게 됐다. 스님은 "1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단수와 단전은 물론, 모든 건물이 누더기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지금도 절의 신도는 단 여섯 가구뿐이다.

스님은 "그래도 만화도서관이 세워졌단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만화는 그림과 짧은 문장만으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하는 힘이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며 "만화를 통해 불교의 세계를 가깝게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 부도탑, 美 도움으로 재탄생

AFCP 프로젝트로 4300여만 루피 모금

라자갈라 사원 중심으로 동굴-주요 구조물 복원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AFCP(the Ambassadors Fund for Cultural Preservation)를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로 불교 사리탑 복원이 완료됐다고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총리가 선언했다.

해당 부도탑 복원식에 대사관을 대표해 참석한 공보관 데이빗 맥과이어(David McGuire)는 "2013년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약 4300만 루피가 모금됐다"고 밝혔다고 스리랑카 주요 인터넷 관보 콜롬보(colombogazette)가 지난 10월 17일 보도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라자갈라(Rajagala) 불교 숲 사원에 속한 동굴 주거지, 기념물, 건물 등의 보존 및 복원 작업이다.

특히 불교 사리탑, 일반 건축물, 명상 그림이 있는 동굴 및 중요 구조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복원했다. 여기에 스리랑카 동부 지방에서 최초로 진행된 선사시대 유적지에 대한 추가 발굴도 진행됐다.

맥과이어는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불교 유적지가 복원돼 기쁘다"면서 "라자갈라 유적은 스리랑카에서 인류 역사의 폭을 넓힐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AFCP를 통해 복원된 불교 사리탑 모습.
사진출처=스리랑카 미 대사관 홈페이지

AFCP는 2001년부터 스리랑카에서 불교 사원, 아누라다프라(Anuradhapura) 박물관 종교 관련 소장물, 바티칼로아 네런란드령 요새(Batticaloa Dutch Fort) 등 13개 보존 작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불교 공동체 · 타밀 · 원주민 음악과 의식 등 무형 문화재에 대한 보존도 포함한다.

한편 로버트 힐튼 대리대사는 10월 5일 자프나 대학과 제휴를 맺고, 스리랑카의 고대 힌두교 및 기타 유물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AFCP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 문화 유적 및 유물 보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미얀마 불교계, 마약 거래 문제로 '시끌'

스님들이 사원서 메탐페타민 등 거래하다 적발

불교 승려 2명 등 4명의 미얀마 남성이 불교 사원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만달레이 경찰에 체포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현지 경찰은 만달레이에 위치한 찬미야타지(Chanmyatharzi) 명상 센터를 지난 10월 15일 급습해 설법대와 책꽂이 등에 숨겨진 약 4190만 개의 메탐페타민을 압수했다. 메탐페타인은 중추 신경을 흥분시키는 마약류다.

이날 체포된 아신 알시나(Ashin Arsina · 52) 스님은 13년간 승려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마약 거래를 위해 스님으로서 지위를 이용했다고 간주한다. 현재 그는 구속됐으며 마약방지법에 따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마약이 명상센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정부 정보에 따른 것이다. 윈 민 미얀마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불법 약물 거래 관련 정부 및 지역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즉시 알려 빠른 시간에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들이 알지 못하는 마약 남용 사건이 많다"며 "정부가 마약 남용 신고를 권유한 덕분에 마약 불법 거래자들을 상대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 현재 마약 거래자들이 사원 안에서 불법적 활동을 위해 승려로 신분을 위장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교 승려로 위장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와 불교 공동체에 추악한 얼룩이다. 이렇게 위장한 범인들을 우리(경찰)가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9〉 무상, 빛바램, 소멸, 놓아버림 (호흡 수행 13~16단계II)

사마타 · 위빠사나는 항상 함께한다



사마타와 위빠사나

불교의 수행에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사마타(止)' 수행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위빠사나(觀)' 수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행 중에서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고 위빠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위빠사나 수행을 먼저 하고 사마타 수행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고 위빠사나 수행을 하거나 위빠사나 수행을 먼저 하고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의 '쌍 경'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말을 인용하여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자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마타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위빠사나를 닦는 수행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위빠사나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닦는 수행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법으로 생각하며 일어난 들뜸에 마음이 붙들린다'고 표현된 네 번째 유형은 경전의 설명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흥미를 갖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떤 계기에 의해 강하게 영감을 받은 수행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유형 모두 수행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네 가지 방식 어느 것으로도 수행자는 예류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단 예류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 동일하게 팔정도의 수행이 됩니다. 이처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사마타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은 항상 함께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면 마음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마음챙김의 힘이 강해집니다. 마음챙김의 힘이 강해지면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장애가 약화되면 마음챙김의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음챙김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지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지혜가 일어나면 장애는 더 줄어들고 장애가 더 줄어들면 마음이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 둘은 이렇게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생기면 사마타 수행이 진전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아난다 스님이 말한 세 번째 유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 가지 유형에서도 언제나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무상

무상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반복이 아닙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상의 빨리어 단어는 '아닛짜'입니다. 이것은 '닛짜'의 부재, 즉 항상성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닛짜'라는 단어는 율장에도 등장합니다. 불교의 승려는 탁발 음식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장에는 승려들이 수용해도 좋은 몇 가지 유형의 공양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닛짜 밧따'라는 형식의 공양 초대입니다. 닛짜 밧따는 보름에 한 번이라거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식으로 날을 정해놓고 스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양입니다.

여기에서 '닛짜'라는 단어는 '정해져 있는', '정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보시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음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전에 정해놓았던 '정기성'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닛짜입니다. 정해져 있던 것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늘 규칙적으로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장의 용례가 무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무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있기로 정해져 있던 것이 실제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선정을 경험하면 계속 존재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며 공부짓는 호흡 수행의 제13단계입니다.

빛바램

사라지지 않기로 되어 있던 것이 사라지는데,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빛바래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위라가'입니다. 위라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 떨어져 나감'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빛바래어 사라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맥락에서는 '빛바래어 사라짐'이라는 뜻이 더욱 적합합니다.

수행자들, 수행 순서 집착하지만
관계없이 완전한 깨달음 이어져
종국에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텅 빔 · 사라짐 느낄 수 있게 돼

경전에서는 수행의 과정을 순수한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내는 작업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마음이 다섯 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비유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다섯 가지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말했듯 선정의 정형구에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라는 구절도 다섯 가지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수한 금을 갖게 되듯이 다섯 가지 감각적 경험이 사라져야만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바래어 사라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사라져갑니다. 자아를 구성하던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빛바래어 사라져갑니다. 우선 과거와 미래가 빛바래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몸의 거친 부분이 사라집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등의 다섯 가지 감각적 경험이 사라집니다. 호흡이 남지만 그것마저도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 모든 것이 빛바래어 사라지면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호흡 수행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개울을 하나 건너야 합니다. 그 개울은 한 번에 건너뛰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그러나 개울 중간에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어서 그 바위를 징검다리로 삼으면 개울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징검다리 바위가 바로 호흡입니다. 수행자는 징검다리 바위로 건너가서 호흡에 안정되게 머물러 섭니다. 이 중간 단계에서 수행자가 경험하는 것은 호흡뿐입니다. 몸의 다른 감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청각도 완전히 닫히거나 아니면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수행자가 인식하는 것은 오로지 호흡뿐입니다. 호흡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감각의 세상에서 호흡을 징검다리 삼아 개울 너머로 건너뛰면 그곳이 바로 마음의 영역입니다. 니밋따와 선정입니다. 이전 과정이 다섯 가지 감각의 점차적인 '빛바래어 사라짐'입니다. 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감각이 사라져야 합니다.

소멸

고요하게 머무르면 다섯 가지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의지가 사라집니다. 위딱까와 위짜라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감도 사라집니다. 정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을 제외한 다른 느낌들이 사라집니다. 계속 고요하게 머무르면 평온함마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사라집니다. 고요하게 정지해 있는 것을 원인으로 사라짐이라는 결과가 생깁니다. 조금씩 사라집니다. 단계별로 사라집니다.

제4선은 마음챙김의 절정, 정화된 마음챙김의 완성이라고 표현됩니다. 무색계 증득에서는 마음챙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라져가면서 결국 소멸합니다. 이것이 니로다(nirodha), 소멸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무상함, 빛바래어 사라짐, 그리고 소멸을 이해합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고요해지고 마침내 모든 것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위빠사나, 지혜 수행이란 이런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정의 정형구에 '까야 빠띠상웨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 그래도 하자면 '몸으로 경험하고'라는 뜻이지만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까야'는 실제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가지 감각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으로 경험하고'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라는 뜻입니다. 수행자는 수행의 각 단계를 이런 의미에서 '몸으로' 경험합니다.

놓아버림

그리고 이제 호흡 수행의 마지막인 제16단계,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숨, 날숨)을 쉬리라'고 공부짓는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사라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사라를 개선하기 위해 지혜와 자비심을 키우려고 합니다. 괴로움을 줄이고 즐거움을 늘이기 위해 명상을 사용합니다. 괴로움이 늘어나고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은 '내면의 의지'가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의지에게 선정을 얻으라고 명령하지만 내면의 의지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괴로운 순간을 빠르게 빠져나가자고 말하지만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운전사의 자리를 찾아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운전사, 내면의 의지에게 제대로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방식의 운전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사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수행합니다. 수행이 진전되어 제2선에 다다르면 마음 안에 있는 운전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전석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됩니다. 운전석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마침내 조용히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시간의 낭비일 뿐 아니라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업보라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생이나 미래 생이나 일체 제불이 다 함께 한자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동서남북,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만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 아닌 바로 여러분이 같이하고 계시고,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보살도 다 같이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질문부터 하실까요?

질문자1(남) 제주지원에서 왔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여고에 재직하면서 2년 전에 3학년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학 진학을 발원하는 마음에,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출근하는 차 속에서 1년 가까이를 매일 주인공을 관하고 오분향례, 반야심경을 봉송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학교에서는 제주도 여학생 수학능력시험 전체 수석, 개교 이래 명문대학 최다수 합격 등 좋은 입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관을 할 때는 '주인공의 나툼으로, 지혜로움으로 모두 이익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생활 속에서 관이 잘 안되는 경우, 큰스님께서 수많은 설법을 통하여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편 아닌 방편은 필요하지 않은지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다 방편이죠. 방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방편이지만 그 방편도 없어서는 아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모두 함이 없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편은 필요한 것입니다. 방편이나 방편이 아닌 것이나 올바로 하면 방편 아닌 그대로 실천이죠.

질문자1(남)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작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설 중에 『하늘이여 땅이여』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조선 오백여 년 동안에 왕위 계승과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왕손뿐 아니라 왕후들의 원혼을 잘 달래지 못해서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제국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삼각산 아래에서는 누구도 끝이 좋지 못하므로 왕가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저도 끄달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한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불제자들은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그것과 관련하여 뜻으로 몇 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부 필요한 점이니까요.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또 화엄경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즉 말하자면 무아의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부처님 이름들도 수많지만, 우리 살아나가는 생명들도 천차만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또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천차만별의 업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업보라는 건 무엇인가. 업보라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하도록 하고….

부처님 이름을 여래니 부처님이니 또 아미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이제. 즉 일체 깨쳤다, 서방정토 아미타불이다, 부처님이다, 여래다,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부처님들 이름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은 모두 그때그때에 따라 적합한 방향으로 모두 이름을 지어 놓았다는 겁니다.

경전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화엄경을 말씀하신 거는 살아나가는 도리를 주로 전파하신 거죠. 생략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 이게 선(禪)으로 가는 법이죠. 즉 무(無)의 법으로서 선법으로 가는 것이고, 또 법화경이라는 것은 선법이나 물질로 사는 사람들의 법이나 똑같이 굴러간다는 그 뜻으로써 법장(法藏)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본다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을 만약에 이루종차 전부 학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한마디 말한 것이 책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권이. 그러니까 말로 배워서는…, 말을 들었다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몇 마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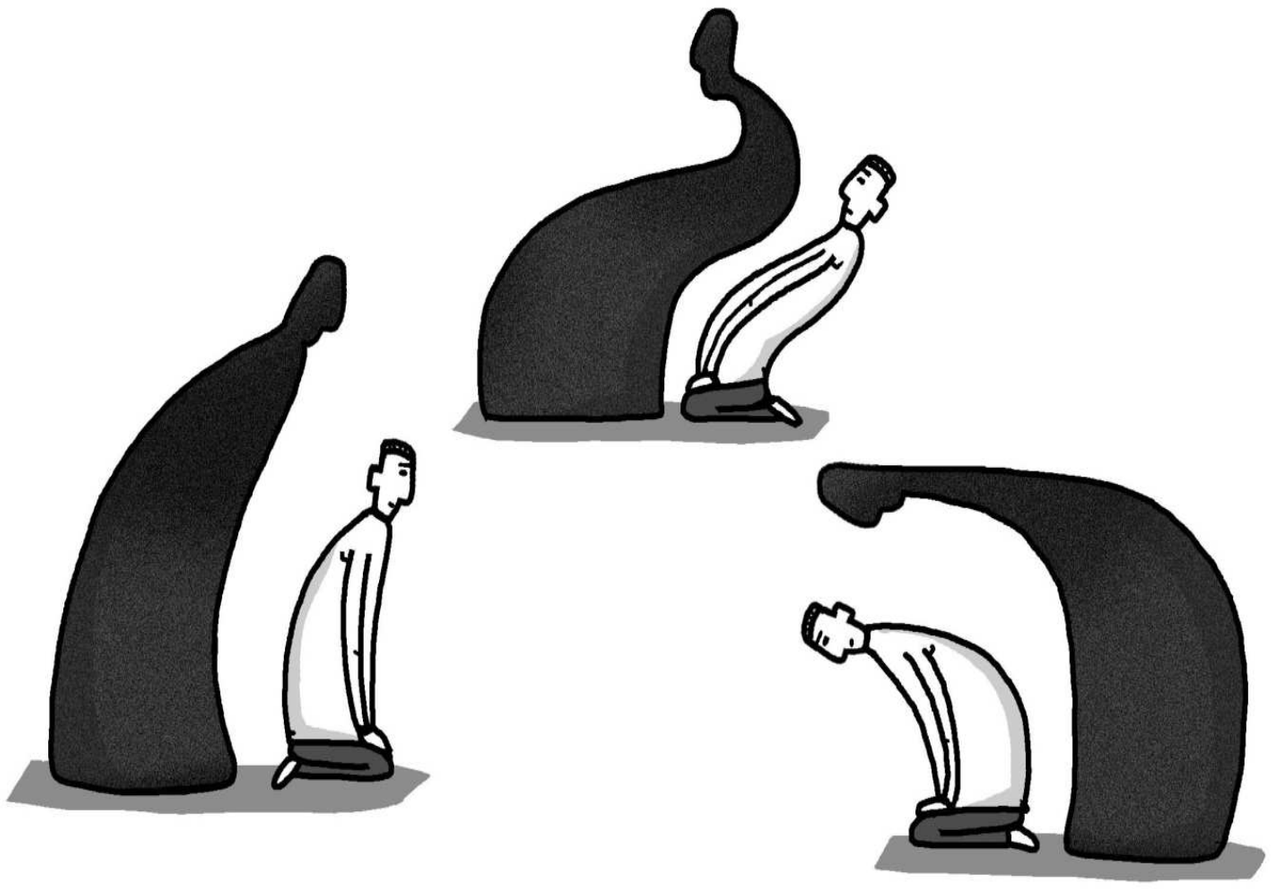
그러니까 서방정토 부처님이든 어떤 부처님이든, 이 부처님 이름들이 수많다고 하더라도, 허공에 꽉 찼다 하더라도 그냥 한 부처님으로 섬깁니다. 이 아미타부처님은 전체에 비유를 해서 전체에 없는 게 없는 것이고, 또 아니 비치는 게 없는 것이고, 아니 하시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인간들의 생산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우주에서 별성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일체의 생산처입니다. 또한 북두칠성에서는 살아나가는 도리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만 산다고, 내 자유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은 못 할 겁니다, 아마. 자유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모두가 일불(一佛)입니다. 여러분한테 일불로, 자신의 자불(自佛)로 가르칩니다, 지금. 자신의 자불 하나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옵니다. 수많은 차원에 따라서 수많은 중생들이 나오고 수많은 생명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자불 하나에서 그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동적인 컴퓨터가 제가끔들 다 하나씩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거기에 집어 넣으면은 그것이 순탄하고 순리적으로 다 해결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전국이든 세계든 다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이 우주 전체에 전파를 할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코 정말이지 진짜로 믿으십시오. 하치않은 나무들을 보세요. 제 뿌리 없이 그냥 모습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뿌리를 모두 다 가지고 사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뿌리 없는 게 없더라, 그리고 씨가 없는 게 없더라, 씨를 심어야 먹더라' 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볼 때에 죽었다 해서 씨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 영령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날 때 그대로 거기에다가 놓는다면 입력이 돼서 그냥 전파가 되고 그냥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잘 써서 잘하고 나가는 사람이 할 때는 그냥 진화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진화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은 악하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무조건이라는 얘깁니다, 무조건!

☞ A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템플스테이
TEMPLESTAY
1박 2일 양평여행
기차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그냥, 가볍게 떠나는거야
11.17토 ~18일
용문사(양평) 템플스테이
산사 마당 화덕에서 갓 구운 피자와 차 한 잔!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떠나요.
용산역 출발
남이섬
깊어가는 가을,
낭만 가득 남이섬에서 추억을!
두물머리 · 세미원
두 강물이 머리를 맞대듯
하나의 강으로 흐르는 '두물머리'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에서 여유를!
양평 물맑은 시장
양평의 계절 채소와 과일, 즉석먹거리!
사람 냄새나는 5일장의 흥겨움을 느껴보세요.
(온누리상품권 5,000원 제공)
예약 문의 1544-7755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앱
운임요금 일반 99,000원 어린이 89,000원
KORAIL 코레일관광개발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허공에 부처님이 꽉 찼다 하더라도 그냥 한 부처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것은 모두 자기 자신들이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사람을 어디다가 갖다가 놓고서 '이제 너를 올려놨으니까 앞으로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잘해라.' 이럭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부처님의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의 도리니 소승의 도리니 중승의 도리니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공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한생각에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생각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걸 알면 '내가 했다. 내가 산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앞으로도 이걸 잘해야지.' 이런 게 스스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도리를 모르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걸 안 나가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으신 거를 생각해 볼 때에 온 누리에…, 오늘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군할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셔도 불성은 부처님과 이 중생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불성을 싸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그 불성을 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싸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재껴 버려야 되는데 그 영혼을 재껴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껴 버리려면 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함이 없이 한다면 그대로 벗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노릇을 하고 남편 노릇을 했는데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4시간 살아나가는 데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봤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만났고 이런데, 내가 어떤 거 만났을 때 내가 했다고 그러며,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한 무더기로 그냥 '공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운전수가 끌고 다니니까, 운전수가 즉 자기니까, 운전수가 자기를 끌고 다니고 모두 보게 하고 듣게 했으니까 운전수한테다 감사하게 맡겨야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활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는 그 생활 속에서 둘이 아니게 공심(共心)으로, 공생(共生)으로 살 수만 있다면, 생활하는 것이 공해서 함이 없다는 도리를 알고 넘어간다면, 그냥 편안하고 믿게 되고 그냥 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쳇말로 정말 '왔다' 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진정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지장이다' 이런다면 죽는 사람을 좋은 데로 가게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어느 보살이나 있지만 그 용도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일체를 다 알아야 보살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無)의 법도 그렇지만, 유(有)의 법에서 요만한 거 하나하나 거쳐 나갈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걸로 이어집니다.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큰 것도 잘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보살 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본다면 참 이런 공부는 세세생생이 가도록, 돈을 들인다 해도 해야만 하는 공부입니다. 정말 이 공부라는 것은 이런 인연이 되지 않는다면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전자에 인연이 돼서 이 마음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데 우리만이 아니라 일체제불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만날 칭찬을 해 드려도 뭐, 조금도 손해날 일은 없지만 칭찬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된다고 해서, 즉 아만이나 아상이나 거만이나 이런 거를 가져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더 알게 되면 마음의 고개가 딱 수그려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져요.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에 이익이 가죠. 나와 더불어 같이 이익이 가죠. 그래야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영령들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러더라도 걱정할 게 없고, 또는 어떤 병에 걸렸다 이러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폐암이다 백혈병이다 이런 것도, 큰 거고 작은 거고 다 평등한 거니까 작고 크다 이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못 믿거든요. 그리고 식구가 다 모르고 한 사람만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어떤 때 보면 한 집안에서 몇 사람씩 기독교를 믿고 그러는데 그렇게 병이 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기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제삼자가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마음들의 문을 열어야죠. 그것이 말하자면 운명을 가져오는 거죠. 믿는 것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래요.

여기 다니는 여러분 중에도 가장자리에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지만 그래도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분들이 다 한자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항상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아, 곳곳마다, 처처마다 있다더니 처처마다 있구나!' 하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도 움죽거리지 않고도 손가락으로 그 하늘이 무너지는 걸 받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데 이유를 붙이거나, 여자다 남자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것도 보지 마시고 그저 닥치는 상황대로 좋게, 섭섭지 않게 해결만 하고 가면 되죠, 이게. 사실 때에 거북스럽게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사는 거 그대로 사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다 걸어야 보살행이다 하는 것은, 팔정도라든가 사성제라든가 육바라밀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문제를 다 넘어서야 된다 이런 건데 '육바라밀,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말을 해 놨지만 그것도 그 마음 하나에서 다 하는 겁니다, 마음 하나에서. 마음 하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음 하나를, 주인공을 딱 잡고 거기다 놓는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죠.

마음 하나에서 다 하는 겁니다, 마음 하나에서.
그러니까 마음 하나를, 주인공을 딱 잡고 거기다 놓는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참, 소신껏 그렇게 잘하고 나가십니다. 그 말끝에 이 말씀을 드린 건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알아서 걱정 말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런 겁니다. 이것 보면 이것대로 그냥 걱정하고 저것 보면 저것대로 걱정할 게 아닙니다.

질문자2(남) 저는 제주지원 심용회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스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스님께서 아주 쉽게 저희들이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스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도살을 하거나 살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같이 있을 때 저는 항상 '도살하는 이에게 원망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불법에 인연하여 진화 발전하라.' 이렇게 관하곤 합니다. 제가 그런 관을 할 때는 천도를 한다거나 어떤 다른 생각을 함이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때로는 도반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스리지를 못하면서 과연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큰스님 그것을 길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그런 생각으로써 하신다면 정말이지…, 내가 이런 얘기 또 하게 됩니다.

옛날에 승려들이 같이 한도량에서 사는데 은사 스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선방이니까 따져 본다면 수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맨 아래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은사 스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영 드시는 게 실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을 못 차려서 저렇게 병이 드셨나 보다.' 하고는 나가서 지렁이를 한 소쿠리씩 잡아서는 소금을 넣고 씻어서 산에서 다려서 그 물을 꼭 짜 가지곤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 거기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나를 살생을 해도 안 된다는데 수만 마리씩 그렇게 살생을 하니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우리들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너 그럭하지 말아라." 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가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스님만 살리면 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렁이도 스님과 하나로 돼서 진화가 되니까 좋고, 스님도 좋으니 양쪽을 다 살린 거죠.

우리 여기도 보면 한 부처님을 갖다가 수십 개를 만듭디다. 그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로 되려고 해도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자유스럽다는 얘기죠. 그래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주인공' 하면은 그 '공' 속에서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이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닭을 하나 잡았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살생이지만 그 닭에게는 큰 영광이죠.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한테 걸렸다는 게 정말이지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문제죠. 그래서 '천 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런 사람에게 걸리면 재깍 그냥 진화되지 않습니까? 재깍 진화돼서 그 모습을 벗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양면이 다 좋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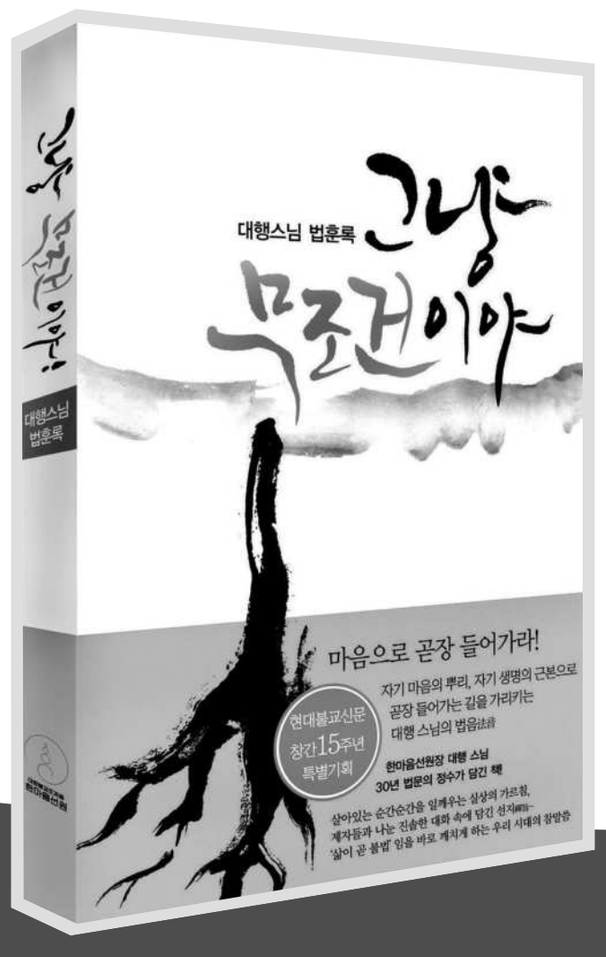
질문자3(남) 저는 제주지원에 다니고 있는 심단회 회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큰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3년 전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이 불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지만 병명은 없고 무당을 데려다가 큰 굿을 두 번씩이나 했지만 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마음선원에 다니는 동생이 큰스님 친견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7일, 처음으로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알았어. 나무가 뿌리를 믿고 살듯이 자신의 뿌리를 믿도록 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불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와 집사람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선원에 열심히 다녔고, 다니다 보니 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통신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사업체는 합병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업체와 합병을 해야 될지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할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에 맡기고 놓으려고 하지만 번뇌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돌려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큰스님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9년 10월 3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비우면 스스로 밝아진다



맹난자
수필가

홍콩스타 주윤발의 전재산 기부
인생서 중요한 것은 돈 아니다
"내 꿈은 행복해 지는 것" 강조

마음의 평화는 脫집착서 비롯돼
'虛心自明' 비워야 비로소 밝아져

준다는 생각도 보답 바라지 말고
머뭇거림 없이 흔쾌히 보시하라

영화 '영웅본색' '와호장룡' 등으로 알려진 홍콩스타 주윤발이 자신의 전 재산인 59억 홍콩달러(약 8100억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면의 평화를 얻고 평온한 태도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라던 그의 진솔한 발언이 반가웠던 것은 미국에서 부자가 된 친척 한 분이 노후에 병고와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서였다. 애써 모은 돈만 남겨놓고. 그렇다면 '내면의 평화를 위해 물질은 독(毒)이 되는 것인가' 는 생각해보게 된다.

오스트리아 철강 재벌의 아들인 철학자 비트켄슈타인도 막대한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독신으로 평생을 검소하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위로 셋이나 되는 형들의 자살을 목격하고 제1차 세계대전 중 유태인으로 겪은 심적 고충,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추장스러운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던 것일까? 다 버리고 홀가분해진 그는 시골학교 교사로, 병원 잡역부로 정원사로 일하며 노르웨이의 어느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저술에 몰두했다. 〈논리철학논고〉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멋진 삶을 살았다' 는 최후의 말이 인상적이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며 "내 꿈은 행복해 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주윤발은 한 달 용돈으로 약 12만원을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할인매장에서 주로 옷을 구매하고 허름한 맛집을 자주 찾는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주윤발. 그는 극중에서 여러 배역을 연기하면서 인생은 한바탕 꿈이며 연극이며 환(幻)이라는 통찰을 얻지 않았을까?

'나' 란 비실체적인 오온의 무더기가 모인 일시적 존재, 그 공(空)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에서 벗어나 저 언덕(니르바나)에 이른다는 가르침. 그러고 보면 마음의 평화란 물질과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가능하지 않다.

중국의 방거사(방온)는 마조도일의 문하에서 크게 깨쳤다.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한 입으로 저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여 마시거든 그 때에 일러주마."

언하에 깨친 방거사의 게송인 '시방 함께 모여들어/ 저마다 배우는 무위(無爲)/ 그러나 여기는 선불장(選佛場)/ 마음 비워(心空) 급제해 돌아가노라' 에서 무위(無爲)와 심공(心空)을 주목하게 된다.

마조의 활구에 방거사는 마음을 비워(心空) 그 난관을 뚫어낸 것이다. 불법을 만난 뒤 방거사는 재물을 실어 동정호에 내다버렸다. 출가하지 않은채 처자를 이끌고 오두막을 전전하며 조리나 대바구니 같은 죽제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었으나 가족은 아무 불평이 없었다. 앉아서 죽고(坐亡) 서서죽는 것(立亡)을 자유자재로 펼쳐 보인 가족이었다.

"마음을 기르는 데에는 적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적어지고 또 적어져서 적어질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르면 마음이 비고 신령스러워진다"는 이지함의 말씀을 나는 금과옥조로 삼고 지낸다. 기심허명(其心虛明)이다. 마음(虛靈)이 비면 스스로 밝아진다. '허심자명(虛心自明)' 이다.

옛사람이 가득 찬 것을 경계(滿招損)한 것도 그 때문이리라. 주되 준다는 생각 없이, 돌아올 보답을 바라지 말고, 머뭇거리는 마음 없이 흔쾌히 보시하라. 허심자명으로써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할 수 있을지니 그래야 참다운 불자라 할 것이다.

社 說

선학원, 설립 조사 왜곡 안 된다

일제강점기 사찰령이라는 각종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식민지 불교정책을 타개하기 위해 불교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선학원. 100주년을 3년 앞둔 현재, 선학원이 설립조사에 대한 왜곡된 조명을 거듭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우려를 낳는다.

선학원미래포럼이 개최한 2018 워크숍에서는 한국불교 근현대사 전문가들이 선학원의 지나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과 역사적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요지는 선학원 설립조사가 아닌 한용운을 대대적으로 선양하면서, 진정한 설립조사인 만공 스님은 조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수감 중이던 한용운을 설립조사로 표기하고, 선학원 건립 취지를 한용운 출옥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선학원 측 설명에 역사 전문가들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선학원의 이 같은 만해 한용운 선양은 수덕사 출신의 만공 스님의 업적을 가리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한 번쯤 돌아봐야할 문제다.

앞서 선학원과 수덕사는 간월암 · 정혜사 소유권을 두고 수년간 법적소송을 벌였다. 무엇보다 선학원 측은 대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패하며 고배를 들이켰다. 결국 수덕사 중창의 핵심 역할을 한 만공 스님을 선학원이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선학원은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사장은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온적인 이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역사를 바로잡고 정상화에 나서길 바란다.

불자 자원봉사 열풍 일으키자

사찰이 그동안 개별이나 친목모임 차원으로 진행하던 봉사활동을 사회봉사 시스템과 연동해 눈길을 끈다. 주먹구구식 봉사활동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필요한 곳에 분석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

조계사는 10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함께하는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발대식' 을 개최했다. 이날 눈길을 끄는 것은 자원봉사단뿐만 아니라 VMS시스템이 사찰 최초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VMS는 사회복지 봉사인증관리시스템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실적 인증 확인서 발급과 조회를 가능케 하고 우수봉사단과 봉사자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 봉사활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VMS가 되면 사중 봉사단체에서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자원봉사 교육도 수료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이러한 경력을 인정해주기에 이 경력을 활용해 다른 분야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조계종자원봉사단이 VMS에 등록되어 있었다. 대한불교조계종자원봉사단은 종단을 대표해 국제구호, 긴급재난구호와 같은 큰 일을 담당했다. 이제는 사찰의 자원봉사자들도 종단의 정규 자원봉사단과 같은 자격과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교에서는 '보살행' 을 강조해왔다. 자비와 봉사는 불자의 당연한 수행 수단이었다. 사회 곳곳에서 불자들은 보살행을 펼쳤다.

이제 이런 불교계 정서를 보다 체계화해 사회에 알리고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일만 남았다. 더욱더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자원봉사계 자체에도 또 다른 원동력이 조성되길 바란다.



특별기고
법진 스님 태안 보타락가사 주지

중생 무차별 발원, 통일 불사 지름길

아미타불의 사십팔원 가운데 세 번째로 '동진금색원(同眞金色願)이 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차별 없이 무상복락을 이루어 달라는 발원을 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들떠있다. 남북으로 갈려 대치 상태에 있는지 70년이 다 되어 비로소 통일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에겐 과거 수많은 통일의 조짐이 보였었다. 1972년 이후락 前 중앙정보부장이 밀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후 서울과 평양서 동시에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이때도 온 나라가 통일이 된 것처럼 통일 열기로 가득했다.

1998년에는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소 1001마리를 몰고 육로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간 일도 우리 기억속에 생생하다.

당시 소를 왜 1천마리면 천 마리지 천 한마리냐는 주위의 질문에 정주영 회장은 서슴없이 "하나는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고 계속 되게 하기 위한 생각에서였다"고 즉답했다.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들은 그때마다 오래가지 못했다. 2016년 북한의 핵 실험과 로켓발사를 계기로 한반도는 격변의 장으로 변했으며, 남-북간 대결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회담으로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제 한반도의 눈과 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쏠려있다. 가장 큰 기대는 비핵화일 것이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북한과의 종교 문화 교류에도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불교는 남북 공히 가장 중요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북한서도 불교는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팔 벗고 나선 종교이자, 고락을 함께한 종교로 남아있다. 우리 민족이 무궁화처럼 인욕하는 힘이 바로 불교에서 나왔다. 남북불교계는 현재 법회의식과 교리 또한 거의 같다. 이는 조금만 교류가 된다면 함께 융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도 된다. 이미 불교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외적, 내적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실천만이 남은 셈이다.

언제나 남북통일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때면 어김없이 분단의 비극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계기로 대치 상황은 극에 극을 달리고, 국민들이 항상 뒤에서 "북한이 그러면 그렇지"하고 개탄한다. 그러나 통일에 거는 기대와 희망만큼은 거의 똑같다. 아니 반세기가 지나면서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왜 수없이 실망하고 또 내려 놓으면서도 남북통일을 그토록 열망하고 바라는 것일까? 한마디로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부처님 말씀으로 답과 의미를 대신한다.

부처님께서는 〈사십이장경〉 제2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뭇 중생은 권속과 애욕 등에 걸려있는 것이 감옥보다도 더 무섭다. 감옥은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지만 혈육과 권속에 대한 욕망과 정은 죽어도 오히려 달게 아는 고로 고통에 쇠사슬인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무섭도록 끈끈한 정을 우리는 70년이 다 되도록 이산의 아픔을 안고 지냈다. 빨리 그 고통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날이 빨리 오길 부처님전에 간절히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완공식 봉행

일시 : 2019년 2월 25일 9시 30분 / 장소 :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장관 공식 초청 행사

한국불교 큰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고통받는 극빈지역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새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련,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현세의 참다운 마지막 회향이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온 몸을 던지신 목탁스님과 법왕청 큰스님들의 피와 땀으로 결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의 환한 미소 속에 가슴 벅찬 세계불교도들의 환호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넘어 산,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자재 준비와 교수 및 교육지도에 재능보시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들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학교운영이사님, 지도교수 운영위원님 들을 초빙하는 일 역시 큰 일이지요. 부처님 마음을 내시는 보현보살의 행과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큰 불사 역시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일입니다. 보현보살행을 보여주실 분 (02-733-5665) 연락주십시오.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외교법인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 3층) | 대표전화 : 02-733-5665 | FAX : 733-5615 HP : 010-3618-6061 | E-mail : moktakno1@hanmail.net



후원회 : 세계불교도들의 법왕 Dr 우꾸마라 사야도, 수지여사, 불교수호협회 Dr 킨쉐이

봉행 준비위원회 공동 대표 : 종교성장관 Union Minister for Religious Affairs and culture, Thura U Aung Ko. sanggalaja Dr Mok Tak (대승정 목탁)

코리아기술대학 완공식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법산대종사. Dr바라사야도, Dr에인다빠라 삼장법사, Dr짜익티오성 사야도, 승가연합회사무총장 Dr사야도



후원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민은행 023501-04-163141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완공식에 동참하실 사부대중께서는 항공권을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선착순100명 미얀마 관광청 한국대표부 봉행위원회로 (02-733-5665)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사이후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화 5박 7일 성지순례 ※

불교 교육 40년… 校庭의 '호법신장'

〈교정〉



김형중 교장의 법명 '법해'는 월하 스님이 직접 준 것이다. 불교의 정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적절히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형중 교장이 교법사 시절 불사한 동대부여고 관음보살상 앞에서 미소짓고 있다. 그는 학교 구성원과 불자들에겐 따뜻한 자비심의 관음보살처럼 불교를 해하는 이들에겐 무서운 호법신장처럼 나섰다.

그대는 자비보살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의 법명은 '법해'(法海)다. 법의 바다. 거창한 이름이지만 김형중 교장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이름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다. 김형중 교장은 젊어서 신심 넘치는 교법사로, 종립학교에 부임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활동했다. 여기에 불교계 환경운동을 일군 환경운동가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시작한 장본인이다. 또 역사교과서 등 잘못된 불교인식을 바로잡는 학자이자 불교 지성인으로도 제 역할을 다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휴정의 선시연구'로 연변대학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하고 선시와 불교문학을 전공한 문학가로 수많은 작품을 선보였다. 본업 외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이들이 시도하지 않는 일에도 과감히 앞장섰다.

목정배 교수에게 가르침 사사

'담백하다'는 말은 사전에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설명돼 있다. 가을이 찾아온 10월 15일, 동대부여고 교정에서 만난 김형중 교장을 만났을 때 첫 인상이 딱 그랬다. 오래 전 수업을 들었던 한 제자를 만난 노교수님처럼 김형중 교장은 보살상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두세 다리만 건너도 대부분을 안다고 한다. 김형중 교장은 더 나가 기자와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었다. 198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김형중 교장은 기자의 동문 선배다. 다른 기자 대신 갑작스럽게 진행하게 된 인터뷰, 정작 인터뷰 전에는 대면할 기회가 없었지만 익히 김형중 교장을 알고 있었다. 2016년 불교학과 창설 11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한 선배 중 한 명이자 불교계 언론에서 평론가로 활발한 활동하는 이기 때문이었다.

자연스럽게 학교 이야기가 나오며 기자가 생전에 취재했던 김형중 교장의 은사인 故목정배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로 이야기 주제가 이어졌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운동권은 아니지만 학생장에 사생장까지 맡고 있다 보니 저절로 선두에 설 수 밖에 없었어요. 목 선생님은 제자들을 깊이 걱정하셨죠. 혹여 평생 굴레를 뒤집어쓰고 제대로 못 살까 봐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 속에 인연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졸업 후 동국대 부속학교에 소개시켜주신 것도 선생님이시고 큰아들 문수와 작은 아들 지수라는 이름도 선생님 작명 솜씨시지요. 선생님은 모든 것을 바쳐 전법에 나선 분이십니다.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목정배 교수는 암투병 말기에도 불교 발전을 위해 논단에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그 치열한 인생 중 마지막 대중법문도 김형중 교장이 교감으로 있던 동대부중 교직원 법회서 진행됐다. 가장 투철하게 불교정신으로 산 스승 밑에서 자연스럽게 김형중 교장도 불교를 지키고, 또 발전시키는데 매진하게 됐다.

불교지킴이로 나선 청년 김형중

김형중 교장에게는 또 다른 스승이 바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었다. 1993년 동국대 부속중 선생님으로 부임해 광진구 영화사로 인사 온 김형중 교장에게 월주 스님은 "불자들도 사회참여를 해야 한다"고 사회운동을 권했고, 김 교장은 스님의 권유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에 참여했다. 당시 35세에 최연소 상임집행위원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나섰다.

"그때 저는 교법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니 스님께서는 청소년들도 다 나중에 크면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불교도 '관념'이기 보다 '실천'을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보현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형중 교장이 이어 한 일이 바로 불교환경운동이었다.

"당시 경주 시내로 고속철도가 난다고 하니 불교계에서 모두 들고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또 금산사 앞에 청룡열차 놀이공원을 한다고 하니 안 된다고 반대운동을 하러 다녔죠. 서명을 받으러 불자들을 찾아다니는데, 데모 한번 안 해본 집사람도, 초등학생인 아들 둘도 같이 데리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때 머릿속에는 환경만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형중 교장은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 불교모임'을 구성하고 조계사에서 출범선언을 했다. 불교계 최초로 〈환경보존과 불교사상〉이란 불교환경 교재를 펴내고 이어 계간지 〈공해 없는 세상〉을 6회 발간했다.

"당시 리우에서 세계환경회담을 했는데, 월주 스님께서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는 꼭 이어가라고 하셔서 책임감을 갖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호법과 미래포교에 나서다

목정배 교수 정진에 깊은 감화
월주 스님 "실천이 중요" 가르침
다양한 불교NGO 활동 주도해
파라미타 · 청소년 문서포교 앞장

불교사회참여 활성화에 불교미래가

현재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는 김형중 교장의 동생인 동대부고의 김석중 선생이 사무총장을 맡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불교시민단체로서의 운동이 사실상 사그라진 지금은 두 형제가 사비로 이를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사찰, 기업에서도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운동을 펼치기에 시민단체로서는 파급력을 보이기가 어렵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많았던 불교NGO가 지금 모두 다 같은 상황입니다. 경불련 등 당시 많았던 NGO단체들이 소멸됐어요. 그래도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는 저도 직장이 있고, 동생도 있으니 어떻게든 명맥은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교법사로 교장으로 불교교육을 하는 것이 본분사지만, 그래도 불교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활동은 학교서도 펼쳐졌다. 김형중 교장은 학교에서 교법사로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연구소장 등을 맡아 청소년 파라미타 운동을 펼쳤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체험활동을 통해 심신을 함께 개발하는 운동이다.

특히 청소년 문서 포교에도 집중해 대한불교진흥원이 발간한 〈청소년 불교성전〉 편찬에 참여했고, 이후 불교교과서 편집위원, 집필위원 등으로도 나섰다.

불교사 바로 세우기 앞장

특히 김형중 교장은 1994년 동대부고에서 윤리를 가르치며 정부의 잘못된 시각에 일침을 놓게 된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 하위직 소임–소직(小職)

B5 문화 — 김양수 작가 日개인전

B6 학술 · 문화재 — 명상과 상담치료, 작용과 부작용

“인문학 활성화로 불교 발전에 여생을”



월주 스님은 김형중 교장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준 스승이었다.



김형중 교장은 남는 여생을 인문학으로서 불교가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가는데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김형중 교장은 불교역사 · 문화유산 · 한문 등을 망라하는 책을 다수 펴냈다.



불교환경운동 초기의 청정국토만들기운동 모습.

김형중 동대부여고 교장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한문교육을 전공했으며, 중국 연변대에서 〈휴정의 선시문학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국교법사단장, 동대부중 교감, 교육인적자원부 · 서울시교육청 교과서 심의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객원교수, 동대부여중 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상임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문학 · 미술평론가),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여고 교장으로 있다.

교법사로 전국교법사단장을 지냈으며, 불교계 최초로 윤리교과서의 불교 왜곡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및 시정, 다양한 저술을 통하여 청소년 문서포교, 교계환경 및 시민운동에 주력하여 청소년 불교환경교육에 이바지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 연구를 통하여 교과서 내용 오류 및 왜곡을 시정해 제14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가다〉, 〈시로 읽는 서산대사〉, 〈왕초보 한문박사 되다〉, 〈한글세대를 위한 한자공부〉 등이, 공동저서로 〈청소년 불교성전〉, 〈중고등학교 철학교과서〉 등이 있다.



김형중 교장은 1만권의 불서를 모으고 있다. 향후 불교문서 포교를 위해 이를 회향할 계획이다.

‘김형중 교장’ B1면에서 계속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내 불교 관련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종합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켜 검토 후 교육부가 문제점을 직접 시정명령하게 이른다.

“이후 계속해서 국사, 윤리, 국어 교과서에서 불교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 있는 걸 제기하고 있어요. 개선은 해오고 있는데 미흡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책이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가다〉입니다.”

김형중 교장이 펴낸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는 화제가 됐다. 불교에 대한 교과서에 실릴 만한 상식과 함께 세계문화유산과 민족의 역사를 이끈 고승 두 편으로 나뉘어 청소년들이 참고서처럼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 당시 서울대생인 아들 문수 씨가 조수 역할을 맡아 타이핑부터 윤문과 교정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결국 이 책은 2008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첫째 아들인 문수가 불교종립학교를 나왔고 평소에도 불교서적을 많이 읽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당시 목디스크가 심해 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수가 원고정리도 했죠. 당시 행정고시를 준비할 때인데, 고시공부 중에 불교관련 내용이 나오면 이를 반영한 시험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수능시험에는 어떤 불교관련 문제가 출제됐는지 등을 총정리해서 함께 실었고, 이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불심이 돈독하라고 문수보살, 지수보살에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 이름 덕을 본 듯합니다.”

김형중 교장은 현재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교과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 김 교장은 “이번에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청소년을 위한 우리불교사〉란 책이 나왔다. 불교계 실질적으로

불교인문 저변 확대 매진하다
교과서 불교 기술 오류 문제제기
수정 및 집필자 교재 편찬 성과
선시 연구 · 평론 새 장르도 개척
“교양 확대로 불교 위상 강화”

초 · 중 ·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 실릴만한 불교 내용이 매우 많다”며 “3년 전부터 연구소에서 교과서위원회를 구성했고, 종립학교 국사, 윤리, 사회 분야와 불자 교사들이 모여 세미나를 하고 내용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김형중 교장은 “교과서 집필자들을 위해서도 불교의 좋은 아름다운 사례와 이야기가 있으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교육부에서 〈고전과 윤리〉란 교과서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 안에 〈금강경〉이 들어가 있고, 지눌 스님의 〈수심결〉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서구 중심으로 칸트, 쇼펜하우어 등 서구철학과 사상만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학인 불교도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심결〉은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금강경〉이나 〈수심결〉을 접하면 궁금하고, 읽어보고 싶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등학생을 위한 금강경〉이 간행돼서 나옵니다. 다음에는 〈고등학생을 위한 수심결〉도 나올 겁니다.”

김형중 교장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불교계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선시 평론가로 나서다

김형중 교장은 불교계에 몇 안되는 선시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이력은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선시의 대가 무산 오현 스님과의 인연이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전 이병주 선생님이 지도교수이셨는데, 당시 서산대사의 청허당집 고판본 원본을 주면서, 연구 해보라고 하셨어요. ‘국문과 학생들은 불교를 몰라서 연구를 못하고 불교학자는 아마 가능할 것이다’ 는 말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선가귀감〉이 바래지도록 보고 어록도 보던 차에 중국 연변대로 가서 중국 고전문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휴정의 선시문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당시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오현 스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뭘 안다고 선시를 평가하냐’ 고 할만도 하지만 젊은 김형중 교장에게 오현 스님은 “꼭 필요한 걸 하고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형중 교장에겐 스님의 이런 격려가 큰 힘이 됐다.

“스님에게 〈심우도〉란 시집을 받았어요. 한글 선시집인데 선시가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도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한국선시의 시작이라면 오현 스님의 선시는 본격적인 한국선시의 문을 연 격이었죠.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연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후 김형중 교장은 오현 스님의 〈심우도〉 뿐 아니라, 오현 스님의 선시 평론을 제일 많이 했고, 스님의 열반 직후 문인들과 추모집 〈아득한 성자〉도 펴냈다.

김형중 교장은 “영결식 때 역시 오현 스님의 선시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쓴 배우식 선생과 처음으로 만났는데 의기 투합했다”고 소개했다.

인문학 발전으로 국민 교양 증대

김형중 교장은 선시에 대한 발전과 함께 인문학 저변 확대에도 불교계가 앞장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장은 “불교는 우리나라 역사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문화”라며 “불교는 자신의 인격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는 종교이기에 인성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결국 인생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목표라고 하면 역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살피는 것도 불교의 목표죠. 인성교육, 행복교육, 그리고 전통교육을 불교가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다양하게 불교문화를 접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교육은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학문과 융합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장은 불교계가 교구본사별로 종립학교 설립 운영에 나섰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형중 교장은 “은해사가 선덕고등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지방에 경영이 어려운 학교를 인수해 대안학교, 다문화학교 등으로 바꿔 불교가 사회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형중 교장은 ‘학교가 곧 법당’ 이라며 교법사 출신 교장으로서 ‘소통’ 과 ‘화합’ 으로 학교를 이끌어 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형중 교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30분가량 좌선 후 학교에 간다”며 “그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하면 저절로 보살심으로 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교는 인문학 자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불교문학, 선시문학 등 너무 그 내용이 많아요. 교양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적극 다가가야 합니다. 앞서 펴낸 세계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건축, 단청, 사경, 고려사경 등 주목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교양으로 쉽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게 저술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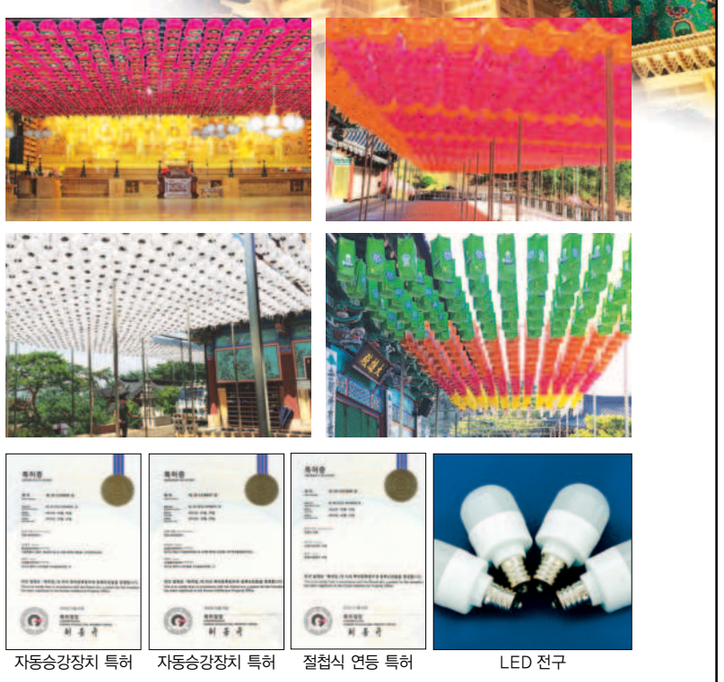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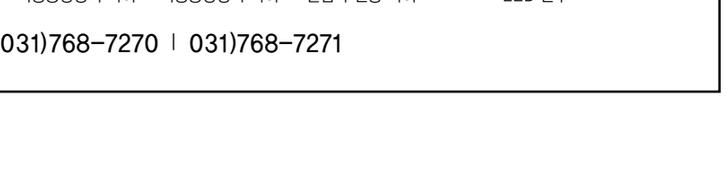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선원총림 살림하는 하위직 소임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⑳ 하위직 소임–소직(小職)


다두(茶頭)는 차를 끓이는 소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각(茶角)이라고 한다.

(1) 다두(茶頭)

다두(茶頭)는 차를 끓이는 소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각(茶角)이라고 한다. 다두는 승당(僧堂, 禪堂)의 다두를 지칭하지만, 그 밖에도 각 요사마다 다두가 있었다. 방장(주지실)의 다두, 수좌료(首座寮)의 다두, 유나료의 다두, 지객료의 다두, 고원(庫院)의 다두 등이 그것이다. '다반사(茶飯事)'라는 말처럼 중국 총림에서도 차를 우려 마시는 것은 일상이었다. 방장과 승당의 다두를 제외한 각 요사의 다두는 보통 행자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일컬어 '다두행자(茶頭行者)'라고 한다. 소임 끝에 붙어 있는 '두(頭)'자는 머리, 또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명사 뒤에 붙는 접미사로서 앞 글자를 명사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원두(園頭)

원두(園頭)는 채소밭을 관리하며 채소를 제 때 재배(栽培)해서 고원(庫院, 주방)에 공급해 주는 소임으로 원주(園主)라고도 한다. 〈칙수백장청규〉 '열직잡무(列職雜務)' 편에는 "원두는 근고(勤苦)를 아끼지 말고 몸으로 솔선해야 한다. 채소를 파종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을 주고 길러서 주방에 공급해야 한다. 채소가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원두는 우리나라의 농감(農監)과 같은 소임이다. 원두가 주로 재배하는 채소는 상추, 순무, 근대, 가지, 호박, 오이, 해바라기, 무, 장다리, 시금치, 난향(蘭香, 향신료의 일종), 결명자(決明子) 등이었다. 특히 결명자 씨앗은 간(肝)의 열(熱)을 내려서 눈을 밝게 하며 두통, 변비에도 좋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마두(磨頭)

마두(磨頭)는 마주(磨主)라고도 하는데, 정미(精米)·제분(製粉) 담당이다. 〈칙수백장청규〉에는 "마두는 반드시 도심(道心)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 쌀 한 알, 곡식 한 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마두 밑에 여러 명의 마두행자가 있는데, 그 유명한 6조 혜능 선사도 행자 시절(노행자)에 8개월 동안 이 일을 했다고 한다. 혜능 선사가 방앗간에서 디딜방아로 쌀을 찧는 장면은 사찰의 벽화에도 나온다.

선원총림에는 직영 정미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마원(磨院)'이라고 한다. 정미(精米)나 제분(製粉)은 주로 연애(碾磑, 맷돌)라고 하는 큰 맷돌을 사용했는데, 말이나 당나귀가 돌리는 육연애(陸碾磑)와 물방아를 이용하는 수연애(水碾磑)가 있었다. 당대(唐代)는 주로 물을 이용하는 수연애를 사용했고, 송대에는 육연애를 사용했다. 수연애는 속도가 느리고, 육연애는 속도와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수두(水頭)

수두(水頭)는 세면장 물 공급, 세면장 청소 관리를 담당하는 소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새벽 기상 때에 사용하는 온수를 끓여서 공급하는 일이었다. 〈칙수백장청규〉 '열직잡무' 편에는 "반드시 오경(4시)에 탕(더운 물)을 끓여서 대중의 세수, 양치물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아약(牙藥, 치약), 수건(手巾), 면분(面盆, 세숫대야) 등도 항상 갖추어 두고, 또 겨울에는 수건을 잘 말려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5) 노두(爐頭): 노두(爐頭)는 승당(선당)의 화롯불 담당자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당송시대 강남의 선종 사원의 승당은 모두 마루(장련상)였다. 온돌방은 우리나라에만 있다. 여름에는 상관없지만 겨울이 되면 냉기가 돌아 화로를 피워 냉기를 제거했다.

화로는 승당 한 가운데를 조금 파고 설치한다. 연료는 숯(炭)이다. 가을에는 음력 10월 1일에 설치하여 다음 해 2월 1일에 철수한다. 화로를 설치하는 것을 개로(開爐)라고 하고 철거하는 것을 폐로(閉爐)라고 하는데, 설치하고 나서는 방장으로부터 법문을 듣는다. 개로한 후에 듣는 법문을 개로상당(開爐上堂), 철거한 이후에 듣는 법문을 폐로상당(閉爐上堂)이라고 한다.

(6) 탄두(炭頭): 탄두는 숯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소임인데 숯은 겨울철에 화로(火爐)·난로(煖爐)와 차를 달이는 데 사용했다. 청규에서 "노두(爐頭)와 탄두 이 두 소임은 서로 조화가 잘 되는 사람으로 택하라."고 당부하고 있듯이, 화롯불 담당인 노두와 숯 담당인 탄두는 떼려도 뗄 수 없는 사이이다.

(7) 화두(火頭): 화두는 부엌에서 공양주가 공양을 지을 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을 맡은 소임이다. 〈선원청규〉 9권 작무제삼(作務第三)에는 "화두는 불을 지핌에 항상 긴만(緊慢, 화력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불 조절을 잘해 주어야만 맛있는 공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대(火臺)는 주로 각 방에 불을 때는 소임이다.

'두(頭)' 자는 접미사 용도
소임과 존칭 잘 구별해야

(8) 욕두(浴頭): 욕두는 목욕탕을 관리하는 지욕(知浴)이나 욕주(浴主) 밑에서 잡무를 돕는 행자를 말한다. 지욕이나 욕주는 6두수의 일원으로서 상위직이고 욕두는 하위직이다.

(9) 등두(燈頭): 등두는 등불과 등유(燈油) 등을 맡은 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등(明燈)이라고 한다. 주로 장명등, 무진등 등 불전(佛殿)이나 대중전 등 전각 앞에 등불을 관리한다.

(10) 시두(柴頭): 시두(柴頭)는 땔나무를 공급·관리하는 소임이다.

(11) 반두(飯頭)·공두(供頭)·공사(供司)·공양주(供養主): 위의 4가지는 명칭만 다를 뿐 모두 부엌에서 밥을 짓는 소임이다.

(12) 채두(菜頭): 반찬 등 부식물을 만드는 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채공(菜供)이라고 한다.

(13) 종두(鐘頭): 조석 예불 및 법회 등이 있을 때 종을 치는 소임이다.

(14) 정두(淨頭): 동사(東司), 즉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소임으로 지정(持淨)이라고도 한다.

(15) 마호(磨糊): 빨래에 먹이는 풀을 쑤는 일을 담당하는 소임이다. 어떤 책에서는 마호를 마두(磨頭)라고 한 곳도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마두는 정미소 담당이다.

(16) 정인(淨人): 정인(淨人)은 속인으로 절에 살면서 부목(負木) 등 잡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원래 정인(淨人)이란 인도불교 계율에서 나온 것으로, 비구는 농사도 못 짓고, 땅도 못 파고, 나무 하나도 베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곤충 등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대신 해 주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데, 사찰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지칭한다. 요즘 종무원들도 모두 정인에 속한다.

〈최근 우리나라 선원의 새로운 소임〉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에는 선덕(禪德)·선백(禪伯)·선현(禪賢), 한주(閒主), 열중(悅衆), 청중(淸衆)이라는 소임이 있다. 그런데 〈선원청규〉·〈칙수백장청규〉 등 청규에는 열중(悅衆)만 있고 나머지 소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열중을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소임 명칭이 아니고 존칭이다. 선어록 등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선덕(禪德)은 소임명이 아니고 선원의 대중들을 높여 부르는 말[존칭]이다. 우리말로는 '여러분' 혹은 '대덕스님' 정도가 될 것이다. 그 한 예를 보도록 하겠다.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질문했다. "도인들끼리 서로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주 선사가 말했다. "칠기(漆器)를 드린다." 이것을 두고 설두중현이 말했다. "여러 선덕(禪德)들이여, 조주의 뜻을 알겠습니까? 나와서 모두 함께 헤아려 봅시다. 만약 분명하게 가리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거론해 보시오. 그러면 그대를 점검해 주리다. 49는 36이오."(〈禪林類聚〉 17권. "趙州諗禪師, 僧問. 道人相見時如何. 師云, 呈漆器. 雪竇顯云. 諸禪德, 還有識趙州底麼. 出來相共商量. 若未能辨明, 大好從頭擧. 與秤點破. 四九三十六."(신찬속장경 67권 p.101a)

선백(禪伯) 역시 도(道)를 갖춘 스님에 대한 존칭(有道僧人的尊称)이다. 백(伯)은 '어른' '가장 우두머리' 등의 뜻이다. 맏형님을 백씨(伯氏)라고도 한다. 이백의 시에는 "宗英乃禪伯(종영은 곧 선백이다)" "西菴禪伯迍多病(서암 선백은 병이 많다)" 등의 문구가 많이 나온다. 여기서 '선백(禪伯)'은 모두 존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려 보조국사 '정혜결사문'에도 "1188년 득재 선백(得才禪伯)의 초청으로 공산 거주사에서 합류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선백은 소임이 아니고 덕이 높은 구참납자에 대한 존칭이다.

선현(禪賢) 역시 존칭일 뿐, 청규에는 그런 소임은 없다. 법명으로 사용된 경우는 있는데 지공선사(志空禪賢)이다. 한주(閒/閑主)는 한가하게 있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뜻인데, 이 역시 〈칙수백장청규〉등 청규에는 없는 소임이다. 이 역시 소임이라기보다는 무위자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스님에 대한 존칭이나 덕담의 하나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선원에서는 '선덕(禪德)·선백(禪伯)·선현(禪賢), 한주(閒主)'가 소임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상방에 올라가 있는데, 어느 선원의 스님으로부터 "선덕(禪德)과 선현(禪賢) 가운데 어떤 소임이 더 상위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두 명칭이 청규에서 소임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상위 소임이라는 자료가 없다. 선원장스님이 정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다. 덕망 있는 스님에 대한 존칭일 뿐 청규에는 없는 소임이다.

다음은 열중(悅衆)과 청중(淸衆)이 있는데, 열중은 유나의 중국 명칭이다. '유나(維那)'라는 말은 법도(法度)를 뜻하는 강유(綱維, 三綱·四維)에서 '유(維)'와 범어 갈마타나(羯磨陀那, 일을 지시하다)에서 '나(那)'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이를테면 중인(中印)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열중은 곧 유나이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 '유나' 장(章)에는 "범어로는 유나, 우리나라(중국)에서는 열중(悅衆)이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중(淸衆)은 소임 명칭이 아니다. 청중은 '청정한 선원의 대중', 즉 청정대해중(淸淨大海衆, 청정한 대해 같은 대중)의 준말이다. 흔히 승당(선당)의 대중을 가리켜서 청중(淸衆)이라고 한다. 만일 꼭 소임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미상에서는 열중이나 유나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 근대에 용상방을 보면 선덕(禪德)·선백(禪伯)·선화(禪和)라는 소임이 있었다. 조선 중기 〈작법규감〉 용상방에는 선덕(禪德)·선백(禪伯) 등의 소임명이 나오고 있는데, 차례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證明·會主·秉法·衆首·禪德·禪伯·禪和·持殿·察衆·維那" 등이다. 위계(位階)는 선덕(禪德)·선백(禪伯)·선화(禪和) 순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선덕(禪德)·선백(禪伯)이 소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른다면 선백보다는 선덕이 상위소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덕과 선백은 1928년에 발행된 〈조선승려(修禪提要)〉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선덕과 선백은 우리나라에서는 존칭 겸 용상방 소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선현(禪賢)은 없다.

〈민족사 대표〉





“깨달음이란… 지혜와 자비로 중생 사랑하는 것”



한국사회와 불교 그 미래를 조망하다

정념 스님/한상권 지음/민족사 펴냄/1만 6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정념 스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승으로서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한국 사회 전반을 통찰 점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사진은 공동 저자인 한상권 KBS 아나운서(사진 왼쪽)와 정념 스님이 월정사 경내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정념 스님과 한상권 KBS 아나운서 대담집
한국사회와 불교를 진단하고 그 대안 제시
“자신 욕망 성찰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
마음치유, 탈종교 시대에 불교가 해야할 역할



정념 스님



한상권

이 책은 이사(理事)를 겸비한 우리 시대의 선승(禪僧) 퇴우 정념 스님(오대산 월정사 주지)과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로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한상권 KBS 아나운서의 대담집이다.

정념 스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승으로서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한국 사회 전반을 통찰 점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책의 공동 저자인 한상권 KBS 아나운서는 인생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종교는 꼭 필요한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이 책의 깊이를 더했다.

정념 스님은 책속에서 인간과 자연, 신과 인간, 보수와 진보, 남과 북, 너와 나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가치관으로는 이 세상의 반목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재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경문제도 그렇다. 성장제일주의 사회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공해 배출, 물질 만능의 대량생산과 소비지향의 삶이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지구촌에 환경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정념 스님은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아울러 종교적 동력에 의한 실천을 통해서만 현대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불교의 연기적(緣起的) 세계관으로의 인식 전환,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점차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가와 시민단체의 대국민적 계몽운동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종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념 스님은 법회 때는 물론이고 사석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의식의 결과물이 바로 이 책 〈한국사회와 불교 그 미래를 조망하다〉 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우린 어떤 삶을 좋은 삶, 행복한 삶이라 여기는 것일까?

정념 스님은 행복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출세와 명예, 부를 쫓아다니며 사는 삶은 자기가 없는 삶이라고 말한다. 대신 기쁨과 슬픔, 낙(樂)과 고(苦)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므로,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신념을 가지고 매진하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허상을 좇느라 매일 노심초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정념 스님은 쓸데없는 걱정과 욕망 추구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기와 타인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 거창한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한 가지씩이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매일 하라는 것이다. 정념 스님은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만큼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념 스님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다. 한 번도 가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미지의 세계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다. 정념 스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하고, 모든 것을 환경과 세상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당연한 말을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다. 대부분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세상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과 나를 분리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나 자신의 욕망도 기여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기는 힘들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세상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비난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타자와 세상을 향하는 분노를 돌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내 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점검하라는 얘기다.

정념 스님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최악의 적은 아집과 고집으로 뭉쳐진 ‘에고(ego, 自我)’라고 말한다. 에고가 강하면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큰 상처를 받는다. 출세욕, 사치, 허영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별 것 아닌 것에도 분노하고 괴로워하게 된다.

이런 에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상과 마음 수행이다.

힐링은 상처 난 마음을 회복시키고 정신적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념 스님은 이렇게 정신을 치유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힐링 문화를 불교가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서양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명상법을 봐도 실상은 불교의 수행법들에서 차용한 경우가 많다. 한국불교는 이미 1600년 역사의 전통을 갖고 있다. 정념 스님은 이런 유구한 전통을 바탕으로 불교의 수행법을 현대에 맞게,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념 스님은 특히 참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선(禪)이 복잡한 삶 · 마음을 해체시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참선을 통해 정신의 휴식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면적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끊임없이 실체 없는 대상에 쫓기는 삶, 스마트폰에 쫓기고, 매스미디어에 쫓기는 삶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정념 스님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오대산에 현대인에게 필요한 휴식 공간,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바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이다. 스님은 이곳을 명상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시대에 맞는 수행마을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한다.

요컨대 불교가 추구하는 힐링은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를 통한 힐링이고, 탐진치를 극복한 힐링이며,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락을 지향하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힐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때 비로소 ‘불교 힐링’이 된다. 정념 스님은 이런 불교 힐링 문화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선두에 서서 불교의 시대적 역할에 크게 이바지한다.

정념 스님은 앞으로 종교는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마음을 치유하고 고통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교시설을 시민들의 휴식처, 안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종교인들은 명상을 지도해 주는 스승이자 의사, 상담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탈종교 시대’에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본다.

불교는 ‘마음의 구조’ 등 ‘마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종교보다도 깊고, 오랜 탐구 성과를 갖고 있다. 스님은 마음 수행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교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정념 스님은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여, ‘헌신 없는 종교’는 사회악의 하나라고 규정한다.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종교인의 옷을 벗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종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종교인들로 인해 종교가 더욱 세속화되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서 멀어지도록 한, 즉 탈종교화 현상을 불러온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쓴 목소리를 낸다. 스님은 불교의 신도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위기의식 속에서 불교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퇴우 정념 스님은?

1980년 탄허 큰스님 전법 제자인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계했다. 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오대산 상원사 주지를 맡아서 대중교화를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제4교구 본사인 오대산 월정사를 이끌면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재정립중이다. 참선 수행을 중시하는 스님은 한암 스님의 자취가 서린 상원사 청량선원을 복원하였고, 2008년에는 월정사에 만월선원을 개원했으며, 또 일반인을 위해서 문수선원과 동림선원을 개원하여 오대산을 새로운 ‘선종산문’으로 만들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동국대 이사, 불교 TV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거나 맡아서 한국불교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상권은?

동국대 신문방송대학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KBS 한국방송 공사 21기로 입사했다. 제16대 KBS 아나운서협회 회장(2011년 1월~2012년 12월), KBS 아나운서실 아나운서2부장(2014년 8월~2015년 12월),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 연구부장(2017년 8월~2018년 4월) 역임, 2014년 제41회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을 수상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사의 수행과 사상!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선사의 수행체험에서 우러나온 독특한 관법수행이 지닌 내용과 특징을 기존의 전통적인 불교수행법들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청강 지음/신국판 양장/312쪽/값 17,000원

대승불교의 정수이자 교과서!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그러면서도 『기신론 소별기』의 정수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양장/392쪽/값 20,000원

불교학과 교육학의 만남!
불교교육론



초기불교 및 남방불교의 교리 및 수행을 집약한 『청정도론』을 교육학 이론과 접목시켜 최상의 교육이론으로서 불교교육이론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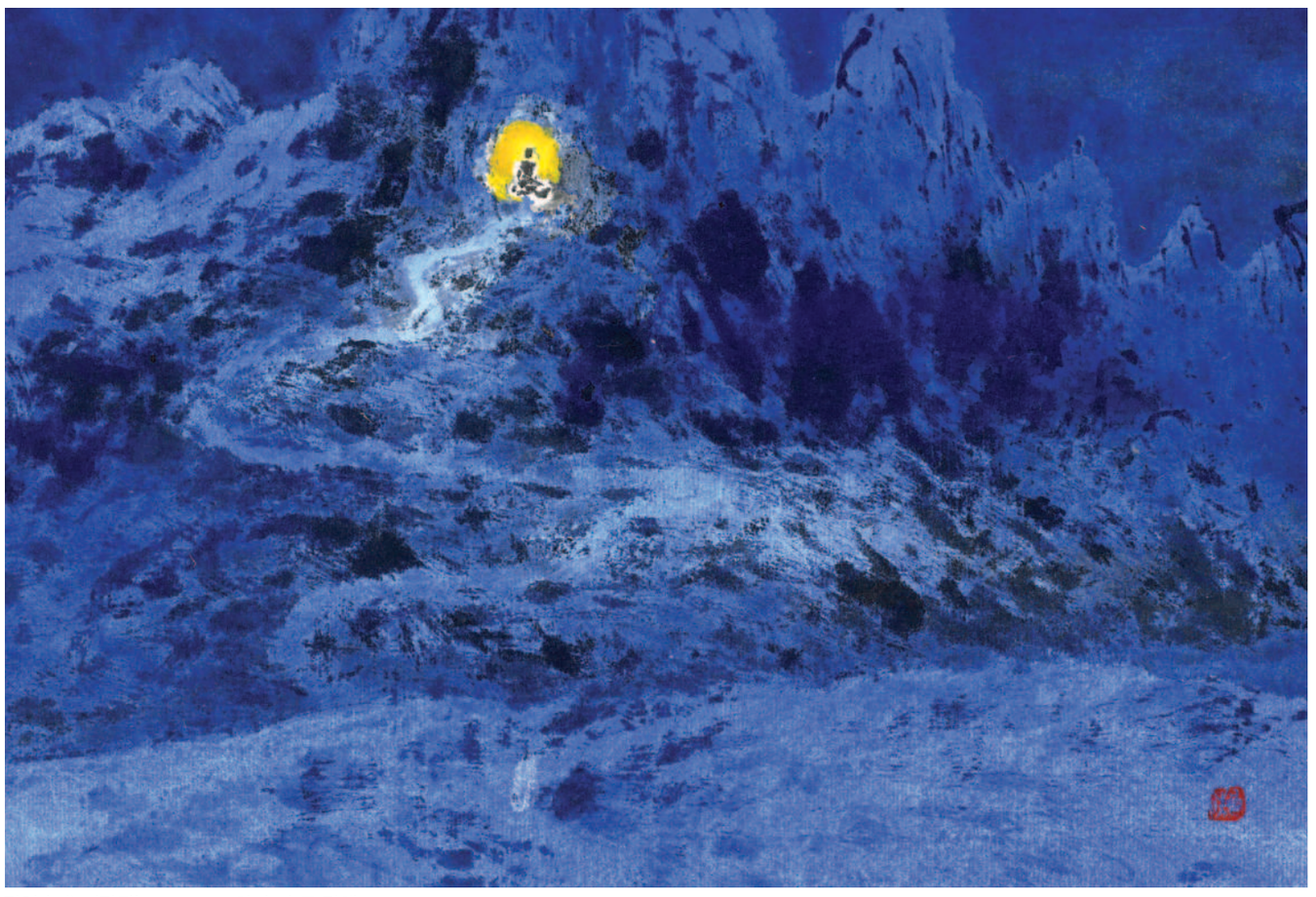
이송곤 지음/신국판 양장/528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수묵으로 그려낸 생명의 바탕과 근원

김양수
'물길 따라 갔더니 꽃 피었더라' 展
일본 오카자키시립미술관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양수 作, '정진'. 22×34㎝ 한지, 수묵 담채.

한국화가 김양수 화백이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나고야 동부 아이치현에 소재한 오카자키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 '물길 따라 갔더니 꽃 피었더라'를 개최한다.

그 동안 한국적인 풍경을 소재로 선적인 세계를 특유의 수묵담채로 그려왔던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역시 먹과 종이라는 재료적인 바탕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인 생명의 바탕과 근원을 특유의 감성으로 그려낸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서정시인 이성신 등 여러 시인과 함께 많은 시화전을 열어온 김 화백은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화집 〈내 속 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 등 4권의 시화집을 펴내기도 했던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도 작품에 그의 시가 함께 한다.

"비탈진 산허리에 올라 / 안골에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보며 / 가려진 세상을 그려보겠다던 / 유년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 깊은 꿈에 취해 드넓은 세상을 / 하염없이 떠돌아 다시 돌아온 고향은 / 산도 바다도 가슴에 있었다. / 아침이면 맑은 빛 온몸을 흔들어 깨우고 / 저녁이면 묵향에 젖은 어둠이 나를 재운다 / 한 자루 붓으로 / 세상에 한 획을 그었던 / 소치 허련 선생이 50세 고향으로 돌아와 / 가슴에 품은 예술을 불태운 자리 / 그 혼불의 언저리에서 나 또한 뜨거운 꿈을 꾼다 / 오늘도 여귀산 바람은 / 대숲에 아득한 길을 만들고 / 길 끝머리에 이름 없는 들꽃과 조우하듯 / 먹물 한 점 삼킨 달빛에 걸린 나를 만난다"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1807~1892)이 스승인 추사 김정희(1786~1856)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다음해 1857년 50세에 고향 진도에 내려와 '운림산방(雲林山房)'이라는 화실을 열어 작업에 전념했던 역사를 헤아린 김 화백은 올해 자신의 고향인 진도에 내려가 '적염산방(寂拈山房)'이라는 화실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서 김 화백은 재료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성을 추슬러가는 의식 담겨있다. 김 화백은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보는 그림의 한계를 넘어 소리가 들려오고 향기가 느껴지고 자연의 숨결이 만져지는 입체적인 그림을 추구한다. 김 화백은 그 동안 그림을 통하여 선과 명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명상화법'으로 국내외에 갤러리에서 많은 초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김 화백은 그림으로 시를 그리는 보편적인 시화전의 그림이 아닌 그림으로 시를 쓰는 역설적인 의식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가 열리는 일본의 오카자키시립미술관은 나고야 동부에 있는 아이치현에 있는 미술관이다. 아이치현은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태어난 곳으로 일본의 역사적 유물이 많은 곳이다. 아이치현 오하라마을은 610년 무렵 우리나라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종이 제조법을 전한 이후 15세기 메이오시대부터 일본의 대표적인 종이인 화지(和紙)를 생산해온 마을이다.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종이 공예가인 무사시노 후지 다스키치(1881~1964 · 무사시노대학) 교수가 종이에 꽃잎과 나뭇잎 등의 자연물을 넣은 '종이뜨기법'을 개발하여 오하라공예지의 산지가 된 곳이다. 이와 같이 일본 종이마을로 유명한 아이치현의 오카자키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화가 김양수의 개인전은 또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전해진 종이 제조법의 오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장소에서 한국화의 깊은 감성을 담은 김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는 까닭이다. 이번 전시는 아이치현에서 '한국의 바람'이라는 문화단체를 이끌고 있는 일본인 '오야 미쓰오' 씨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야 미쓰오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끌려 여러 차례 국악인 초청공연 등을 주선한 바 있다.

김양수 화백은 동국대학교 미술학부와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중앙미술학원에서 벽화를 전공했다. 신문과 잡지 등에 글과 그림을 연재하거나 지닝들의 책, 곧 이성신의 시집 〈산〉과 진옥 스님의 시집 〈그대, 그대는 낮아서 높습니다〉에 그림을 그려 시화집을 함께 내기도 했다. 국내외 주요 갤러리에서 9회의 초대전과 29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일본 0564-51-4280.

전통 · 현대 어우러진 사경

야납 행오 사경전, 아라아트 갤러리
10월 31일부터 11월 6일


〈묘법연화경〉 전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법신사리를 회향하는 사경전이 열린다. 서예 32년, 사경 20년에 걸쳐 수행과 예술로서의 사경불사를 해온 행오 스님(길상암 주지)이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 갤러리에서 '야납 행오 사경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묘법연화경〉 권 제1~권 제7(감지 백금니. 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 7점(감지 금니), 한글 〈금강반야바라밀경〉(흑지 백금니. 금니),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 (감지 백금니. 금니), 〈관세음보살보문품〉 (감지 금니), 〈관세음보살도+관세음보살보문품 게송구〉 (색지 금니), 한문 금니 〈금강경〉 8폭 병풍 등 행오 스님이 지난 20여 년간 사경한 작품 총 50여 점이 전시된다.

고려 전통사경의 양식과 기법을 계승하고 여기에 창의성을 가미하여 8년에 걸쳐 〈묘법연화경〉전 7권을 한글 번역본의 경문 13만여 자를 6mm 크기의 세자(한글 궁체)로 정직하게 사경하고 변상도(권 제1~7)를 장엄했으며, 현대 사경의 나아갈 길을 고심하여 새로운 표지장엄과 다양한 재료(백금분 사용)를 사용하여 장엄한 〈금강경〉 등을 선보이며, 〈묘법연화경〉 전 7권을 한글 번역본으로 사경한 것은 국내 최초이다.

행오 스님은 권창륜 서예가로부터 서예를 공부했고, 김경호 문하에서 연세대 사회교육원 서예지도과정, 사경계승자과정(3년)을 수료했다. BTN 불교TV 문화센터 전통사경 지도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길상암 사경연구회에서 사경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사경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0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개인전을 비롯해 3회의 개인전과 2011, 201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 초대 출품 등 4차례 회원전 출품, 2007년 서예문화대전 우수상(사경부문 최고상) 등을 수상했다. 2011년 서예문화대전 사경 부문 등의 심사를 맡았다. (02)922-4337.

박재완 기자

국립대구박물관 고려건국 1100주년 테마 전시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 개최
10월 23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금강사터 출토 대표 유물.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18년 10월 23일(화)부터 2019년 2월 24일(일)까지 테마전시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 전을 개최한다.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금광리 유적에서 찾은 고려시대 사찰 금강사지에서 출토된 광명대 등 고려시대에 제작된 출토품 34점을 선보인다.

금강사의 존재가 밝혀진 영주시 금광리 일대는 영주댐 건설이 시작되면서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금광리 유적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조성된 생활, 생산, 사찰 유적 등 675기에 달하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고려시대 우물에서 출토된 광면대의 명문을 통해 '금강사'라는 사찰의 존재가 밝혀졌다.

금광리는 영주댐의 건설로 수몰되어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의 정보는 고려시대 지방사 연구에 있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사찰인 금강사에 주목한 것으로 고려시대 지방사에서 불교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다. (053)768-6051~2.

박재완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장애, 수행 방해물이자 발전 토대”

정준영 교수, 20일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술대회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수행은 장애를 수반한다. 수행을 통해 나타나는 장애가 단순히 방해물만이 아니라 발전의 토대가 되며,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10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명상과 상담치료, 작용과 부작용’을 주제로 열린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준영 교수는 ‘장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연구’ 발표에서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분석하고 장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폈다.

그에 따르면 사마타 수행에서 오장애의 제거를 도왔던 선지들은 더 높은 선정으로 오르기 위해 장애가 되고, 선정 또한 상수멸정까지 상승하며 구신의 삼행도 중지된다.

정준영 교수는 “집중의 순기능이었던 삼행이 사마타의 상승구조 안에서 모두 장애가 된다”면서 “장애는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위빠사나 수행에서도 도와 비도의 지견청정에서 나타나는 심관수염은 장애이지만, 이를 칠각지와 비교했을 때 많은

사마타 · 위빠사나 장애 분석

좋은 요소도 집착하면 번뇌

단순히 역기능 한정은 문제

장애 기능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 프로그램 수행자 괴롭혀

요소들이 같거나 유사하다. 번뇌와 각지는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의 특유한 성질이 아니라 이들을 활용하는 수행자의 태도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준영 교수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얻은 특별한 현상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10월 20일 ‘명상과 상담치료, 작용과 부작용’을 주제로 열린 중앙승가대 대학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에 집착하면 장애”라면서 “장애를 단순히 수행의 역기능적 작용에 한정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대로 장애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대중프로그램들이 수행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정준영 교수는 “장애의 성질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은 장애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두려움이나 위험 등 부정적인 정서는 역기능적 정서지만, 소멸이라는 현상과 비교할 때는 높은 단계의 체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는 수행의 방해물인 동시에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장애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와 수행자 개인의 수준을 배려하지 않는 대중 프로그램이 수행자를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명상, 힐링인가 레저인가’를, 박상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자아의 확립과 초월의 상관관계’를,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인경 스님은 ‘심리치료의 치유적 기능과 그 한계’를, 김종우 경희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의 명상’을 각각 발표했다.

문정왕후 발원 ‘회암사 약사삼존도’ 보물된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문정왕후가 아들 명종의 만수무강을 위해 조성한 400여 불화 중 하나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조선시대 불상 · 경전 4건도

조선 문정왕후(1501~1565)가 아들 명종의 만수무강을 위해 제작한 불화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6세기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를 비롯해 조선 시대 불교 조각과 고려 · 조선 시대 불교경전 등 4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1565년(명종 20년) 중종 계비 문정왕후가 아들인 명종(明宗)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400점의 불화 중 하나로, 경기도 양주 회암사(檜巖寺)의 중창에 맞춰 조성된 것이다.

회암사의 대대적인 불화 조성을 추진한 문정왕후는 많은 불사(佛事)를 추진한 불교 후원자였고 회암사는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은 승려 보우의 활동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번창했다. 이후 쇠퇴해 19세기 초 폐사지가 되었고, 지금은 ‘회암사지(檜巖寺址)’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128호로 지정돼 있다.

이 불화는 가운데 본존인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 월광보살(月光菩薩), 오른쪽에 일광보살(日光菩薩)을 배치한 간략한 구도로, 금니로 그려 매우 화려하고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준다. 주존불과 보살 간에 엄격한 위계를 두어 고려불화의 전통을 따랐고 갸름한 신체와 작은 이목구비 등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당시 제작된 총 400점의 불화는 대부분 흩어져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에 총 6점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사여래삼존도’만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조선 시대 최대 규모 왕실 불사 회암사에서 제작한 역사적, 불교사적으로 상징성이 높은 작품”이라며 “조선 전기 왕실불교 부흥에 영향을 끼친 왕실 여성들의 활동과 궁중화원이 제작한 불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다”고 지정 예고 이유를 밝혔다.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565년(명종 20년)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 · 시왕 · 판관 · 사자 등 19구로 이루어진 대단위 불상군이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조각 중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조각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지장보살상의 경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半跏) 자세를 취하고 있어 희소성과 조형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는 불교의 경전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중 각각 권3과 권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권3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판본(版本) 중 하나로, 1352년(공민왕 1년)에 간행됐다는 보물 제875호의 말미에 있는 기록을 통해 권3 역시 이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권5는 조선 초기에 사용된 구결(口訣)이 표시돼 서지학 ·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세계 티베트어 번역 성과 살핀다

동국대 티베트대장경 역경원, 11월 2일 심포지엄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 역경원(원장 진옥)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교내 백주년기념관 5층 세미나실에서 ‘2018 하반기 초청 강연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국제 불교 대학원 대학교 교수인 사이토 아키라 前도쿄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바웃다코샤(불교 용어의 용례집)프로젝트’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사론’ 5위 75법의 현대 번역어 선정 과정에 대한 강연회가 진행된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와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강연자와 함께 ‘구사론’ 5위 75법에 수록된 불교 용어의 현대어 번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진다.

‘바웃다코샤 프로젝트’는 불교 용어의 현대어 번역을 위해 일본의 불교학자들을 총망라했으며, 가장 먼저 불교용어의 기본이 되는 ‘구사론’의 5위 75법의 용어를 범어, 한역, 티벳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현대어(일역 및 영역)로 번역했다.

티베트대장경 역경원장 진옥스님은 “불교 용어의 현대적 번역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채택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일본은 한자문화권이면서도 자국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한 토대에서 선행된 불교 용어의 현대어 번역에 대한 연구는 쉬운 한글 술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번역어를 채택하려는 본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수덕사 본말사 성보의 ‘모든 것’

덕숭총림 수덕사, 11월 3일 학술대회

덕숭총림 수덕사와 말사들의 성보 문화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수덕사(주지 정묵)는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덕숭산 수덕사 본말사의 성보문화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주관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가 맡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이 ‘수덕사 소조여래좌상 복장 전적류 고찰’을,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의 연구’를, 김요정 충북대 초빙교수가 ‘수덕사 소조삼존불상의 수종과 연륜연대 분석’을 발표한다.

또한 최은령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서산 일락사 금동여래좌상 연구’를, 이승기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 · 김지혜 수덕사 근역성보관 학예연구사가 ‘당진 성당사 제석천도 연구’를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무아와 자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불교학연구회 11월 10일 추계학술대회

무아와 자아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1월 10일 오전 8시 30분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에서 ‘무아와 자아,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임승택 경북대 교수가 ‘실천적 무아와 형이상학적 무아’를,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유식학의 법무아 해석과 여래장 사상’을, 정상교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원이 ‘두루 존재하는 자아를 둘러싼 붓다팔리타 · 바비베카 · 찬들키르티의 논쟁’을, 박보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가 ‘초기 화엄종의 여래장 이해’를, 최경아 동국대 외래교수가 ‘부파불교에서의 자아와 무아, 그 오해와 진실’을, 박재현 동명대 교수가 ‘입전수수하는 자, 그는 누구인가- 소그림을 통해본 선의 자아관’을 발표했다.

논평자로는 안환기(서울대), 우동필(전남대), 남수영(동국대), 양승규(동국대 경주), 고승학(금강대), 조윤경(동국대), 이태승(위덕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박재완의 PhotoEssay



계절의 힘

피었던 것들은 지기 시작하고
이름 있는 것들은 모두 자신의 이름 앞에 선다
적적하고, 아프고, 시리고, 미어지고
나무가 마른 가지를 드러내고
새들은 더 멀리 울어야 하고
'무정' 이라 이름 지어진 것들의 이름에도
찬바람은 불어서 기어이 길은 또 어려워져
만났던 것들이 그 길 위에서 이별을 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과 멀리 있는 것들 사이에서
해는 또 저문다
이 별도 어제 보단 작아졌으리
하물며 나의 이름쯤이야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⑬ 중풍은 왜 생기나?

중풍 원인은 열·기막힘·찬 기운·과로

중풍(中風)은 '바람에 맞은' 병이다. 그런데 밖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몸속의 바람에 맞은 것이다. 그래서 중풍을 속바람, 즉 '내풍(內風)'이라고 한다. 몸속에선 바람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열기가 많아져서 열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적도 부근에 열에너지가 많아져서 태풍(颱風)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풍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열(熱)'이다. 물론 그 열이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으로써 머리와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워진다면 중풍이 올 위험이 커진다고 보면 된다. 풍 기운이 있다는 것은 열이 머리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는 신장의 음기와 양기가 부족해서 풍 기운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정기 허약이 중풍의 근본 원인이다.

중풍의 근본 원인은 노화로 인한 정기 허약

중풍은 중년기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정기가 허약해진 탓으로 특히 신장의 정기가 허약해진 것 때문이다. 신장의 음기가 부족해져 간장의 양기가 항진되어서 열이 머리로 올라 풍 기운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신장의 정기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쇠약해지게 되는데다, 과로하거나 성생활을 과다하게 하거나, 오래도록 만성 질병을 앓은 경우에 허약해진다. 또한 겨울의 찬바람이나 건조한 기후에 오래 노출된 경우에 신장의 기가 상하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허약한 체질을 타고나는 경우도 있다.

중풍 원인 중 추위도 연관 많아

중풍은 주로 찬바람이 불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의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찬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도 부담이 와서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 중풍이 잘 생기는 것으로 설명한다. 한의학에서도 갑자기 찬 기운이 몸에 들어와서 혈맥의 운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교적 겨울철에 많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 서서히 추워지는 날씨보다는 갑자기 추워질 때 많이 발생하고, 또한 초봄에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질 때도 잘 발생한다.

그렇지만 갑자기 추워지거나 춥다가 갑자기 따뜻하게 풀리는 기후 변화는 중풍을 유발하는 촉진인자이고, 주된 원인은 정기가 허약해진 것이다. 그래서 중풍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여름 중풍도 많은데, 12월, 1월보다 7월에 중풍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혈관이 팽창하면서 혈류속도가 떨어져 혈액공급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도 중풍의 원인

TV 드라마에 흥분하거나 화를 내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다. 화내는 것이 머리에 압력과 열을 오르게 하여 중풍이 온 것이다. 흔히 '기막힌 일을 당했다', '기가 막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에 정도가 심하면 중풍이 오기 마련이다. 기가 통하지 않으면 혈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억지로 참고 지내는 바람에 속을 끓여서 가슴에 쌓인 경우에도 중풍이 생겨나기 쉽다. 근심, 걱정이나 생각이 많아 기를 맺히게 하여 기의 소통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다.



혈압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중풍 발생률이 4-6배나 높다.

가족력, 고혈압 환자 등 주의
비만 · 과로 · 흥분 등도 원인

그밖에도 중풍의 원인은?

나쁜 생활 습관이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술, 담배를 즐기면 몸속에 습기와 담이 쌓이고 결국 열이 생겨나 중풍이 유발된다. 그래서 모든 한의서에 비만한 사람이 중풍에 잘 걸린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과로도 원인이다. 나이가 들거나 병을 앓은 후 기력이 약해져서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진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면 몸속의 물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불기운이 위로 상승하여 중풍을 일으킨다. 물론 노인이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고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에도 기와 혈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혈맥이 막혀서 중풍이 생겨난다. 정리해 보면 중풍의 유발 원인은 열, 기막힘, 찬 기운, 과로 등이다.

어떤 사람에게 중풍이 잘 올까?

우선 가족력이 있는 경우로 부모, 조부모 등이 중풍을 맞은 적이 있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부정맥 등을 가진 경우이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중풍 발생률이 4-6배나 높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2-3배,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2배나 높다. 아울러 뇌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중에 담배가 있으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발생률이 4-6배나 높다.

중풍은 성격이 급하고 잘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잘 온다. 성냄, 놀람, 불안, 초조, 욕심 등은 자율신경계 중의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중풍이 유발되기 쉽다.

비만하면서 열이 많은 체질, 특히 열이 달아올라 얼굴이 붉으면서 머리와 얼굴에 땀이 많은 사람에게 잘 온다. 만약 그런 사람이 겨울에 운동하지 않아 땀을 거의 흘리지 않고 술을 자주 마시거나 마늘, 인(홍)삼 등의 열성 음식과 약을 먹는다면 발생 확률은 엄청 높아진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진(뇌출혈) 곳에 해당되는 부분의 뇌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므로 두통, 어지럼증, 언어장애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간혹 양쪽 팔다리가 모두 마비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편마비이다. 대뇌는 가운데 홈을 기준으로 왼쪽 뇌와 오른쪽 뇌로 나뉘어져 있어서,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으로 마비가 발생되고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으로 마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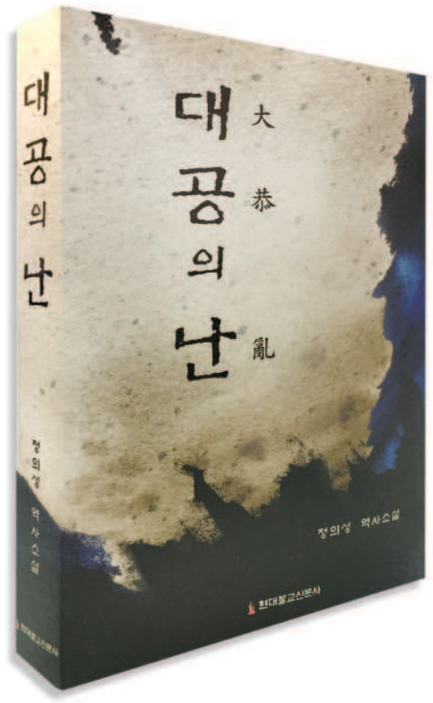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